기존 동판기와보다 10배나 두꺼운 동주물기와는
한번 시공으로 복재전물의 수명을 300년 이상 연장합니다
대원동주물기와 ☎(02)739-8745/735-2344

현대불교

55세부터의 월급, 국민은행에서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개인 연금 신탁
가입문의 : 080 - 023 - 4000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3월 8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그릇된 수단으로 이익을 구하는 사람은 파멸에 이르게 된다. (본생경)

법회 안내

관등사 (02)355-4148
일반법회 매월 3일(음)
방생법회 매월 8일(음)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관음포교원 (02)863-9649
산중기도 매월 1~3일(음)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천수용맹기도 매월 25~27일
일요가족법회 매월 셋째 일 오전 10시30분
가족등산법회 넷째 일 오전8시
전통차법우회 셋째 수 오후2시
중·고생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2시

정명사 (02)735-1896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구암사 (02)877-2378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신중기도 매월 1~3일(음)
반야법회 매월 15일(음)
성지순례 매월 1회

부산 영주암 (051)754-2210
어린이법회 일 오전10시
중·고생법회 토 오후3시
청년법회 매주 토 오후7시
참선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대구 대광명사(053)253-0514
국민학생·중학생법회 매주 토 오후2시30분
고등학생법회 토 오후3시30분
청년학법회 매주 수 오후8시

보성벌교포교당(0634)33-2810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9시
중·고생법회 토 오후2시
청년부법회 첫째 일 오전10시
군인법회 일 오전10시30분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은행지로 3054464

불교TV 1일개국…채널32…영상포교 "활짝"

안방부처님 시대 열렸다

월하 종정 "사람의 가슴속에 더 많은 법당을…"

"가슴비다 사람, 온 누리에 기쁨"을 전하는 힘찬 법고 소리와 함께 불교텔레비전 개국의 팡파르가 전국을 뒤덮었다.

지난 1일 오전10시 전국 20개사의 종합유선방송이 일제히 개국되면서 1월 5일부터 실시한 55일간의 시험방송을 마친 불교텔레비전도 이날 생방송으로 진행된 고불식을 필두로 영상포교의 장엄한 서막을 열었다. 〈관련기사 17~19면〉

고불식에는 조계종 원로 석주스님, 총무원장 월주스님 및 각종단 대표, 불교텔레비전 사장 태응스님, 주주단 대표, 국회정각회 회장 권익현의원, 각 산도단체장등 교계 지도자 2백여명이 참가 개국의 감격을 함께 나눴다.

10시 정각에 시작된 고불식에 앞서 불교텔레비전은 불교 2천6백년을 압축 설명하는 컴퓨터 그래피쇼로 방송, 불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3분30초 분량의 이 컴퓨터 그래픽쇼는 인도에 불교가 돋아나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연꽃을 피우는 금시조의 날개짓으로 표현, 환상적 영상을 과시했다. 또 한국불교 1천6백년도 팔만대장경등 문화유산과 신행의 현장을 회면가득 담아 상징해 불교텔레비전의 영상미를 한껏 보여주기도 했다.

이계진, 김성녀씨가 진행한 개국 고불식은 불교텔레비전이 자리한 금호빌딩 15층 가설 법당에서 봉행됐다. 감승한 방송위원과 "불교텔레비전은 지금 이순간부터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이 될 것을 선언합니다"라는 개국선언에 이어 태응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선각자들의 전법하는 마음을 이어 부처님의 대원, 대비, 대사를 원을으로 전파하는데 몸과 목숨을 다 바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온 누리에 기쁨 전하겠습니다" 불교텔레비전이 지난 1일 개국 고불식을 갖고 본격적인 영상포교에 들어갔다. 이날 전국의 본사와 말사에서는 불교 TV의 개국을 지켜보며 감격의 박수를 쳤다. 사진은 고불문을 낭독하는 불교텔레비전 사장 태응스님. (박재원 기자)

이어 석주스님이 대독한 법문을 통해 종정 월하스님은 "이제부터 사람의 가슴속에 더 많은 법당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총무원장 월주스님도 축사를 통해 "부처님의 모습과 음성이 모든 심라만상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어 정토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고불식에서는 고은씨의 축시를 불자 탤런트 김용림씨가, 사원들의 발원문을 고은희 아나운서가 각각 낭송했다.

불교합창단의 축가 '목련송'을 마지막으로 1시간의 고불식이 끝나고, 오전 11시부터는 30여명의 불자들이 방청객으로 참가한 가운데 불교 TV의 각종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특집프로램 '안녕하십니까 불교TV입니다'가 방송됐다.

이날 본격 개국을 한 불교텔레비전은 5일까지 개국 특집프로그램들을 방영하는등 매일 10시간의 정규방송에 돌입했다. (임연태 기자)

목어

조조의 아들 조비가 그의 동생 조식에게 말했다. "네가 3보에 능하다니 어디 일곱걸음안에 시를 읊어 보아라."

「煮豆燃豆萁 豆在釜中泣 本是同根生 相煎何太急」(콩을 볶는데 콩대를 태우니 콩은 솥안에서 우누나. 본래 한 뿌리에서 났거늘 서로 들볶기를 어찌 이리 급한가) (삼국지)의 이 이야기에서 주목하고픈 말은 '한뿌리'이다.

옛날 어떤 사람이 형제보다 친구만 좋아했다. 하루는 술에 취해 사람을 죽였다. 그는 도망쳐 친구들을 찾아갔다. 그러나 친구들은 놀라면서 '친척을 찾아가라'고 했다. 그 사람은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 사실대로 털어 놓았다. 친척들은 그를 위로했다.

본래 한 뿌리

"두려워 말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어려움을 면하도록 할 것이다."

〈홍요경〉은 이런 얘기를 통해 친척·동기야말로 으뜸가는 친구라고 일러준다.

우리는 관계속에 살아가고 있다. 부모·형제·동료·국가등 수없는 관계의 연속속에 살아가면서 그 관계가 좋을때 삶이 즐겁고 행복하다. 불편한 관계는 생각만해도 불쾌하다. 얼굴이 붉어지고 욕설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나'뿐 아니라 주위도 불편해지고, 함께하는 일도 여의치 못하게 된다.

요즘 불교언론계에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잘잘못을 따지고 가리기에 앞서 우리는 모두 한뿌리의 불자이고 불교언론인들이다. 가까운 친척이고 등기인 셈이다.

특히 이들은 불자들중에서도 남다른 불자다. 불심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펴고 그 실천을 강조하는 일이 본업이기 때문이다. (관무량수경)에 보면 불심이란 '큰 자비심'이라고 했다.

큰 자비심이란 차별을 두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씀은 이어 진다.

불교TV 개국으로 이제 불교언론은 영상·음성·활자등 종합매체가 되었다.

이들은 서로 '큰 자비'를 발원한 한 뿌리의 친척들이니 관법의 메아리가 시방세계에 두루하도록 합심하여 정진하면 내일이 밝으리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설립인가

사찰마다 복지시설 운영 제도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월주스님)이 지난달 27일 보건사회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조계종은 타종교에 비해 절대 열세에 놓여 있던 복지시설 및 기관의 위탁운영이 한층 활발해 질것으로 보여진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앞으로 △각 사회복지 시설·단체 운영 지원 △사회복지연구·조사·홍보 △사회복지 자원·프로그램 개발 보급 △사회교육 △국내외 사회복지 연구교류 △출판·회보발간 등의 사업을 펼쳐가게 된다.

조계종은 사회복지법인 인가를 받음에 따라 향후 1사찰 1복지시설 운영을 할 수 있는 제반 제도와 행정체계 행성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본사 사령
박 상 균 임 치 장
명 편집국 편집부 김 원 우 임 기자
명 편집국 취재 2부 (2월1일자)

법공양면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종단·사찰 대상 실비제작 독자에겐 사실상 증면 효과

현대불교신문은 교계의 각 종단 또는 사찰과 공동으로 제작하는 법공양 면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설 법공양 면은 본지의 편집의도에 따라 제작되는 기존의 지면(주 16면)과는 별도로, 등참을 원하는 종단·사찰이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자기재량 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지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현대불교는 1차로 지난 호에서 「관음종」의 법공양면을 제작, 전국 독자에게 빠짐없이 배포했습니다.

법공양 면은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본인 부담하기 희망하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비용부담은 제작을 원하는 부수(部數)의 실제 인쇄비 및 우송료로 한정됩니다.

현대불교가 일반 제작비 부담증가를 무릅쓰고 법공양 면을 신설하는 뜻은 주 16면 발행만으로는 각 사찰마다 행해지는 설법을 지상중계하는데 한계가 있고 현재 8~9만에 게재 중인 「지상법석」을 확대해 달라는 독자의 요구를 고려한 데 따른 것입니다. 법공양면의 크기는 신문대판과 타블로이드 판형 두가지 입니다.

법공양 면을 이용하시려면 본사 소정양식에 따라 미리 제작일자를 약정하여야 하며 한번의 이용 면수는 2개면 이내 이어야 합니다.

각 종단·사찰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최초 비구니 노후 복지시설 15면
불교TV 특집 17·18·19·20면


목조가섭관 오대산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국보 상주 남장사 경북 문경 김룡사 서울 정로교회 서울 개인주택 부산 관기장호집

전통기와의 멋과 품격을
풍산 한식銅기와가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풍산 한식동기와는 전통을 소중히 하는 사찰, 고건축물 등 한식가옥과 주택의 미를 추구하는 기념건축물, 일반 가옥 등에 잘 어울리는 지붕재입니다.

■ 내식성이 뛰어나 수명이 반영구적입니다.
풍산 한식 동기와는 시공후 짧은 시간내에 표면에 치밀한 조직의 산화막을 형성, 부식을 막아주므로 수명이 반영구적입니다. 또한 내후성과 방수성이 뛰어나 어떠한 기후 조건과 변화에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 눈, 비, 바람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해 줍니다.

■ 고색창연한 색상과 전통미를 재현했습니다.
풍산 한식동기와는 동판 특유의 색상변화에 따라 시간이 흐를수록 중후한 색상을 이루어 건물에 고색창연한 멋을 더해줍니다. 여기에 동판의 우수한 가공성을 이용, 우리기와의 전통적 형태와 곡선미를 완벽하게 재현시킴으로써 고유의 멋을 그대로 살려주고 있습니다.

■ 시공이 간편하고 경량입니다.
풍산 한식 동기와는 주요 기와부품을 기계 가공해 제품이 규격화되어 있으며 완전조립식으로 시공이 간편합니다. 또한 기와의 중량이 흙기와의 10분의 1정도로 가벼워 운반이 쉽고 건물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뛰어난 내식성과 내후성, 중후한 색상, 완벽하게 재현된 전통미 그리고 시공이 간편한 풍산 한식동기와로 현대건축물에 전통가옥의 멋과 품격을 살려보십시오.

株式會社 豐山
전화 : 273-3021/9 FAX : 273-3835

풍산 한식동기와로 시공한 대표적 건물 목조가섭관, 오대산 월정사, 구리 화장사 연기암, 이동 길불사, 부산 관기장 호텔, 문경 김룡사, 문경 대승사, 부산 복천사, 상주 원적사, 상주 아미장사, 국보 상주사, 서울 정로교회, 서울 개인주택, 제천 강천사, 대구 관암사, 대백 천불사, 구리 해문사, 나주 홍씨재단, 성남 한국도로공사, 여의 동일유업, 대구 대구여중, 서울 회기사

사 설

깨우침 불씨켜는 계기로

경건 주간을 재발심의 계기로 불교는 날로 새로워지는 종교가 되야할 것이다.

두상 · 무아 · 반야 · 보시 등의 의미는 곧 새로워짐의 사상이며, 이를 실천수행하면 반드시 새로워진다. 그러므로 불교사상은 곧 항상 새로워지는 것이 특징이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고 죽은 나무는 잎을 피우지 못한다. 불교는 언제나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하고 있고 변화하는 현실을 새롭게 간들기 때문에 무상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동안 약간 침체되었던 불교계의 분위기가 지난해부터 개혁이란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으며 종도의 염원을 수렴한 종단의 새로운 집행부가 불교발전의 불씨를 점점 확산시키는 것을 보고 참으로 불교도와 국민은 희망과 기대의 빛이 더해 가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는 3월8일부터 15일까지를 〈불교도 경건주간〉으로 발표하였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절(음력 2월초 8일)과 열반절(음력 2월보름날)을 계기로 1991년부터 〈불교도 경건주간〉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그다지 국민의 눈과 귀를 끌어들이지 못하였다. 그것은 무슨 주간, 무슨 대회라는 이름만 무성하였지 행사의 내실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의 행사는 개혁종단에서 새로운 기치와 알찬 내용으로 중생의 눈을 띄우고 귀를 열어 주는 알찬 행사가 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에서 몇가지 제의를 하며 기대해 본다.

첫째, 전국사찰에서 남북통일을 위한 기도를 함과 동시 출가정신을 초점으로 한 용맹심을 살려 일체 중생의 성불에 앞서 끊어진 핏줄을 잇는 통일법회를 대대적으로 결행하였으면 한다.

둘째, 정반왕의 태자인 고타마 실달다가 출가한 것은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 온 것이고,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나아 간 것이며, 소아(小我)를 버리고 대아(大我)로 나와 모든 중생과 자연을 벗한 것이다. 참된 불자의 길은 이러한 무아사상을 실현하는 길임을 절감하고 불우한 이웃을 찾아 가야 한다. 출가나 열반은 바로 불우한 이웃과 사회를 같이 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산업현장에서 땀흘리며 묻혀있는 노동자나, 무역개방에 불안해하는 농어민들과, 평생동안 그늘에 묻혀 꽃다운 청춘을 묻어 애환에 쌓여 있는 종군위안부들을 돕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새로운 삶의 기운을 북돋우는 일을 하였으면 한다.

셋째, 환경보호운동을 대대적으로 벌려 〈지구가 썩으면 나도 병든다〉는 인과응보를 인식시키고 깨끗한 지구를 만드는 운동의 일환으로 전국사찰에서 열반법회 후 모든 불자가 일제히 쓰레기를 줍거나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 캠페인을 벌였으면 한다.

부처님은 항상 중생 곁에 있는데 불자가 중생을 떠나서야 되겠는가.

살아있는 불교는 중생과 더불어 숨쉬어야 한다. 중생들의 숨결과 애환속에 꽃피지 않는 부처님의 마음은 가식에 불과하다. 이번 〈경건 주간〉이 중생의 불씨를 일깨우는 내실있는 행사가 되기를 발원한다.

열린마당

불교도 경건주간

오 성 스 님



"오계지키며 생활 수행 몸에 익히길"

초발심 마음으로 보살행 다졌으면

또다시 부처님의 출가와 열반일을 맞는다.

일주일 간격으로 이어지는 불교도들의 명절을 '불교도경건주간'으로 정한지가 벌써 4년째. 이 기간은 부처님이 고통과 속박의 집에서 나와 자유의 세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탄생임을 우리는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자각해 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하겠다.

특히 불교도들은 지난 성도재일을 기해 '깨달음의 사회화'를 선포했었다. 이번 경건주간 또한 깨달음의 사회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기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금년에도 총무원에서는 각종 행사기획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마다 정치 경제 사회의 혼란을 극복하는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사바세계에 비춰지기를 바라는 불교도들의 기대가 크다. 이를 위해서는 산만하고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 보다는 승가와 재가가 화합된 전국적 체계적 조직적 전문적 행사가 치뤄져 알찬 결실이 있었으면 한다.

무엇보다도 이 기간에는 불다의 출가와 열반의 참 의미가 생활 속에 스며들도록 정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오계를 지키고 경건하게 몸과 마음을 다루며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더불어 고통받는 남과 이웃, 그리고 사회를 되돌아 보고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의 보시와 자비정신을 실천해야 하겠다.

따라서 모든 불자들은 이 기간동안에 초발심의 자세로 돌아가 보살의 행원을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물질적 풍요와 경제적 이익에 눈 어두워 있지는 않은지 살펴 검소하게 생활하고, 자아의 참모습을 찾는 생활수행을 몸에 익히는 기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제주 백련사〉

김규대 법사



"청정 세상 만들기 마음의 출가로 동참"

부처님 열반 의미 다함께 되새겨야

몇년전까지만 해도 불교의 4대명절 중 출가절과 열반절의 의미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91년 총무원이 경건주간을 선포한 후부터 이 두 기념일을 뜻있게 보내기 위한 교계의 노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다. 출가절에서 열반절까지의 일주일간은 불자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출가가 승가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부처님은 왜 출가해야 했는가. 자신에게 주어진 부귀영화를 집어 던지고 설산으로 들어가야 했던 부처님의 절박한 사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출가를 단행한 부처님의 용기가 어떤의미를 갖는 것인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다시 출가절을 맞는 우리는 그같은 부처님의 용기와 몸으로 보여 준 진리에 대한 갈망을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혼탁한 이 사회를 보다 인간답고 보다 청정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몸이 아닌 마음의 출가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열반절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열반은 끝의 개념이 아니다. 열반은 진리의 수레바퀴가 한 번 구르는 연속선 속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억겁의 연기법을 생각해 보자. 부처님의 열반은 수많은 중생에게 윤회와 연기의 진리를 깨우치게 하는 큰 교훈이 아닌가. 멈출 수 없는 진리의 수레바퀴를 우리들 삶으로 연결 시켜야 한다.

출가절과 열반절을 하나의 기념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삶을 그 위대한 의미로 결부 시키는 실천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일상 속에서 갖는 '마음의 출가'와 '진리의 끝없음'을 일깨우는 경건주간이 될때 우리는 참다운 불자의 자세로 알어 설 수 있을 것이다.

〈회랑호국사 · 중령〉

현 대 만 평

박 구 원



부처님 마음으로 더 가까이…

시 론

가랑비 수준 넘은 마약복용

예방 · 재발방지 등 근절대책 절실

마약복용은 근절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사회를 놀라게 하는 일중의 하나는 마약복용의 확산이다. 마약이란 이름 그대로 악마와 같은 악이며 악마가 되게 하는 약이라는 뜻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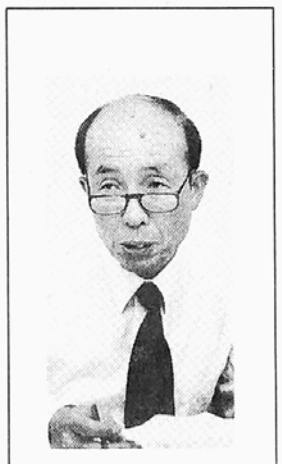
악마의 특성은 악마라는 표시가 없이 인간을 해치는 것이다. 만약 악마가 악마라는 이름표를 달고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금방 악마임을 알 것이며 그렇다면 그 악마를 방어하거나 피할 것이다. 그러나 악마라는 표식이 없으므로 악마를 악마인 줄을 모르고 더욱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마약도 마찬가지다. 만약 마약이 순수 독약처럼 먹으면 그자리에서 독이 나타나 죽거나 불구자가 된다면 이것은 마약이 아니며 독약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묘하게도 마약은 그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다고 한다.

마약을 복용한 경험자의 의하면 대단히 기분이 상쾌해 진다는 것이다. 가라앉은 기분이 흥분된 상태로 바뀌고 축 처진 감정이 상승작용을 하여 대단히 아름다운 상태의 감정으로도 변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마력때문에 그것이 마약인줄을 모르고 먹게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마약 복용자들은 마약의 피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약을 복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약을 마약인 줄 알면서 복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인마다 복용의 이유나 동기가 같을수는 없지만 크게는 두가지 측면 즉 내적 원인과 외적 요인이 있을 것이다.



권 기 종 교수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

심리적 불안이 문제

첫째 내적원인이란 마약을 복용하는 당사자의 심리적 상태이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불안과 초조를 갖고 있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노력과 자기 방어가 필요하며 항상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위기를 의식하지 않으면 않된다. 지속적인 경쟁심으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의 연속이다.

내가 얻고 있는 인기가 언제 나를 떠날 것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부가 언제 사라질 것인지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자신에 대한 조바심이 도사리고 있다. 이같은 긴장의 연속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술을 마셔야 하고 광적인 봄 놀림을 하기고 한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해결되지 않는다.

이러한 내적요인이 마약이라는 무서운 모험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성공한 사람들의 불안감에 반하여 나름대로의 실력과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실패만을 거듭하는, 소위 운이 없거나 때를 잘못 만났다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마약복용의 유혹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까지 확산 우려

둘째 외적요인으로 산업사회의 만연하는 쾌락풍조와 목적만 좋으면 어떠한 방법을 취해도 무방하다는 이기적 가치관의 변화와 이에 따른 갖가지 후속적 부정과 모순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가세해서 외국의 잘못된 풍속과 저질문화가 분별없이 수용되며 소득의 증대에 의한 졸부들의 빗나간 향락과 소비관행이 마약에까지 관심을 갖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이유의 근거는 그간의 적발된 마약복용자가 위의 원인과 유사하였기 때문이다. 대개의 마약복용자들은 재벌 2세나 아니면 젊은 성공한 실업인 또는 연예계 종사자, 외국에서 살았거나 외국출입이 잦았던 사람, 심한 경쟁 때문에 불안과 초조에 쫓긴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이러한 소수에서 사회 전반으로 파급되어 농촌에까지도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마약 복용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우려가 없지 않으며 만일 더 이상 확산된다면 결국 우리 사회는 총없는 전쟁, 적없는 전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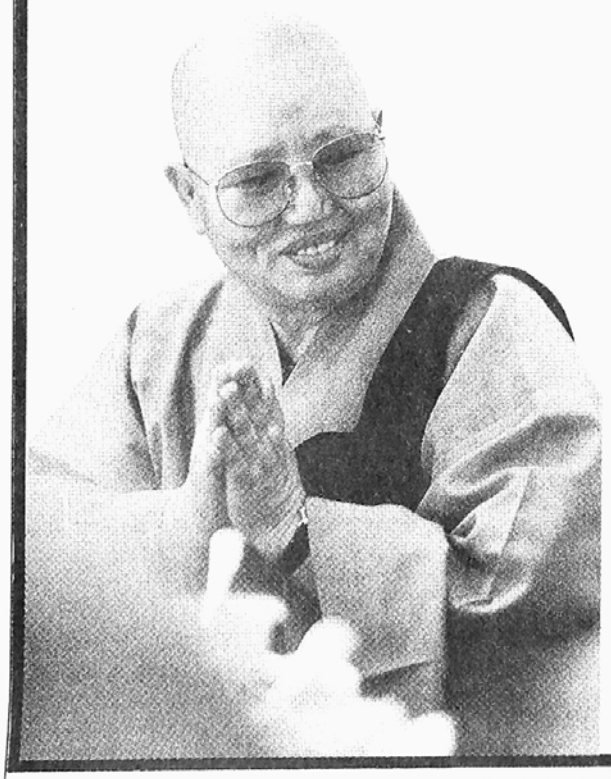
그렇다면 마약복용의 확산을 어떻게 근절시킬 수 있을까. 물론 직접적 대책으로는 적발과 단속, 형벌에 의한 대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이고 중요한 것은 계몽과 예방에 있으며 나아가서 재발방지에 있다고 본다.

마약은 이미 마약이 아니라 독약임을 널리 알리고 또 교육해야 한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나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서는 이 마약의 유해성을 교과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계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단속과 계몽을 겸행해야 할 것이다.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충분한 예방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어떤 위험의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험은 예방이 제일의 치료방법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대 • 행 • 스 • 님

광복 50주년
대구 · 경북 지역민과
호국영령을 위한 대법회



초대합니다

부처님 뜻 받들어
중생과 더불어 고행하시는
대행스님의
대구 · 경북지역민과 호국영령을 위한
큰법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지원장 혜 계
신도회장 김우룡 합장

"
육신 생긴 게 화두요
내 마음이 화두요
내 생활이 화두이니
화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부지런히 뛰는 생활 속에
참선이 있다.
"

- 대행스님 법어 중에서 -

• 일시 : 1995년 3월 12일(일) 오후 2시
• 장소 : 대구실내체육관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 후원 : 대구불교신도회 · BBS불교방송
현대불교신문 · 보훈청 · MBC대구
영남일보
• 문의전화 : (053)426-2779

부처님의 지구 사랑 ⑦

전 재 성

숲은 먹거리 등 많은 혜택제공
인간 탐욕이 땅의 황폐화 불러

부처님께서는 상응아함경의 계상응(界相應)에서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만약 여기 땅의 세계가 괴로움을 수반하고 괴로움을 드러내고 즐거움을 드러내지 않는, 순전한 괴로움이라면, 뭇삶들은 땅의 세계에 탐착하지 않을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그러나 실로 땅의 세계가 즐거움을 수반하고 즐거움을 드러내고 괴로움을 드러내지 않으며, 즐거운 까닭으로 뭇삶들의 땅의 세계에 탐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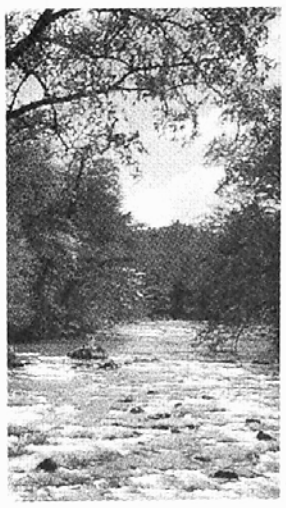
땅

땅의 세계가 완전히 조화롭게 성숙해서 형성된 자연의 숲은 온갖 생류와 인간에게 즐거움을 수반하고 즐거움을 드러낸다. 숲이 인간에게 베푸는 즐거움은 아래와 같다.

첫째 먹거리, 약초등을 공급한다. 둘째, 산업사회에 필요한 목재, 약초등을 제공함으로써 일자리를 제공한다. 셋째, 휴식처로 숲을 고요하고 신선한 공기, 잘 조화된 온도, 비와 눈보라를 피할 수 있고 여러 동식물의 다양한 삶을 체험하게 한다. 넷째, 숲은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소음방지의 역할을 제공한다. 모든 잡음은 일사귀와 나뭇가지에 부딪혀서 반사되지 못하고 흡수되어 버린다. 다섯째, 숲속에 사는 많은 새들과 곤충들은 농사를 짓는데 해로운 해충을 없애준다. 여섯째, 숲은 오염된 지상의 공기의 가장 탁월한 필터역할을 하여 공기를 정화해 준다. 평지보다 숲속에서 공기를 정화시키는 양은 20배가량 높다. 일곱째, 미세기후에 좋은 영향을 준다. 숲은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도 바깥보다 시원하거나 온화한 기후를 유지하여 주며 도회지나 평지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여덟째, 물을 정화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숲의 나무잔뿌리가 있는 땅은 물을 걸러 맑은 물이 되게할 뿐만 아니라 그 물을 보존하는 능력을 증대시켜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홍수를 일으키지 않으며 가뭄이 들어도 보존된 물을 일정하게 방출함으로써 가뭄의 재해를 방지한다.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땅의 즐거움과 혜택에 고도하게 탐착한 나머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여 향락한 만큼 돌이킬 수 없는 땅의 재앙을 불러오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땅의 세계에 대한 탐착을 버리도록 있는 그대로의 세계로써 바라보지 않으면 안된다. 부처님은 땅의 세계가 즐겁다는 것은 전도된 망상이며 그 본질은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부처님께서도 일찌기 '모든 조건적으로 형성된 것은 무상하고(諸行無常), 모든 법은 실체가 없으며(諸法無我), 모든 것은 괴롭다(一切皆苦)' 라고 설파하셨듯이, 땅의 세계도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무상하고 실체가 없으며 괴로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생각해보라. 1그램의 흙속에서도 10억 미생물의 미시적 생노병사가 이 수십억 인구가 사는 거시적 생노병사의 세계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땅의 세계의 실상인 것이다. 자비의 대상이 될 자연정 어찌 즐거움의 세계로 인간의 탐착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보는 전도된 망상의 칠흑같은 무명(無明)에 의해서, 땅의 세계의 괴로움은 본래적인 괴로움 이외에도 땅의 산성화, 열대림의 파괴, 사막화를 통해 가속화되고 있다. 인간은 땅을 탐욕의 대상으로 삼아 착취하고 황폐화시켜 오고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땅의 세계에 향락하는 자는 괴로움을 향락하는 것이며, 그 괴로움을 향락하는 자는 괴로움으로 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다.



◇땅을 탐욕의 대상으로 삼아 착취할 때 자연은 병든다.

'95 신행 캠페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금주의 주제 오계 수지

5계는 불교인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삶의 기본자세를 담고 있는 불교인의 생활윤리다. ①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억압하거나 손상하거나 죽이지 말며 ②아낌없이 베풀어주고 결코 남의 물건을 빼앗지 말 것이며 ③청정행을 할 것이요, 결코 사음을 하지 말며 ④진실한 말을 하고 결코 망령된 말을 하지 말며 ⑤바른 마음을 지키고 술에 취해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라.

불교인이라 하면 최소한 5계를 받아지닐 뿐만 아니라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입문자들에게 1개월에서 6개월 동안 기초교리와 경전공부 등의 과정을 거치게 하고, 이 과정의 수료자들에게 입문의식인 수계식을 행한다. 수계식에서 계사는 5계를 설하고 '받아 지니고 행하겠느냐'는 약속을 받아 계를 내린다.

의정부시 ㅎ포교원 신도인 김영호씨(41)는 "연비의식 때 살갗을 파고드는 따끔함이 신선한 새벽바람처럼 언제나 새롭게 생각된다"며 수계식을 회상하고 "5계를 받아 지니는 것보다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본지가 조사한 설문에서 불자들의 71%가 5계를 받았다고 답해 5계실천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불자들은 5계 가운데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율은 '거짓말하지 말라'를 꼽았다. 또 5계 실천을 스스로 평가해서 점수로 환산하면 평균 60점이라고 낮은 점수를 매겨 불자들은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윤리적 규범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사찰의 각종 모임에서 5계지키기를 주제로 토론회를 갖자는 것도 좋은 제안이다. 서울 노

불자들 생활의 기본윤리
자기와의 약속… 실천이 더욱 중요

원구 B사 신도 김성호씨(28)는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는' '왜 지켜지지 않는가' 등의 의문을 내놓고 자기를 점검하는 모임을 일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불교의 오랜 참회의식인 포살·자자를 신도들에 맞게 재구성, 스님이 주재자가 되어 5계를 다시한번 상기시키고 마음속으로 답하도록 하는 의식의 정례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계는 계율을 어기지 않겠다는 자기와의 약속이다.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움직임을 관찰하며 깨달음의 행을 닦아가는 수행이기 때문이다.

학과 덕·지와 행·문과 무·자리와 이타·수행과 포교…. 부처님은 이러한 모든 면을 두루 갖추셨으므로 양족존(兩足尊)이라고도 한다.

수행과 포교, 자리와 이타를 배우고 실천하며 자기속에 숨어 있는 불성을 찾아내는 마음공부를 자원봉사 시민대학에서 시작해 보는게 어떨까?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에서는 오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자원봉사자 봄학기 교육을 실시한다.

불교기본교육, 태극수지요법, 환경교육, 원왕생교육등을 실시하게 될 자원봉사시민대학은 수행과 포교를 위한 재충전의 기회가 될 것이다. (02)723-6258

출가·열반절기념 강연
제1회 현대불교 문화강좌개설

현대불교신문은 『출가·열반절을 기념해 제1회 문화강좌를 3월10일과 14일에 개최합니다. 출가와 열반의 참뜻을 새기고 우리의 삶을 보다 건실하게 가꿔갈 방향을 제시하게 될 이번 문화강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위대한 출가·깨달음"



● 강사 : 정락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 3월10일 오후 6시30분

"눈뜨기 마음열기"



● 강사 : 고은선생 (시인·본지 논설고문)
● 3월14일 오후 6시30분

● 장소 : 한마음불교회관 지하 녹수청산

참가 안내

- 선착순 1백명에 한합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한방차와 기념품, 책방 여시아문 도서구입 10%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 회비 3천원입니다.
- 문의처:722-4162, 737-8881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번지 한마음불교회관

현대불교신문사

신행수첩

출가열반정신계승
원각사 철야정진법회

석가모니부처님의 출가·열반절을 맞아 부처님의 뜻을 계승하는 각종 법회가 열리고 있다. 출가절은 부처님이 인생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부귀영화등 온갖 인간적 복락을 떨친 인류최대의 사건이다.

원각사(주지 법현)는 7~8일 108예참과 탑돌이 정근 좌선 찬불가 특별법문 새벽예불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철야정진법회를 봉행한다. 아울러 그동안 추진해 온 중창불사 회향법회도 개최한다.

원각사는 조선 세조에 의해 폐위된 단종의 비인 송씨가 단종의 넋을 기리기 위해 3년동안 천도기도를 봉행한 천도도량으로 유명하다. (02)742-0085

백제문화유적 찾는해
전남 광주 민학회

타지역 유적지 답사를 통해 문화유산을 비교하고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지역별 시민문화모임들의 발걸음이 활발하다.

이들 문화모임들은 대부분 불교유적지를 찾고있어 불교문화이해와 더불어 신심을 높이는등 새로운 포교역할까지 겸하고 있다.

광주 전남을 기반으로 문화운동을 펼치고 있는 광주 민학회(회장 박선홍)는 2월25일 정기총회를 갖고 금년을 '백제문화 유적을 찾는해'로 정했다. 민학회는 3월19일 고창 선운사와 도솔암을 시작으로 4월에는 발산리석탑, 죽산리석탑등 군산 장항지역 유적지를 답사한다. 이외에도 10월3일에는 익산 미륵사지 답사를 계획하고 있다.(062)-234-5677



◇인도에서 흘러온 돌배안의 부처님을 모셨다는 창건설화가 전해져오는 선운사의 대웅보전.

죄업털고 깨달음을
감로사 삼천배 참회기도

일상속에 젖어들다 보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간간이 느껴지는 생활의 느낌마저도 일상에 묻혀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이런 세속생활에서 지은 몸과 마음의 모든 죄업을 참회하고 자신을 가지런히 추스릴 수 있는 여유를 갖는다는 것이야말로 삶을 살찌우는 좋은 방편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을 담고 봄이 오는 길목에서 부산 감로사(주지 이혜총)는 전국 모든 불자들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4박5일동안 '삼천배 참회기도'를 봉행한다.

하루 6백배와 세차례의 법문, 도반들과의 나흘 숙식은 온갖 죄업을 소멸하고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깨달음의 한마당이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정관스님, 지관스님 등 여러 스님들도 불자들의 깨우침을 돕기 위해 동참한다. 겨울옷을 벗으며 자신의 허물도 함께 벗게 될 삼천배 참회기도. '불법이 있어 삶이 행복하노라' 고 외칠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이다.(051)809-0926

선가 수행의 핵심
광명선원 능엄경 강의

부처님의 근본경전중 수행의 핵심이라할 수 있는 능엄경 강의를 개설하는 배움터가 있다.

봉선사 서울포교당인 방배동 광명선원(원장 초격)은 3월9일부터 9월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11시에 6개월과정의 능엄경 강좌를 마련한다.

〈능엄경〉은 선(禪)과의 관계가 깊기 때문에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존중되는 경전의 하나로 자리를 굳혀 전문강원의 교과목 중 〈금강경〉 〈원각경〉 〈대승기신론〉과 함께 사교과(四敎科)의 하나로 옛부터 학습되어 온 중요한 경이다. 이 능엄경은 밀교인 관정부에 수록되어 인도 나란타사에 비장하고 부처님 열반 후로부터 인도에만 유통하고 타국에는 전하지 못하도록 왕으로부터 엄명이 있어 당나라 이전까지는 중국에 전래되지 못했다고 전해지는 경이다. (02)-584-1108

불성찾는 마음공부
자원봉사자 교육

인간은 모든 일에 양면을 두루 갖추어야 원만하다 할 수 있다.

나와 이웃 그리고 자연은 하나

생활속의 불교 ⑲

협찬 (주)삼민산업

"그래 난 결심했어!"



땅 속을 기어다니는 벌레 하나라도 나올 자격이 있으니까 나온 것이다. 이 세상에 자격 없이 나온 것은 없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미물까지도, 초목 금수나 무정물까지도 마침내는 부처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물며 인간이야 어떠하겠는가. 우리는 누구나 다 부처님의 자식이다. 그러니 근본적인 면에서 본다면 성불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물은 흐르고 흘러 결국 바다에 도달한다. 흐르다가 어떤 용도로 쓰여져 바다에 이르지 못하고 거슬러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끝내는 바다에 이른다.

그와 같이 인간의 마음도 욕심, 어리석음, 성냄, 망령된 생각 따위로 인해 온갖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결국은 성불의 바다에 이르고 말 것이다.

바다에 함류하는 물은 더럽든 깨끗하든 다만 물의 성질 한 가지만으로 합류하는 데 아무런 걸림이 없듯이 우리가 불법이라는 큰 바다에 들기 위해서는 다만 한 가지, 마음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마음 없는 사람 없으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미 불법의 바다에 들 자격이 있는 것이니 성불이라는 크나큰 행복은 따놓은 당상이나 다름이 없다. 우리가 비록 수억겁을 거쳐 이리저리 방황하며 돌고 돌다가 이 자리에 이르렀다 하지만 모두 다 부처 될 수 있다는 승인을 받아 놓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는 인간의 몸을 타고 났으므로 비로소 수행다운 수행을 한 기회를 맞았고, 성불이라는 최후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가능성을 지니게 되었다.

문제는 지금 당장 불법에 뛰어들 결심을 굳히는 데 있다.

불법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베파베리아
(VAPOUR BARRIER:알미늄 보온방습 단열재)

자체개발에 성공!

삼민산업(주)은 그 동안 수입에만 의존해온 고품질 베파베리아의 자체개발에 성공, 의장등록, 실용신안 등록을 마쳤으며 국내 유리면 생산업체 납품과 국외수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삼민산업(주)이 개발한 베파베리아는

가. 경이적인 단열 보온효과가 있습니다.
나. 방습·방수 효과가 우수합니다.
다. 실내외 온도를 차단하므로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냉동용 베파베리아 · 건축용 베파베리아 · 축사용 베파베리아
난연용 베파베리아 · 방수용 프창저 · 레저용 MAT

SAMMIN 삼민산업주식회사
경기도 시흥시 성왕동 시화공단 4 다-19호
전화 0345-498-5533
팩스 0345-498-8998

동국대 송석구 총장 취임사 요지

교육구국의 횃불을 높이 들고 불국정토의 건설과 인간의 자아완성이라는 큰 이상을 건학이념으로 하여 구한말 불교계의 선각들이 이룩한 학교가 바로 우리 동국대학교입니다.

본인은 이 건학이념에 입각하여 먼저 "높은 기상,더불어 사는 사랑교육"이라는 기본정신을 교육의 대전제로 삼고자 합니다.

대학인은 큰 뜻을 품어야 합니다. 인생에 대한 적극적인 희망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스스로 타개해 나가는 자기실현의 욕구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인류의 화합과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길이며 소아를 버리고 대승의 보리심을 찾는 정신입니다. 우리는 소극적이며 상징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기상을 지닌 지성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을 아끼고 사람을 사랑하며 사람을 용서하는 자비심과 이타행을 스스로 실천하는 대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더불어 사는 사람교육이며 화합의 정신이요 원융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세계화 개방화의 물결속에서 소위 무한경쟁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에 있어서 변화와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당위'입니다. 변화를 위기로 생각하는 소극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성장과 발전의 전기로 삼을 수 있는 긍정적 사고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첨단 과학시대의 실용적인 기술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특히 기술교육의 총아인 '컴퓨터교육'과 세계화와 동의어인 '외국어교육'등을 적극 강화하여 졸업후 사회에 진출하여서도 재교육을 받지 않고도 일할 수 있는 유능한 종합적 인재를 양성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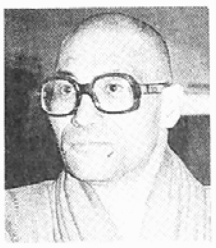
이 개혁과 격동의 시대에 동국대학교 총장의 책무와 사명은 추상적인 동국발전의 서약에 있지않고 우리 동국이 당면하고 있는 불교종합병원의 개설, 제3캠퍼스의 건립, 교직원 복지향상과 연구환경의 개선, 신입생 기숙사 건립 등 장단기 발전계획을 교육개혁과 행정개선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달성함으로써 동국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일입니다.

본인은 이미 멸사봉공의 자세로 신명을 바쳐 동국이 발전되는 길이라면 솔선하여 나설 수 있는 비장한 각오와 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동국인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본인의 동국에와 동국중흥의 길이 결코 저 혼자만의 외로운 길이 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995년 2월 27일



베를린 보문사 주지 병오스님



"언제 언어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기초적인 외국어학습과 그 나라의 문화와 사회, 신앙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한국사찰로는 최초로 독일현지의 종교법인 등록을 마치고 포교활동을 펼치다 최근 귀국한 병오스님(베를린 보문사 주지)은 해외포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데 대해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사전준비는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준비 철저해야 해외포교 성공해요"

90년 음악공부를 위해 독일로 유학한 병오스님은 학업도 잠시 중단하고 3년전에 보문사를 설립,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병오스님은 "한국불교도 이제는 세계인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해외포교를 적극 지원하는 인식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지난 3일 출국했다.

WFB 총재에 추대



도문스님(대각사 주지)은 지난달 8일 서울호텔에서 열린 세계불교도우의회(WFB)정기이사회에서 총재로 추대됐다.

701번째 통일시비 제막



일붕 서경보 스님(일붕선교종 종정)은 지난달 26일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3·1절을 기념, 701번째 평화통일시비를 제막했다.

전국연합 초청강연



지선스님(백양사 주지)은 지난 28일 대구 계명대학에서 전국연합 대구경북지부의 초청으로 '3·1운동의 역사적의의와 오늘의 과제'라는 연제로 강연했다.

태국 정법사회의 참가



진월스님(미국 버클리대 박사과정)은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태국에서 열린 정법사회 회의에 참가한후 26일 귀국했다가 28일 미국으로 돌아갔다. 스님은 이번 정법사회의에서 '불교의 사회사상, 한국에서 본 마하야나'를 발표했다.

조계사 기획실장 맡아



원학스님(조계종 종회 사무처장)은 지난 달 20일자로 서울 조계사 기획실장으로 임명됐다. 조계사 기획실은 이번에 새로 신설된 부서로 사중의 불사를 비롯 전반적인 기획, 인사, 조직, 업무관리를 총괄한다.

해외포교 유럽순회



지묵스님(송광사)은 송광사 프랑스 분원 길상사에서 1년간 주석하며 해외포교를 펼치기 위해 지난 5일 출국했다. 법홍스님도 1개월간 유럽 순회법회를 위해 지묵스님과 동행출국.

중국에 불교문화원 개설협의



소암스님(시인)은 중국에 불교문화원을 개설키 위해 연길 심양을 2주간의 일정으로 방문하고 10일 귀국한다.

광주불방 축하 찬불가 발표



지범스님(극락사 주지)은 26일 광주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불교광주방송 개국 축하공연에 참석, 부모은중경 등의 찬불가를 발표했다.

북경 포교원장 취임

법해스님(전 원각사 주지)은 원각사 북경포교원장으로 취임키 위해 지난 8일 출국, 중국북경에서 포교활동을 펼친다.



김중위 환경장관 월주스님 예방

김중위 환경부장관은 지난달 28일 오후 4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예방, 불교가 범국민적 환경보전운동에 선도적 역할을 해줄것을 당부했다. 이날 김장관은 자신의 저서 '산너머 산이지만'을 증정하고 월주스님은 다기를 선물했다.

이자리에는 조계종 문화사회부장 시현스님 조병환 환경정책실장이 동석했다.

전문지에 대한 인식확산 다짐

주간신문협회장 취임
한기호 씨



"전문신문과 주간신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넓히는데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지난달 24일 한국주간신문협회 제18대 회장에 취임한 한기호(운송신문대표)회장은 특히 협회의 화합과 단결이 전문·주간신문이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체라고 손꼽는다.

1백50여개사가 가입된 한국주간신문협회를 이끌어 나가게 될 한회장은 전문·주간신문의 특성상 언론경영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서로 교환하고 재정적인 문제해결방안 마련에도 중점을 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전문기자교육과 컴퓨터 편집교육을 강화하고 기금마련을 통해 회원사들을 직·간접적으로 돕겠다"는 한기호 회장은 불자로서의 수행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했다. 〈우〉

보덕사 유치원 개원



현오스님(영월 보덕사 주지)은 지난 4일 부설 보덕유치원 개원식을 봉행했다. 지상 2층 150평 규모에 학습실과 유희실을 갖추고 80명의 어린이를 수용한다.

소년소녀가장과 결연



박한종씨(홍종사 대표)는 지난 달 21일 최현숙 양등 소년소녀가장 9명과 자매결연을 맺고 가구당 5~10만원씩 매달 55만원의 생계비 지원을 약속했다.

고미술협 새 회장에



정친우씨(성보당 대표)가 지난 달 23일 임기 2년의 제17대 한국고미술협회장에 선출됐다.

'정치성숙의 길' 세미나

백상창소장(한국사회병리연구소)은 4일 오후3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연구소 세미나장에서 '한국사회에서 정치 성숙의 길'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인 사

동국대 〈서울캠퍼스〉 △부총장 김생빈△대학원장 김인홍△불교대학원장 목정배△행정대학원장 정용길△경영대학원장 이순룡△교육대학원장 조영록△정보산업대학원장 황창규△산업기술대학원장 김상규△문화예술대학원장 장한기△불교대학장 서윤길△문과대학장 강재륜△이과대학장 김종호△법과대학장 박영길△사회과학대학장 정기섭△경상대학장 황용호△생명자원과학대학장 조병찬△공과대학장 장재명△사범대학장 김헌규△예술대학장 안민수△이부대학장 허천택△정각원장 이법산△기획조정실장 성용길△교무처장 장오현△학생처장 곽준규△총무처장 염준근△관리처장 김종옥△비서실장 황영수△중앙도서관장 정병조

〈경주캠퍼스〉 △부총장 김갑주△지역개발대학원장 김병기△불교문화대학장 김영길△인문과학대학장 김필수△자연과학대학장 최영태△법정대학장 김희오△상경대학장 황윤식△한의과대학장 박현국△정각원장 이행구△교무처장 박청평△학생처장 최상범△사무처장 장용철△도서관장 김용택 〈의료원〉 △의료원장 겸 기획관리실장 조재호 〈전산원〉 △전산원장 유광진

게 시 판

▲지도자 양성과정 개설=불교교육연구원(원장 황학현)은 오는 20일부터 3개월과정으로 불교어린이 지도자 양성과정을 마련한다.

강의는 매주 월·수·금이며 주·야간, 통신반으로 운영된다. (02)725-75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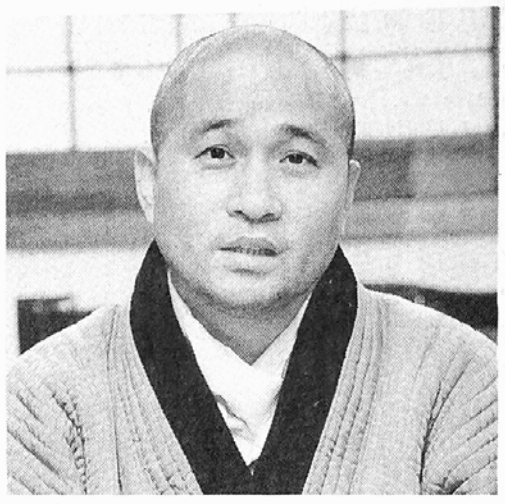
▲보육교사 모집=중앙승가대학(학장 승산스님)부설 보육교사 교육원은 오는 13일까지 여성의 사회참여에 따른 보육수요의 증가에 대비해 제5기 보육교사를 모집한다. (02)926-4377

▲구연동화 강의=삼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각)에서는 어린이들이 동화, 동시를 읽고 자연스러운 감정표현능력을 개발할수 있도록 8일부터 매주 수요일 구연동화 강의를 실시한다. (02)421-6077

이전 대불청 사무실=지난 4일 조계사 불교회관 2층에서 종로구 정진동 지장빌딩 4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인터뷰

영담 스님
〈중앙승가대 사회문제연구소장〉



"불교 사회문제 참여 시대적 요청입니다"

사찰경영 · 통일 · 환경세미나 계획

"불교의 대 사회적인 공헌은 국제화·세계화를 지향하는 현대사회에 있어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이제 불교계도 사회 제반문제들에 대해 분석하고 치유해낼 때가 왔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중앙승가대 부설 '사회문제연구소'의 소장을 맡은 영담스님(부천 석왕사 주지)이 밝힌 연구소 설립의 배경이다.

"불교계 최초로 사회문제를 연구하고 진단하는 곳인 만큼 욕심을 내지 않고 한걸음 한걸음 천천히 그리고 객관적인 분석의 완벽한 과정을 통해 사회 제반현상들에 접근할 것"이라고 말하는 스님은 "연구소가 불교계의 두뇌집단으로서의 몫도 톡톡히 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명무실한 연구소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위해 1명의 주임교수(중앙승가대 류승무교수)와 2명의 실무자와 함께 연구활동을 펴나갈 영담스님은 올해 중앙승가대학의 학교 부설기관 지원비로 예산책정된 8천4백6십6만1천원 가운데 20%에 해당되는 1천6백9십3만여원의 재원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 스님은 리서치 사업 등의 자체 수익사업을 전개해 연구비로 이용, 살림을 꾸려나갈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영담스님은 이같은 전문인력과 재원확보의 토대위에서 △경전 재해석을 통한 불교의 사회적 역할, 승가이념과 승가상 제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찰경영·신도관리 방법·지역사회 조직의 모델개발 △통일·환경문제 및 지방화 경향에 대한 탐구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사회조사사업, 기초자료 발행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복지법인 룸비니 상임이사, 부천시민신문 발행인, 조계종 제13대 종회 재정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등 활동가로 정평이 나있는 영담스님은 연구소 현판식과 함께 올 한해 동안의 활동 계획을 밝혔다. 스님이 밝힌 연구소의 사업계획은 3월 사찰경영에 대한 세미나, 8월 통일관계 세미나, 10월 환경과 방생에 관한 세미나 등으로 "만반의 준비를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담스님은 향후 연구소의 활동에 대한 범불교적인 호응도 당부했다. 〈도필선 기자〉

1995 삼화불교대학 신입생 모집안내

1. 모집학과 및 안내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인원 (약간명)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교학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5매	•스님중 승려 포교사 (타종승려 포교사도 가능) •출가희망자
	4년	•통신 40명		
유아교육과 (유아 포교과)	2년	•주간 60명 •통신 40명		
중국어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불교미술과	2년	•주간 20명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주간 40명 •통신 20명		

2. 학교연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야간 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 취득
92. 8 본교 학생 29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유아교육과 95% 취업
93. 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 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 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예정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 자격증·불교 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성적 우수자 본대학 포교원 유아원개설시 재정지원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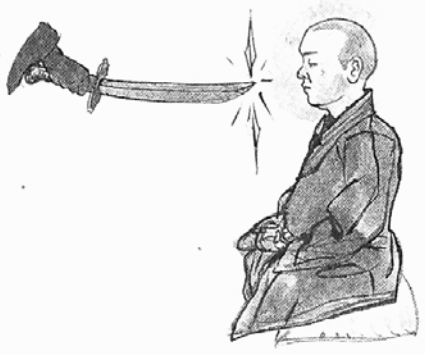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95년 3월 17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미술과는 작품 1점 제출)

5. 원서교부 문의처

본교:511-1080, 511-2026·2027·2028, 조계사앞 삼보원:732-9904, 견지불교사:739-3032
부산영광도서:816-9500, 대구 제일서림:424-0801, 인천 대한서림:762-7337
광주 나라서적:222-2828, 대전 문경서적:252-8558, 수원 교학사:251-3928
마산 학문당:46-2925, 진주 홍지서점:88-5311, 청주 일선문고:53-2360
울산 세종서점:74-1265, 포항 학창서림:46-2120, 강릉 강릉서점:645-4373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511-1080, 511-2026·2027·2028)

삼화불교대학 135-1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11-5
FAX 511-1080



삽화 · 이기선

심호흡하듯 늘 찬찬하자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⑯

인욕

조급·성취욕·번뇌 참는 수행
부처님도 91겁 인욕한 선인

물을 마실 때도 천천히 쉬어 가면서 마시라고 한다. 급히 마시면 체하기 때문이다. 맹물에 체하면 약이 없다고 한다. 신중히 일을 하는것이 상책이다. 급히 서둘면 잘 되던 일도 그릇칠 때가 있다.

매사에 찬찬하게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일을 할 때 급한 마음이 앞서나기도 한다. 조갑증이 발동한다. 아니 성취욕이 강하게 발동하기 때문이다. 조갑증은 좋은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시절인연에 의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 수수를 빨리 익히기 위하여 수수공이를 뽑아 올리면 쭉정이로 말라죽게 된다.

땅의 공덕과 물의 생명과 햇빛의 열기가 고르게 화연(和緣)되어야 열매가 영글게 되는 것이다. 조급한 마음은 금물이다. 언제나 세월을 기다리는 마음을 닦아야 한다. 서둘지 약이다 라고 한 말은 부정적인 사건을 해결하는데만 쓰이는 말이 아니다. 모든 일들은 필요한 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것을 의미한다.

급조하게 되는 일은 없다. 쉽게 이루어진 냄비는 바로 식게 된다. 질그릇이 한번 데워지면 어느 정도 열을 보존하고 있다. 온돌도 마찬가지다. 한번 군불을 지펴놓고 보면 아늑하고 포근한 더운 기운이 온 방안을 휘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슬기가 기다림의 철학이요, 바라보는 믿음이다. 그러므로 한 일을 성공시키려고 마음먹었다면 그 일을 잊지 말고 항상 염력(念力)을 쏟아부으면서 천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각(玄覺)스님의 증도가(證道歌)에 이런 노래가 있다. 「걸어도 禪이고, 앉아도 선이라. 어묵동정(語默動靜)에 언제나 편안하네.

창칼을 들이댄들 항상 태연하고 독약을 먹인들 다만 한가할 뿐 내 스승 부처님도 연등불을 뵙고는 일찍이 여러 겁에 인욕하는 선인 되었다네.」

허둥대거나 버둥됨이 없는 삼매의 노래이다. 노래로만 불려진 것이 아니라 실상의 여여(如如)함을 드러낸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일을 할 때 가슴 한켠에 칼을 들이 대더라도, 입에다 독약을 먹인다 해도 태평과 한가를 소유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일상이 되어야 하고 수행이 되어야 한다. 일상에는 방종·방황을 일삼고 간혹 수행할 때 마음을 찾는다고 부산을 떨지만 그것은 모두가 허망한 일이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일상을 삼매케하여 무분별의 일심으로 생활하여야 한다. 왜 이러한 일이 되지 않는가. 조급함이고 성취욕이 불붙고 있기 때문이다.

선혜선인(善慧仙人)으로 수행하셨던 부처님도 연등불을 뵈옵기 전에는 일상의 생활에서 세월하였으리라. 그러나 선혜선인이 연등불을 뵈옵고는 91겁동안 인욕하는 선인이 되었다는 노래는 함축미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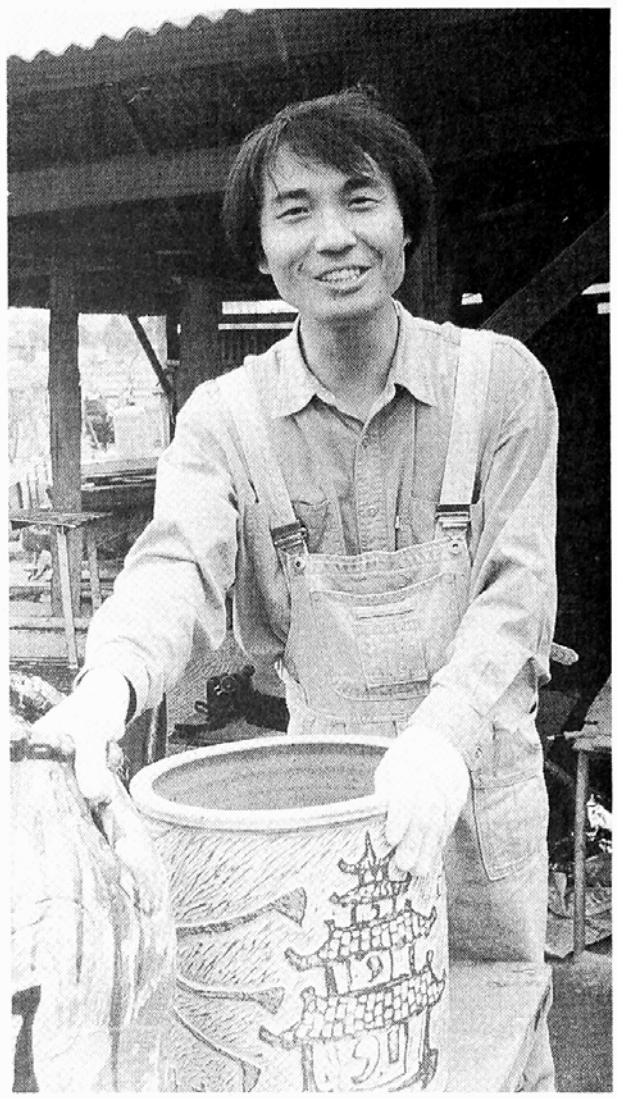
우리 인간들도 삶의 경험을 깊게하면 자신의 걸을수를 헤아리게 된다. 찬물도 천천히 마시는 법을 터득하게 된다. 경험이 없으면 덤비드는 발짓이 앞선다.

인생은 급하지 않다. 하늘이 무너지는 법도 땅이 꺼지는 일도 없다. 기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 언제나 심호흡을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스며 있는 참다움을 찾아나서야 하고, 나서더라도 급히 서두는 발광(發狂)을 거두어야 한다. 부처님이 인욕선인으로 91겁동안 일상과 수행을 여일하게 삼매한 것처럼 기다려야 한다.

산문밖의 禪 風

한국화가 **임 효** 씨

"불법 큰지혜 오늘의 회화로"



도부조 판화개척…'반야심' 시리즈 작업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걸림없는 작품을"

가마속으로 성큼 들어간 임효씨(林孝, 41)가 드디어 큰 도자기 하나를 들고 나온다. 아직도 따끈따끈한 연통형 도자기의 한 면에는 춤추는 듯한 삼층탑, 그 위로 새가 비상을 하고 있다. 또 한면에는 면벽하고 있는 선사가 깊은 삼매에 빠져 있고.

도자기를 이리저리 살피는 임효씨의 얼굴에 아기를 막 낳고 들여다 보는 산모의 얼굴에나 피어남직한 만족한 웃음이 번진다.

"어떤 색깔, 어떤 무늬로 나타날지 궁금하기 이를데 없어요. 이렇게 꺼낼 때의 심정을 아기가 태어날 때의 기쁨에 비할까요"

지난 5개월, 하루 13~14시간씩 도자기와 도판 작업에 몰두했다. 손가락 지문이 다 벗겨지도록 심혈을 기울인 도자기들은 가마에 넣어진 채 이틀동안 뜨거운 불로 제련됐다.

평범한 흙이 마음과 손길과 그리고 불의 단련을 거쳐 새로운 생명으로 완벽하게 태어난 것이다.

오랫동안 그림을 해온 임효씨에게 있어 흙을 빚는 일은 또 하나의 경이의 세계와의 만남이다. 더구나 그는 작년부터 도부조(陶浮彫)란 새로운 판화 영역을 개척, 미술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백토를 다져 도판을 만들어 부조작업을 한 뒤 철사·진사로 채색하고 초벌한 다음 유약을 바르고 재벌 구워낸다. 이 도부조판위에 전통 닥종이를 풀어 두텁게 올려놓고 프레스로 가볍게 눌러 찍으면 도부조 판화가 완성된다. 동판화등에 비해 한지 원료와 자연에서 채취한 물감을 사용해 찍은 도부조 판화는 포근한 정감이 우러나 우리 민족의 정서와 잘 융화되는 느낌을 갖고 있다는 평이다.

그가 만든 도부조의 대표작은 「부위자연-반야심」.

불자들이 아침 지녁으로, 어느 법회나 늘상 독송하는 반야심경을 이미지한 작품이다.

그는 이번에 도부조뿐 아니라 도자기도 40여점 구웠다. 역시 소재는 불교와 자연.

"흙이란 것이 묘합니다. 만지면 만질수록 편안하고 '본질적'이란 느낌이 옵니다. 흙은 진실합니다. 누르면 나오고 파면 들어가고 … 손톱자국이라도 찍히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흙입니다."

어떤 예술이든지 그것에 임하는 작가의 마음이나 태도가 그대로 작품에 드러나는 법이지만 흙을 빚을 때 그는 한층 인간으로서 예술인으로서 진실해져야 겠다고 다짐한다.

그는 지난해 말 제작한 도부조 90여점과 이번에 구워낸 도부조·도자기 90여점을 모아, 3월25일~4월5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서울관화 미술제에 참여하며 9월에는 7번째 개인전을 연다.

임씨가 그림그리며 처음 주제로 삼은 것은 민화·전설·신화 등이다. 그는 우리가 조금만 마음의 눈을 열고 보면 고대로부터 수천년을 이어 내려온, 살아 숨쉬는 신화적 요소를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을 찾아내 회화로 옮겼다. 인간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문명의 소산으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화폭에 옮기기를 추구해 온것.

그가 도부조로 시도한 '반야심' 시리즈도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고 그리는' 작업의 일환이다.

반야심경을 6폭 도부조로 옮기면서 내내 마음의 눈으로 경전의 심오한 뜻을 새기고자 했다. 무엇을 그리겠다고 욕심을 부린 작품은 나중에 별로 매력이 없는데 자연스러움 속에 걸림없이 표현한 작품은 작가 본인에게도 와 닿고, 보는 대중들도 공감을 얻을 때가 많다는 것을 '반야심' 시리즈에서도 제작내내 느꼈다.

"차를 타고 갈때나 집에서나 작업실에서나 법화경·화엄경 등 경전테이프를 늘 듣고 있습니다"

쉽게 풀이해 놓은 경전테이프를 수없이 듣고 경전도 읽고 하며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늘의 현대인이 이해하기 쉬운 회화언어로 표현코자 한다.

서적안에 갇혀있는, 2천5백년전의 가르침이 아니라 현실에서 펄펄 살아 숨쉬는 '큰 지혜'로서 현대인들과 만나게 하는 교량역할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가가 그에게는 화두이다.

예술가란 '기인'또는 '괴팍스런 사람'이란 선입견을 가지고 그를 처음 만난 사람은 의외감을 느낄 것이다. 그는 늘 웃고있는 밝은 얼굴이다. 행동도 아이처럼 천진하고 걸림이 없다.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그가 예술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 독학등 신산스런 삶의 길을 얼마나 힘겹게 걸어왔는지를 짐작도 하기 어렵다.

그에게 원하는 예술의 길에 들어서게 원력을 심어준 사람이 바로 스님들이다.

미술가가 되고 싶은 꿈이 부모의 반대에 부딪혀 고민하고 있을 때 스님들은 "뜻을 크게 세워라. 뜻을 세우고 성실히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원력세움'과 믿음이 중요함을 가르쳐 주었다. 때밀이등 혼자 힘으로 돈을 벌어가며 힘겹게 홍익대 동양화과를 졸업, 화가의 길을 걷고 있는 지금까지 스님들이 심어준 불심이 든든한 바탕이 되어주었다.

10년전 인생관은 물론 작품세계까지 크게 변화를 맞게 되는 계기를 맞게 된다.

스케치여행으로 홍도에 가던중 큰 폭풍을 만났다. 조그만 통통배는 큰 파도에 밀려 금방 엎어질 듯한 위급한 지경에 이른다.

태산처럼 밀려오는 파도에 무섭게 휩쓸리는 일엽편주안에서 토악질을 하는 중에도 머릿속이 환히 뚫리며 다음과 같은 생각이 떠오른 것.

'실경산수도 아름답지만 꾸미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연을 자연 자체보다 더 잘 그릴 수는 없는 일. 내 마음자체가 자유롭게 걸림없이 그대로 표현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

치장해 본들 그것이 진실로 감동이나 메시지를 줄 수는 없는 일. 내 마음이 진실로 느끼는대로 그려보자'

마음을 비움으로써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그 때 그 절대절명의 사선의 순간에 깨우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천=이경숙 기자〉

사랑 넘치는 환한 세상 만들기

95년 봄학기 자원봉사 시민대학 개설

자원봉사자모집 안내

자원봉사자 그는 진정한 자유인 입니다.

……다함없는 부처님의 자비를 들고……
……청함없는 세상의 어진벗되어……
……이 세상 끝까지 빛이되리라……

여기
불우한 이웃들의 고난의 삶을 더불어 나누고자
서원하는 어진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운것 없지만
수채구녕에 뜨거운물 식혔다 버릴줄 아는 사람
가진것 없지만
콩반쪽이라도 나누어 먹을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한얼속에 한울안에 한알인 도리 깨우쳐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
불교자원봉사연합회에서는 자비와 봉사의 정신으로
병든이, 길잃은이, 외롭고 가난한 이들의 등불이 되고
어진벗이 되어주실 귀한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뜻이 있으신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기별
주시면 어진벗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불 교 자 원 봉 사 연 합 회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96번지 21호 3층
TEL : 723-6258~9 FAX : 723-6257

전문봉사시대를 준비하는 자원봉사자 교육

만범이 귀일하는 곳으로 함께 떠나는	작은 자비 나누기 자원봉사자및 지도자 코스	민족 차문화 활성화를 위한 초의다법 지도강사 코스
불교기본교육	**태극수지요법**	**차문화교육**
부처님 일대기, 불교의 정의 삼귀의, 사홍서원, 십대제자 삼법인, 12처, 오온설, 연기의 진리, 업설 윤회설, 사성제,열반·해탈설 불상 보살상, 주불전, 사찰내전물 법구, 사찰내예법, 불자수도행 불자의 실천덕목, 불교상식	수지치료의 기초원리와 체계 태극암봉치료법, 반지치료법 기경8맥교회혈치료법 신비의 영점치료비법,임독맥법등 (교육특징)동의학의 초보자라도 이 태극암봉의 치료법을 터득하 면 허·실·보·사의 진찰과 치료 를 쉽게 익히 가족과 이웃을 도 울 수 있습니다. (모집)45세 미만의 남·여	초의 행다법(행다실제) 차생활의 시작,,성분과효능 차의 일반적 정의, 명칭 차나무의 종류와 분포 차의 기원과 전래 차의 정신, 차의 감별과 보존법 물의 선택, 불의 조절 문무화후 차의 분류와 제다법 차의 도구와 사용법 한·중·일 차문화 비교론등
3. 20~6. 21(3개월) 매주 월요일 오후3시~5시	3. 20~6. 21(3개월) 매주 월, 수, 금 오전10~12시	3. 24~6. 21(3개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3시
홍익인간이념의 사회화를 위한 노인지도자 코스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그 녹색평화를 실천하는	삶과 일반의 불이법문 불교상례봉사를 위한
민족사상교육	**환 경 교 육**	**원왕생교육**
개천절의 문헌사적 고증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계경 사상개관, 홍익인간론 민족사상의 역사적 배경 삼성기 상·하, 단군세기 천문학으로 증명된 고조선사 북한 단군릉의 실상 (모집)40대이후의 중년불자·노인들	(종론 불고와 환경문제 (수질오염)썩어가는 하천 (고통·대기)고통문제와 대기오염 (쓰레기)풍요의 그림자 쓰레기문제 (식 품)밥상의 위기 식품공해 (문 명)현대문명위기를 극복하는 열쇠 (지구환경)전지구적 산림파괴와 민간운동 (생태적)한국의 산림생태계 보존현황	통일왕생의례 전반 가정의례준칙에 의한 상례식 일반상례의 축문서식 염습의, 성복의, 영결의 화장의, 매장의, 발인작법 한국인의 제례의식, 사후의식 열반후 염습실제, 수시실습 원왕생 독경실습, 장엄염불 ※연화염사배출 1단계 코스
3. 24~6. 21(3개월) 매주 금요일 오후7시~9시	3. 23~6. 21(3개월) 매주 목요일 오후 1시~3시	3. 25~6. 21(3개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5시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수록 자원봉사경험은 업무 경력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 봉사 고유번호를 받은 후 저축된 봉사실적에 따라 봉사기장 및 예우를 받습니다.
- 본회 주관 홍익인간사업에 우선적 혜택을 받습니다.
- 명상으로까지 이어지는 재교육을 통해 인성의 최고가치를 실현하게 됩니다.

▣ 교육일시 : 1995. 3. 20-6.21까지
▣ 교육장소 :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서울종로사무실
▣ 접수기간 : 1995. 2.20-3.20까지(각교육선착순 60명)
▣ 접수장소 :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서울종로사무실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96-21 최안과 3층-종로경찰서 부근)
▣ 교 육 비 : 무료 ▣ 후원회원 배가운동 동참
▣ 접수문의 : (TEL)723-6258, 723-6259, (FAX)723-6257
※교육후 상담을 통하여 전원 자원봉사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 차량안내
〈일반버스〉2. 8. 20. 84. 205. 331. 543(종로경찰서 하차)
〈좌석버스〉8. 84. 205-1. 543 (종로경찰서 하차)
〈지 하 철〉3호선 안국역 하차 (종로경찰서 출구)

불 교 자 원 봉 사 연 합 회

법난사 연구 동남아까지 확대

'승가' 12호 해외 법난사 다각 조명

최근 법난(法難)에 대한 연구가 지역별·시대별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말 〈석림〉 제28집의 기획논단 '법난의 역사를 통해 본 불교인의 과제'가 한국의 법난을 불교사적인 입장에서 시대별(조선조~현대)로 조명한 것이라면, 최근 〈승가〉 제12호에 실린 5편의 논문들은 법난사를 한국을 비롯, 인도 중국 동남아지역까지 확대 조명하고 있어 법난사 연구의 영역을 한차원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난에 대한 연구는 단순한 불교사적 평가로 끝나지 않는다. 깊이있고 다양한 '법난 연구'는 개혁시대로 나아가는 한국불교의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 사회관 정립 및 진정한 불교 자주화를 위한 전제가 된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이번 〈승가〉지에는 김용환 교수(충북대 국민윤리교육과), 장휘옥씨(동국대 불교학과 강사), 종범스님(중승대 불교학과 교수), 혜봉스님(지족암), 송위지씨(외대 철학과 강사) 가 인도·중국·조선시대·일제시대·동남아 법난사를 다양하게 조명하고 있다.

「인도불교 법난사」를 통해 김용환교수는 인도불교의 법난을 "인도사회에서의 불교교단이나 포교하는 사람이 받은 박해, 특히 위정자에 의한 불교탄압등에 의해 불법(佛法)이 수난을 겪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법난은 달마(dharma)로 표현되는 진실에 의해 성스러운 힘을 새롭게 조정하고, 집단 구성원을 한데 묶어주는 결속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사회변동의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인도의 불교교리자체의 문제와 함께 문화적 변동을 함께 고려하면서 크게 7가지 범주로 인도불교의 법난 유형을 분석했다. 부처님 입멸 후 1백년이 경과후 제기된 상좌부와 대중부 사이의 갈등으로 야기된 '이념 한정화 법난' △기원전 2세기에 푸사미트라가 브라만교의 제사의식을 앞세워 야기한 '상징 소격화(疎隔化)의 법난 △5세기 말에 미히라굴라에 의한 친힌두교 경향의 요청을 대폭 수용함에 의해 야기된 '복합 동기화의 법난' △권력 남용화 법난 △조직 관료화 법난 △암베드카르의 개종에 의한 신불교운동으로 나타난 '해석 일탈화(逸脫化) 현상' 등이 그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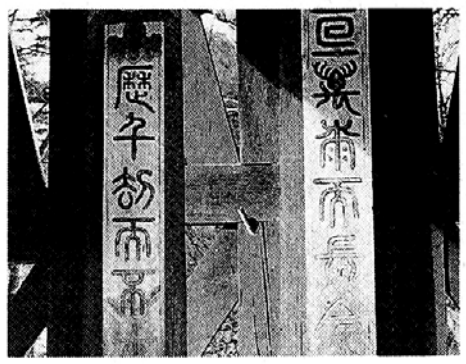
장휘옥씨는 「중국 불교 법난사」를 통해 중국불교의 최대 특징은 '국가불교의 형성'이라고 지적하고, "중국의 불교정책은 역사적으로 불교가 국가의 통치목적에 부합하여 이용가치가 있으면 그 존속을 허용하고 부흥시켰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면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밝혔다.

중국불교의 국가적인 대법난으로는 △북위(北魏) 태무제 태평진군 2년(441)의 폐불사건 △북주(北周) 무제 건덕 3년(574)의 폐불사건 △당나라 무종 회창 5년(845)의 폐불사건 △오대(五代)시대 후주(後周) 세종 현덕 2년(955)의 폐불사건 등 소위 '삼무일종(三武一宗)의 법난'이 있다.

「동남아 불교 법난사」를 기고한 송위지씨는 남아시아 지역 특히, 스리랑카의 예를 들면서 법난으로 불리우는 불교의 박해를 정의하고, 스리랑카 법난의 내용을 불교를 박해한 종교에 따라 구별해 서술했다. 특히 계시종교(이슬람교, 유태교, 개신교)에 의한 박해의 경우는 국가별로 나누어 분석했다.

〈김재경 기자〉

인도 **일곱번 대수난 겪어**
국가종속물로 전락 중국
스리랑카 **개신교 등에 억눌려**



◇해인사 궁현당의 주련.

해 인 사

<궁현당>
閒情且向貧中覓
(한중차향빈중멱)
妙用還從樂處生
(묘용환종락처생)
鍾聲洗盡浮塵念
(종성세진부진염)
澗水流逍絆俗緣
(간수류소반속연)
路上白雲隨意摩
(노상백운수의마)
鏡中淸影任吾窺
(경중청영임오규)
一塵不到善堤地
(일진부도보리지)
萬善同歸般若門
(만선등귀반야문)

한국 사찰의 주련



권 영 한

산사의 여유로움 쾌활히 읊어

한정은 반드시 가난 가운데서 찾을 일

묘용 역시 낙처에서 나온다.
종소리에 헛된 망상 다 씻고
산골 물로 세속에 얽힌 반연 띄워 보낸다.

노상의 백운을 헤치고(뜻대로 만지며)
경중 청영 임의로 들여다본다.

티끌 하나도 보리지 닿지 않아서
만선이 모두 반야문으로 돌아오네.

해 설 산사에서 기도하고 염불하며 사는 기쁨을 쾌활하게 읊고 있다. 부족함이 없고 넉넉해 여유로운 마음으로 일관된 산골 수행 생활과 일체 분별심을 버린 곳의 지혜로움이 명료한 언어로 풀이되고 있다. 낙처(樂處)란 가난을 즐기는 초월한 마음의 경지를 나타내는 말이며 반연(絆緣)이란 마음이 대상에 의지해서 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궁현당은 2백93평의 3동 규모로 1490년 성종21년 학조대사가 인수 인혜대비의 명을 받고 크게 중건한 당우다. 1988년 철거한 이후 새로 1동의 대강당으로 개축한 궁현당은 현재 해인사승가대학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주련의 글씨는 해강(海岡) 김규진(金圭鎭:1868~1933)이 쓴 것이다. 김규진은 당대를 떨친 서화가였다. 각 서체의 글씨에 두루 능했으며 왕세자에게까지 서법을 가르쳤다고 전한다.

〈안동 경안중 교사〉

"대·소승 사상의 공통성을 찾자"

2월26일 방콕서 열린 한태불교대회서 주장



◇보광스님



◇정병조교수

한·태불교협회(회장 법장)는 지난달 26일 태국 방콕 불다몬톤 국제센타에서 제1회 한·태국제불교대회를 열고 「불교를 통한 양국의 교류방안」(보광스님·동국대 교수)과 「남방선과 북방선」(동국대 정병조교수)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 보광스님은 발표문을 통해 "오늘날 불교는 세계의 다양한 종교로 인해 도전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위기 속에서 "남북방 불교는 서로 장단점을 보완하여 세계인류를 부처님의 법으로 귀의시켜 모든 인류에게 행복과 평화로운 삶의 지표를 열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광스님은 동국대나 중앙승가대학에 남방불교에 대한 과목이 한 강좌도 개설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 "이는 지금까지 대승불교 우위론만 주장한 잘못된 교과과정이므로 반드시 고쳐져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지스님이 대신 읽은 「남방선 북방선」을 통해 정병조교수는, "남방선과 북방선이 체득했던 '깨달음의 경지'는 철저히 주관적"이라고 전제하고, "남·북방선의 개관적 형식의 대비는 무의미하며, 오히려 내면의 진실이 교류할 수 있는 '사상의 공통분모'를 찾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교수는 "남방선과 북방선은 한 뿌리에서 태어난 두개의 나뭇가지와 같다"며, "우리가 부각시켜야 할 점은 양자의 차별성이 아니라 동질성"이라고 말했다. 정교수는 "남·북방선이 서로가 표방하는 '무심(無心)의 심(心)'에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선의의 경쟁이 시도돼야 한다"며, 이렇게 함으로써 양국 불교의 발전, 나아가 보편적 진리로서의 불교가 세계일화(世界一花)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친일승려 행적조명

'친일문제연구' 2집발간

일제하 친일변절자의 행적을 특집으로 다룬 부크지 〈친일문제연구〉2집(가람기획 펴냄)이 나왔다.

2집에는 이종욱 허영호스님 등 불교인을 비롯, 법조 문학·예술 등의 분야에서 친일행위를 한 33인의 행적을 실었다. 혜봉스님은 이종욱 허영호 두 스님에 대해 '항일투사에서 불교계 친일거두', '3·1운동시 민족주의자가 친일승려'로 변절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앞서 지난해 8월에 나온 창간호에서는 '일제잔재 19가지'를 특집으로 꾸며 각 분야의 친일잔재 청산을 촉구했다. 종교분야는 '종교계의 친일잔재'(김순석) '불교계의 친일잔재'(임혜봉)를 실었다.

父子가 만난다는 의미는

문 스님 법문 중에 부와 자는 원래 둘이 아니라고 하셨고 둘이 아닌 부와 자가 만나기는 만나야 하겠는데 백지 한장 차이로 만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백지 한장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는지요.

(부산 동래구 온천3동·이부승)

답 부모로부터 몸을 받아 태어날 때 영원한 근본의 마음과 과거에 지은 업이 뭉쳐진 업식과 육신, 이 세가지가 상합이 되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근본의 마음, 즉 나를 진화시키고 이끌어 가는 마음, 그 마음이라 함도 이름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내기 이전인데 그게 부인 셈이고, 마음내는 것은 자인 것입니다. 전기로 말하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것은 자이고, 전류는 부인데 부와 자는 항상 가설이 되어 있어서 스위치를 올리기만 하면 불이 켜집니다.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것과 전류가 본래 둘이 아니지요. 전구가 없어도 아니되고 전류가 흐르지 않아도 아니됩니다. 육신이란 가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와 자는 원래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와 자가 상봉을 하려면 나를 진화시키고 이끌어 가는 근본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나툴 수 있다는 사실을 철석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믿는데 있습니다.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에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내기 이전의 근본마음이 있어 자동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도 그걸 믿지 않으니 부와 자는 둘이 아니면서 둘이 되어 상봉을 못하는 것입니다. 상봉하려거든 본래 둘이 아님을 믿으세요. 믿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백지 한장이자 은산철벽이기도 합니다.

불자보다 인간이 되고 싶어

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지 말고 법을 따르라'하셨습니다. 다른 종교가 '나를 따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했는데 저는 그게 싫어서 불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와서 불교를 믿는 것도 좋겠지만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슬플 때는 슬퍼하고 기쁠 때는 기뻐하며 그렇게 인간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또 절에 가지 않더라도 공부는 할 수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노인식)

답 이 세상 사람인데 어떻게 생활과 불교가 따로따로일 수 있겠습니까. '불교'라 할 때 '불'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며 '교'라고 하면 말을 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활과 불법이 다르지 않고 생활이 그대로 불법입니다. 그런 이치를 알아가는게 공부이지 생활 따로 공부 따로가 아닙니다. 불교는 어디에 국한된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절에 안 나가고 공부하시겠다는데 그러면 댁의 자녀들을 제 손으로 가르치시지 왜 학교에 보내십니까?

마음공부중 부상 입었는데

문 저는 당뇨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마음공부를 하면서부터 인슐린도 안 맞고 약을 먹지않고도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환희심 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화장실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쳤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부족한 탓일까요.

(경북 포항시 괴동 장문순)

답 공부를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군요. 그런데 한가지 미처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이 공부는 죽는 것이든 사는 것이든 양면을 다 놓는 것입니다.

살려고만 애를 쓴다면 저울이 기울어집니다. 생·사 양면을 다 놓아야 빛이 번쩍 일어납니다. 죽는 것은 두렵고 살려고만 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도리를 파악할 수도 없구요. 그러니 부처님 말씀 믿으려면 양면을 다 놓는 작업을 해 보세요.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분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 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기도원에서 암을 치료하는데

문 어떤 기도원에서는 현대의학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암이나 백혈병들을 낫게 해준다고 합니다. 절대자를 믿고 의지하면 절대자가 치료해준다고 하는데요, 그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김숙현)

답 그런 식이라면 밖으로 매달리는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낫게 해달라고 늘 빌어야하니까 말입니다.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 깨달음에 이르려는 사람들, 세세생생 윤회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은 노예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을 밝히려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한 생각 일어나거나 말을 할 때는 전구에 불이 들어 오듯이, 전자와 전자가 번쩍하고 합쳐지듯이 한 찰나에 통합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낫게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니 부처님이 낫게 했다고 할 수도 있고 자기가 낫게 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래는 병불을 자리도 없고 업보가 붙을 자리도 없습니다. 왜냐? 나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없으니 붙을 자리인들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은 이 세상 무엇하나도 고정됨이 없이 돌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령 비행기의 프로펠러가 돌아갈 때 거기에 티끌이 붙을 수 없듯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 병 붙을 자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것을 몰라서 나라고 딱 고정시켜 놓으니 병도, 업보도 달라붙는 것이고, 또 그렇게 고정시켜 놓고 보니까 누가 누구를 낫게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정된 그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이름입니다. 절대로 밖으로 찾고 밖으로 매달려서는 안됩니다.



2천만 불자 앞장서서 우리 농촌 살리자!

◈ 농산물 수입 개방화에 따라 우리의 농촌은 황폐화되고 있다.

◈ 우리 국민이 수입 농산물 대신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는 국민정신을 발휘할 때, 우리 농민도 적정한 가격에 신선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국민에게 공급함으로써, 농가경제를 살릴 수 있고, 우리 농민과 농업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 역사적으로 볼 때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1,600년 전부터 국가의 위기나 비상시에는 항상 국가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 우리 불자들이 앞장 서왔던 것을 상기할 수 있다.

◈ 우리 국민의 반을 차지하는 2천만 불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수입 농산물 대신 우리 농산물을 애용한다는 것은, 불교의 자비정신과 중생구제의 이념을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농민과 농촌을 살리는데 그 뜻이 있다.

시골 참기름
우리의 시골 맛과 향 出現



우리 농촌 살리기 위해…
드디어, 한가람 食品流通(株) 出帆하다

스님! 지금까지 매일 매일 시장보러 다니기가 번거로우셨죠?
佛子가정의 주부님! 요즘 같이 바쁜 세상에 그날 그날 장보기가 걱정되셨죠? 이제 한시름 놓으십시오! 전화 한 통화로 한가람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취급품목
•야채류, 나물류, 과일류
•전통한과 •제수용품
•참기름 •주곡류
•사찰 행사시 야외 도시락, 야외뷔페

☞ 일꾼을 찾습니다

한가람 食品流通(株)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B/D 2층
TEL : (02)720-5121(代) FAX : (02)732-3769

☞ 참신한 상품을 모집합니다
•제 품 : 참기름, 전통한과, 고추장, 된장, 간장, 메주

•영업 : ○명(신입·경력사원·고졸·대졸·운전면허소지자) •기획 : ○명(신입·경력사원·농대졸·3년 경력) •제출서류 :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제출기한 : 1995년 3월 10일까지 •제출처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B/ D 2층 한가람식품유통(주) 총무과

수요 인터뷰

"환경운동 보살정신서 출발"

오직 자비심만이 병든지구 치료가능

"탐욕이 원인…발우공양등 솔선합시다"

전 환경처장관 **박 윤 혼** 교수

대담:최정희 편집국장



약 력

- 1935.3.30 전남 보성 生
- 61년 서울대 법과대 졸업
- 85년 고려대 대학원 법학박사
- 88년 경희대 법과대 교수(현재)
- 93~94년 환경처 장관
- 현재 대원회 이사장,장기기증운동본부 본부장
- 저서 〈최신 행정법강의 상, 하〉, 〈입법기술 강좌〉등 다수

지난해 환경처 장관을 역임한 대원회 박윤흔(朴允昕. 61) 이사장은 다시 강단(경희대 법과대 교수)으로 복귀한 이후 강연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달 조계종 교육원이 직지사에서 주최한 본사주지 및 중진스님연수회에서 '불교와 환경'이란 주제의 강연을 펼친 박 이사장은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한다면 환경문제는 제기되지도 않는다"고 강조하는등 환경문제는 불교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낙동강 수질오염사고등 유난히 환경문제가 국가적으로 제기됐던 시기에 1년여동안 환경처장관이란 중책을 맡아 원만하게 업무를 수행하셨던 것으로 평가되고있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벗으셔서 홀가분 하시겠지만 여전히 바쁘시죠.

▲학교로 다시 돌아가게 됐고, 여기저기 강연요청도 있고 그간 밀려있던 개인일도 정리하다보니 몸이 바쁜것은 여전합니다.

-얼마전 직지사에서 조계종 중진스님들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강의를 하셨는데 어떤점을 강조하셨습니까.

▲환경이라는 것은 본래 모든 만물 그 자체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 조화가 무너졌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바로 이 만물의 조화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부처님 말씀대로만 하면 환경은 문제가 없어요. 자연의 생명체나 식물이 훼손되고 멸종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의 몸이 잘리는 것과 같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현대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지구사랑'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환경이 위기상황임을 이상기후에서도 느낄수 있는데 과연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는지요.

▲얼마전 미국 부통령 앨 고어가 〈지구의 위기-EARTH IN THE BLANCE〉란 책에서 모래산을 소개하면서 지구환경을 설명했습니다. 바닷가에서 모래를 쌓아가다보면 어느단계에서는 작은 모래 한알을 놓았을때 모래산 전체가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오늘의 지구 환경은 바로 모래산에 마지막으로 작은 모래알이 놓이는 시기입니다. 설마하는 사이에 너무 갑작스럽게 지구전체가 파괴되기 직전이지요.

-인간이 잘살겠다는 욕구와 나와 남을 구별하는 차별심이 결국은 모두를 파국으로 몰고가는 엄청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은 신심깊은 불자로서 환경의 총체적인 실무일을 담당하셨었는데 많은 대안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살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환경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부처님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현재 환경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불교 교리에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처 장관은 불자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자가 아니라면 적어도 불교적 인식을 갖고있는 이가 해야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인들이 환경에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불교인들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며,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 말씀대로만 하면 환경문제는 생기지도 않는데 왜 불자들은 인식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자라면 모두가 오계를 받는데 그 가운데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이 있습니다. '살생유택'하여야 합니다. 인간 이외의 생물에 대한 자비가 없어져 재미로 사냥을 하곤 합니다.

또 필요한 만큼만 먹어야 합니다. 전체 쓰레기의 1/3이 음식쓰레기 입니다. 이것도 발우공양이면 해결되지 않습니까. 지는 적어도 주식은 남기지 않습니다. 음식점에서 먹지못할 양이면 미리 덜어오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인식전환에 불자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환경의 조화가 깨지고 있습니다. 환경위기를 눈앞에 불보듯 하면서도 개인적인 욕심과 자국의 이익에 눈이 가려 과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구환경은 이제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을 이루는 국가들이 상호협조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중국의 개발로 인한 오염된 공기로 피해가 늘고있어요. 중국은 아직 더 개발을 위해 오염시킬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염방지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세계 화석연료의 23%이상을 사용하는 미국은 세계기후협약기구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이익은 물론 국가간에 이익도 문제지요.

다행히 그린피스, 멸종위기에 닥쳐있는 동물보호운동, 열대림보호협회등의 세계적인 환경보호단체가 있으며 우리나라도 샛강살리기등의 환경보호운동이 펼쳐지고있습니다.

-환경처 장관을 역임하면서 많은 일을 하셨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장 중점을 두셨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공짜에 익숙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자기가 부담하면서 느끼지 못하는 공짜를 바라는것 같습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면 치우는 경비가 당장 자신이 부담하지 않는 것 같지만 세금을 통해 자신이 부담하지요. 이것을 경각시키기 위해 환경부담금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게 된것이죠. 또한 먹는 물 해결을 위해 오염된 강의 정화보다는 수원지를 청정지역으로 옮기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대원회와 장기기증운동본부를 이끌면서 불교의 생활화를 주창하고 계시는데 불교발전을 위한 개인적인 바람과 앞으로의 계획은.

▲종교운동도 자본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마음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포교활성화를 위해서는 영구적인 재원확보와 합리적인 재원분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학자가 학문에 주력해야 하겠지요. 논문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전공부도 체계적으로 하고싶구요.

특히 여건이 허락한다면 전국신도회 차원으로 불교와 환경운동을 전개 해보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이준엽 기자〉

나의 수행일기

오 을 균 (중앙신탁 충주지점장)



나는 반야심경을 즐겨 읽는다.

그 반야심경은 나에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참된 깨달음을 통하여 밝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준다.

사바의 세계는 인연에 의해 태어나지고, 늙고, 병들고, 죽고하는 법, 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걸어야 하는 길을 원망에 쌓인 눈을 가지고 바라다 보면 세상은 괴로운 것이고 반면에 인간이 진실한 생명에 눈을 떴을 때 나타나는 근원적인 예지인 지혜의 눈을 뜨고 바라다 보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삶은 가치있는 것이 아닐까.

나는 14살때 아버지를 여의고 독실한 불자인 어머니 슬하에서 성장했다.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청원 현암사에 다녔고, 자연스럽게 어슴프레 하게나마 부처님의 세계를 느끼며 살았다. 하지만 어슴프레 느끼던 부처님의 법열만으로 방황하기 쉬운 사춘기를 무사히 보내기란 무척 어려웠다.

나의 사춘기를 되돌이켜 보면 경제적 어려움에 힘겨워했던 모습이 역역했다. 홀어머니 밑에서 3남 3녀의 장남으로 태어난 나는 그 만큼 책임감도 무거웠다. 그러다 보니 나는 상대적으로 나보다 나의 위치에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되었고, 세상을 온통 모순덩어리의 알 수 없는 세계로 오해하게 되었다.

불자로 살아가는 지금에야 전생에 지은 업에 따라 각양각색의 몸으로 태어나는 줄 알지만 그 당시의 난 단순히 힘겨움에 방황하고 세상을 부정할 뿐이었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잘사는 가정에 태어나 유복하게 살고,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 어렵게 사는 이 세상이 너무 싫다고 생각 했었다. 그러면서 난 왜 이렇게 태어 났냐고 반문하고 또 반문하며 10대 20대의 젊은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극작일리지도 모르게 내 나이 35세 때 청담스님의 '산사에 심은 뜻은'이란 수필집과 반야심경을 접하게 되었다. 이는 내가 스스로 불교에 입문한 계기가 되는 셈이다. 그러면서 선지식인들의 높고 큰 세계를 대하게 되었고, 방황하던 내 젊은 날은 정상 괘도를 내달리기 시작했다.

그후 나는 불자라고 당당히 내세울 수 있는 종교인으로 차츰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다.

불교에 몰입하면서 나는 좀 색다른 수행방법을 택해 마음을 닦아 갔다. 수석, 가창, 채란등과 같은 취미랄 수 있는 생활들을 통해서 삶의 안정과 풍요로움을 찾았다. 그 마음의 여유에서 나 아닌 다른 이들을 돌볼 수 있게 되었고, 성실한 종교인으로 나 스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나는 불성을 얻어 사바세계를 관조해 볼 수 있는 혜안을 갖는 데 생의 목표를 두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마음에 맞는 동우들과 함께 들밭에 서거나, 난향을 따라 남도의 산야에



반야심경·청담수상집 읽고 눈떠

성철스님 기리는 음반취입 '감사'

서게되면 눈에 비추이는 모든 것들의 내면에 비친 불성들이 곳곳에서 맑고 푸른 물빛에 반짝이는 돌들처럼, 백설이 야얌 설원위에 흐로이 우뚝선 난초처럼 환하고 밝게 빛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그런 대자연의 풍경속에서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 마음을 가진 보살의 심경이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헤 보게 되었다.

세상살이 구석구석에서 불법을 만나고 실천하면서 나는 오늘도 혜안을 향한 행보에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있다. 혜안을 얻는 방법은 어렵고 높은 차원의 것이 아니라고 믿고있다.

요즈음 나는 김미연씨의 노래 반야심경과 찬불가를 듣고, 부르는 것으로 하루을 시작한다. 그러면서 난 부처님과의 인연 덕분으로 성철스님을 기리는 음반도 취입하게 되었다. 부처님과 큰스님의 법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오늘의 이 행복함으로 불을이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 열린 세상을 가꾸고 싶다. 또 그러기 위해 앞으로 남은 생을 열심히 살아 갈 것이다.

철사와 풀칠이 필요없는 더욱 간편해진 홍법등

홍법등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기존 홍법등의 단점을 더욱 간편하게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홍법등은 종전의 몸체 끼우개식의 결합 방식을 일체형으로 자동화시켜 하나씩 일일이 결합하던 방식을 역구도 방식으로 개선하여 몸체 부분의 결합이 필요 없이 상·하 테두리만 결합하면 완성되는 획기적인 제작방법으로 새롭게 탄생」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일일히 풀발이를 하던 등 제작이 「한 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장엄한 팔각등이 1분내에 완성」되며 「기존 홍법등의 조립식을 더욱 개선하여 단 한번의 공정으로 보완 개발하여 신속하게 완성」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조선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과 문헌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장엄함과 전통 계승에 역점.

환경을 고려한 재사용이 가능한 등

부피가 적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며 수회의 재사용이 가능」토록 고안되어 있으며 작금의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환경운동에 불교계에서도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되어 사회적으로도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순수 천연 펄프를 사용하여 재사용과 재처리를 통해 자원과 환경을 고려」하여 제작.

야외 장엄 및 점등의 효율성

「순수 천연 펄프를 사용하여 우천에도 관계 없이 행사 수일 전부터 점등하여 축제 분위기 장엄에 활용」「행사 당일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 점등 작업의 효율성」을 도모.

오직 불심으로 만들었습니다

홍법 장엄등 영 가 등 실용신안 14461호 의장등록 38353호



천도 광명등

연등 초벌등 종래 철골구조에 한장씩 속지를 바르고 건조 후 연잎을 붙이던 방식을 연등초벌용을 이용하여 1분 내 조립 후 연잎을 붙임

영가등 봉축행사 및 각종 제의식의 영가 천도 등으로 건지에 아미타불 변상도와 지방보살 만다라가 인쇄, 영가의 왕생극락을 발원

천도 광명등 선망부모님과 조상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은혜의 지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건지에 부모은중경의 그림과 경문을 사경

1분 완성 홍법등의 구조

■ 종래방식



■ 홍법등

이중으로 접어서 공급합니다 권치권 관락원통 모양의 등이 됩니다



접힘

감지원통 모양 일반의 공정으로 1분내 완성

천골 구조 조립 후 낱장으로 된 8장의 건지를 일일이 풀칠로 붙여 후 건조

오직 불심으로 보답하는 **홍법기획**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398-6호
전화 : (032) 613-4027~8 팩스 : (032) 665-0965

교육생 모집안내

교육과정

위 과정은 본 교육원이 보건사회부로부터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훈련원으로 지정 받아 2급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사회복지,아동심리, 유아교육론 중심으로 36과목

- 소양분야
- 영·유아보육에 관한 기초이론
- 영·유아보육에 관한 실무이론
- 아동복지관련 일반이론
- 기 타

1. 접수기간 : 1995년 3월 10일
2. 모집인원 : 200명(주·야 각 100명)
3. 교육기간 : 1995년 3월 ~ 1996년 2월(1년 과정)
4. 교육시간 : 주 5일 (월~금)
   주간반 100명 (09:30 ~ 12:50)
   야간반 100명 (18:20 ~ 21:30)
5. 등 록 금 : ₩720,000(교재비 포함), 입학금 ₩10,000 별도
6. 응시자격 : 고졸 이상의 학력 및 당해년도 2월 졸업예정자,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연령제한 없음, (검정고시출신 및 주부환영)
7.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졸업장 사본가능) 주민등록등본(초본) 1통 반명함판 사진 4매 입학지원서(소정양식) 서약서(소정양식) 도장

특 전

- 보사부 인정 보육교사 2급 자격 부여
- 어린이방, 놀이방, 가정교사로 근무 및 직접 운영
- 포교사 자격 취득 가능
- 본교 도서관 이용
  전산교육원 수강 가능(O.A 과정)
- 써클활동 가능(꽃꽂이, 연극부, 수지침, 수화)
- 클래식 피아노, 정규과목으로 수강
- 지하철 이용시 '할인혜택'

중앙승가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전화:(02) 929-5004
926-4377
팩스:(02) 921-9721

등록처
1. 교육원 교학과(기획실)
2. 한국외환은행
   계좌번호 : 287-22-00164-0
   예금주 : 학교법인 승가학원

다시 푸는 경서 — 치문경훈 (4)

潙山大圓禪師警策(위산대원선사경책) ④

변능조심육덕 회적도명
蕪棄精神 喧習止絶
온소정신 환효지절

薪窮決志被縞 君欲等趨何所
사친결지피치 의욕등초하소
曉夕思討 皆過蹉跎過時
효석사촌 기과천연과시
心期佛法興隆 用乍後來龜鏡
삼기불법흥륭 용작후래구경
常以如此 未能少分相應
상이여차 미능소분상응
出言 多涉於典章 談說 乃傍於稽古
출언 수섭어전장 담설 내방어계고
形容挺特 意氣高舉
형의정특 의기고한

어버이 작별하고 뜻을 굳게 세워 먹물 옷 입은 것은 무엇을 뛰어 넘고자 함이었던가.

아침 저녁으로 헤아려 보아야 합진대 어찌 차일그일 세월만 보내리오.

마음으로 불법의 대들보가 되리라 기약하여 훗날 귀감이 되도록 할지어다.

항상 이와같이 하더라도 조금이나마 상응 계합하기가 쉽지않나니

언교로 나아감에는 경전의 글을 두루 섭렵하고 담론에서는 옛 가르침을 헤아려 가까이 하며

몸가짐은 법도에 어긋나지 않아 해어나고 뜻은 높되 조급하지 않아야 한다.

遂于 委曲良朋 數數問於耳目

한번 사람의 몸 잃으면 만겁토록 다시 받기 어렵나니

총고의 말이 귀에 거슬리나 어찌 마음에 새기지 않겠는가.

곧 경계를 좇는 마음부터 쉬어 머물지 않는 가운데 덕을 길러서 모습과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야 하며(아상을 버리라는 뜻) 정신을 깨끗하게 길러 시끄러움을 끊어라 (몸과 놓고 쉬어 경계에 물들지 않아야만 시끄러울 것도 끄달릴 것도 없이 되느니라)

이름 드러내거나 경계에 물들지 말라
널리 선지식에 묻고 좋은 도반 가까이

원행 요기양봉 삭삭청어이목
住持 必須擇伴 時時問於耒聞
주지 필수택반 시시문어미문
故云 生我者父母 成我者朋友
고운 생아자부모 성아자붕우
親附善者 如霧露中行 雖不濕衣 時時有潤
친부선자 여무로중행 수불습의 시시유윤
狎習惡者 長惡知見 曉夕造惡
압습악자 장악지견 효석조악
朝三暮四 沒後忉忉
조삼모사 몰후초초
즉목교보 몰후참륜

먼 길을 감에는 좋은 벗에 의지함이 요긴하나니 자주자주 보고 듣는 경계에서 마음을 맑히고 머무를 적에는 반드시 도반을 가려서 때때로 말없는 가운데 법을 듣고자 할 것이니라.

고로 이르되 '나를 낳은 이는 부모요 나를 사람되게 하는 이는 벗이다' 하였다.

좋은 벗과 가까이 하는 것은 마치 안개와 이슬 속을 걸어가면 비록 옷이 젖지는 않으나 때마다 옷이 촉촉해지는 것과 같다.

나쁜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나쁜 지견을 길러 아침 저녁으로 악을 짓게 하니

곧 목전에 과보가 나타나고 죽은 뒤엔 악도에 빠지게 된다.

一失人身 萬劫不復
일실인신 만겁불복
忠言逆耳 豈不銘心者哉
충언역이 기불명심자재
便能勤心脩德 晦迹匿名

심오한 경지에 들어 (마침내) 부처님의 혜명을 계우쳐야 하나니 널리 선지식에 묻고 좋은 도반을 가까이 할지어다.

불법의 가르침은 그 묘의를 터득하기 어렵나니 모름지기 간절하고 세밀하게 마음을 살펴야 한다.

그렇게 하는 중에 문득 근본 마음자리를 깨달으면 이것이 곧 티끌세계(번뇌)에서 벗어나는 닦음을 차례로 마친 것이 되고

이것이 바로 삼계 이십오유를 쳐부수는 것이다(삼천대천 세계를 걸림없이 꿰뚫은 것이다)

內外諸法 盡知不貿 從心生起
내외제법 진지부실 종심변기
悉是假名 不用將心繫泊
실시가명 불용장심주박
但情不附物 物豈奪人
단정불부물 물기애인
任他法性 周流 莫斷莫續
임타법성 주류 막단막속

안이든 밖이든 모든 법이 다 실답지 않아 마음으로 좇아 알아난 것일뿐

일체 법이 다 거짓이롭인 줄 알 것이니 마음에 접어두어 여읠것이 없지 말것이다.

다만 뜻을 사물(경계·형상)에 붙이지 아니하면(잡착하지 않으면) 사물이 어찌 사람에게 걸림이 되겠는가.

청정 자성이 흐르는 대로 내맡겨 생각을 꾸으려 하지도 말고 잇고자 하지도 말라.

龍眼

★ 지상법석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정일스님 〈보광사 조실〉



약력
- 34. 3. 22 서울 生
- 79년 서울 우이동 보광선원 원장(현재)
- 90년 서울 우이동 보광사 조실(현재)
- 조계종 법주사 주지 역임
- 93년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현재)

"법왕법(法王法)이 여시(如是)니라."

이 회상(會上)에 대중이 모인 뜻은 법왕의 법(法王法)이 이와같다"는 뜻에 계합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팔만사천 법문의 요지가 "법왕법 여시(法王法 如是)"라고 하는 말씀 안에 있는 것으로, 모든 대중들의 신령스런 근본인 그 마음에 대한 표현인 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경지는 번뇌에 과몰해 사는 대중들의 지금 생각으로는 조금도 알 수 없으며 대중들의 이 알지 못하는 바를 부처님께서 격외(格外)로 보이신 바, '격외(格外)'라고 하는 것은 다자탑전 분반좌(多子塔前 分半坐)하신 소식, 영산회상 거염화(靈山會上 擧拈花)하신 소식, 곽시쌍부(槨示雙趺)하신 소식입니다.

번뇌망상에 놀아나면 生死를 뒤집어 쓰고 어깨 춤추는 도깨비

이것은 〈선가귀감(禪家龜鑑)〉첫머리에 나오는 '여기 한 물건'에 대한 것으로, 모든 중생들이 너무나 모르므로 '한 물건'에 대해 억지로 이름해서 '한 물건'이다, 억지로 이름해서 '부처님'이다, 억지로 이름해서 진리다 합니다. 또는 선가(禪家)에서 심월(心月)이다 하는 등 갖은 명사 다 붙였지만, 이 신령스런 근본 자리에는 그런 명사도 붙지 못하는 절대적인 것이 됩니다.

그럼 모든 중생들의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모두가 아는 생각이 먼저 앞서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내 마음은 내 몸 속에 있어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내다보고 있다"는 그런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나니 그것을 일러 "알 식자 마음 심자 '식심(識心)'"이라 하며, "아는 척 하는 마음" 그것을 망식(妄識)이라 합니다.

그 식심의 경계와 본심의 경계가 나타나니, 본심(本心)은 부처님 경지의 마음이요, 식심(識心)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는 마음이 앞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 부처님 법을 제외하고는 전부 아는 체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49년간 설법은 바로 네가 다겁생래에 익힌 업장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속이는 버릇이 그렇게 크니까, 그걸 알아듣는 자세가 되도록 하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 이 지구상에서 불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아는체 하다가 거꾸러지는 종교입니다.

항상 번뇌망상에 놀아나는 겁니다.

번뇌망상에 놀아나면 그것이 전부 生死요, 생사를 뒤집어 쓰고 있다 이겁니다.

어깨짓 춤추는 도깨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조사스님네들이 도깨비가 되지 말라 하셨잖습니까.

"대낮에 나타난 도깨비들아
대낮엔 도깨비가 없어요. 고래(古來)로 대낮에 도깨비에 홀렸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두운 저녁에 가서 도깨비에 홀렸지요.

그래서 이렇게 욕설을 하신 겁니다.

"대낮에 나타난 도깨비들아, 대낮같이 밝아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왜 도깨비짓을 하느냐"고 말씀이지요.

대낮같이 밝아 있는 자기 마음만 요달(了達)하면 되는데 자기 마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아는 체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 아는 체하는 제 기분에 들떠서, 제 흥에 겨워서, 흥분해서 아는 체하고 막 풀어 내놓다 보면 제가 저를 속이고 남들을, 듣는 이를 속이게 되니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 버릇을 고치라는 겁니다. 부처님 49년 설법(說法)이 ····

"아는 체하는 마음이 앞서 있는 마음은 망령스러운 마음이다" 이겁니다. 망령기가 있다는 말이요, 미쳤다 그 소리입니다.

미친 마음은 1초에 6만3천 번을 뛰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거의 전부요. 그렇지 않은 이들은 열 손가락 안에 꼽는다 이말입니다.

너나할 것없이 들뜬 사람들이 지구상에 모여서 산다 그말입니다.

그 생각이 쉬면 사왕천(四王天)에 올라가고, 조금 쉬면 도리천에 올라가고 조금 쉬면 야마천(夜摩天)에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욕계(欲界) 육천(六天)을 올라가며, 색계(色界) 십이천(十二天)을 올라가며, 무색계(無色界) 4천(四天)을 올라가고, 그래서 수다원(須陀洹)·사다함(斯陀含)등의 성문(聲聞) 4과를 올라가는데 수다원은 부처님 법을 의지해서 들어간 경계로 무색계천 경계에도 안되는 색계 십이천경계 중에 색구경천(色究竟天) 근처에 간 수행력이지만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수다원에 들면 다시는 더 물이 들지 않게 됩니다.

다시 되진하지 않는다 이말입니다.

수다원과를 딱 증해가지고 그후 정진해서 부처님이 되고 만다 이말입니다. 타락(墮落)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류(聖類)라고 하는 겁니다.

성인류(聖人類)에 든다고 해서 성류라고 한다 이겁니다.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누리는
현대불교 생활광고
다육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7-8881

관음손
어린이 포교를 위한 불교용품·불교서적 판매
스님을 위한 신변잡화·염주 염가 주문제작
비디오·카세트·선법집·단체용품 기획제작
720-1147(~8)

법화경 강좌
강사 최공덕 스님
문의전화 [부산:645-6224 대구:952-8711]

탁자, 달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불사 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달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용각 복전함
• 음성(삼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성남(법통사):대웅전 문짝 달집
• 충무(삼덕사):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전관사):대웅전 수미단 용각
• 포천(약천사):대웅전 문짝 달집
• 단양(천진사):대웅전수미단달집경탁경상
• 서울(학림사):회관 분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貴玉 합장

행운의 벽조목 안내
옛부터 우리 조상님들께서 가장 신비한 나무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는 벽조목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天下의 행운의 보물입니다.
여기 소개되는 이 벽조목은 수십수 목은 大木으로 충북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소재 1990년 7월 하순경 벼락 맞은 것을 베어서 정성 동안 가지런 목질이, 도장, 낙관, 염주, 단주 등을 제작하여 공급합니다.
한편, 「벽조목」은 각종 질병, 사업의 경제난을 겪고 있으신 분, 입시·승진 시험과 成果를 원하시는 분에게 집귀를 막고 행운을 준다고 국어사전과 백과사전에서도 행운의 「벽조목」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운의 벽조목은 항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인연되는 분에 한해서 공급합니다.
TEL : 02)741-1360 공덕하

임태스님의 육성 법문 테이프
감로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깨달음과 환희심을 이루는 일타 큰스님의 법문!"
•큰스님 살아온 얘기(테이프 1·2)
•마음·마음·마음(테이프 3)
•오분향을 이루는 공부(테이프 4)
•참된 희망(테이프 5)
5개 1세트 / 값 10,000원
선물용·포교용으로 좋습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587-6612~3 팩스 586-9078

연꽃잉어화
-전문화실-
연꽃잉어화는 옛부터 집안의 생기와 영업의 활기를 가져오는 길화로 전해오는 바 생동감을 주는 산작품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내외 벽화·병풍 및 액자화 작품
■사찰불사용 소작품 봉사가 주문작품
-외국 및 지방이 아니라도 색자 없이 그림만으로도 작품해 드립니다
-연꽃잉어화·우공화 전문작품-
우만(宇滿)화실
서울 용산구 청파1가동 173-1
전화:(02)3273-0081
온라인:국민은행 남영지점 822-24-0171-328(우만)

노고당
733-8743
지방은 조각하여 우송하겠습니다.

조문객
-접대음식-
• 육개장·대구탕 外
• 홍어회·전유어·북어찜 등
이조 924-9211
과방 925-4961
소모품 제공·봉사요원 파견

(주)미래 케이블 TV
Future's Cable Television, Inc.
중앙대리점
불교 케이블 TV 가입문의 환영
張載豪
서울 특별시 도봉구 창1동 662-41(대창빌딩 3층)
TEL (02)992-4777~8, (02)991-3197~8
FAX (02)992-4778

불교서적의 모든 것
도서출판 올쥬사
• 종로구 청진동 6번지
• TEL (02) 730-9372~3
• FAX (02) 723-0646

회관·대구니·신부회·꽃다발
생화·고화·동양란·서양란
연꽃방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전화 738-3933 (자택)934-1748

진여원
불교서적 및 용품 도·소매, 초 향, 촛대, 각종 유기 도자기, 염주, 목탁, 테이프, 개금, 단청, 불상, 탱화, 승복, 법복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전화:739-2450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木材放火劑(화재예방용)
■木材훨열방지제(갈라짐 변색)
■木材방충·방부제 목재(원목) 수입판매
■木材탈취제(청변균제거)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1
유풍B/D (을지로 2가)
전화:(02)266-2629, 404-9521
팩스:(02)266-2679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전국 제반 고승대덕 큰스님 법체강안하시옵고 불사 순조로우신지오.
아뢰올 말씀은 본인이 다년간 부동산업계에 근무하면서 쌓은 지혜를 스님들께서 사찰포교당 창건 및 이전하시고자 하는 좋은 장소를 찾으시는데 스님들이 직접 하시기 힘든 부분에 저희가 손발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인연 맺어주시면 부처님의 크신 가피로 알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사진 촬영(방송)사업은 반작 사라조에 의한 조 및 보장되옵니다
*부분수리 및 증축수 보장 모든 건 최상 분 변작장사면 변경해드리겠습니다
청송기획 대표전화 (02)998-1994 호출 012-271-5634 팩스 (02)998-1994

한민족
정통 신선도 수련법
회원모집:수시접수
(영구회원 접수중)
수련과정:단전호흡법, 철산법, 신선기공 36동작, 생식법, 벽곡법, 토굴에서 생활하는 법, 단식법
문의전화:(02)735-6795·6796
팩스 (02)730-9298
서울 종로구 인사동 4-2 중원 B/D 4층
한국 신선도 협회
회장 이해창(성오) 합장

지상법석 ★

우주의 주인공 됩니다"

그러면 외도(外道)는 무엇이냐?

비비상천(非非上天)까지 올라가도 도로 미끄러지고 도로 미끄러지고 하게 됩니다.

왜? 제 고집이 있어서 산돼지 고집을 가져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하는 생각이 좀 쉬었다고, 아는 경계가 좀 나타났다고 거기에 전도(轉倒)가 되어가지고 부처님 말씀도 안듣는 겁니다.

그러다가는 도로 미끄러져서 지옥에 가서 쳐박히는 거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불법에 의거해서 수다원과에 들면 다시는 타락없어

비유를 들자면 부처님 법을 따라 수다원과를 증득(證得)하는 것이 유리컵을 다섯 개 갖다 놓고 장마통에 시뻘겋게 뒤집힌 물을 컵 하나에 담아놓고 하루종일 있다가 저녁 나절에 보십시오.

맑게 가라앉았지요.

부처님이 보시고 80%가라 앉은 것, 이것을 옆의 컵에 "맑은 물만 옮겨 담아라"하셔서 부처님 말씀따라 옮겨 담았습니다. 또 하루를 두고하여 네번 옮겨야, 이건 암만 흔들어도 뭐 가라앉을 것이 없으니까 깨끗하지요.

그런데 외도들은 가라앉은 여기에, 찌꺼기와 같은 안다는 생각에 집착이 되어 가지고, 가라앉은 맑은 것만 옮기라고 해도 곧이 안듣고 그냥 이걸 쳐먹던 버릇을 안 버려서 흔들어 출렁거리면 도로 뒤집히고, 도로 쳐박히고, 그래서 지옥에 도로 쳐박히면서도 부처님 말씀을 안받아들여요.

자기 아는체 하는, 말하자면 다시 출렁거려 들뜬 마음이 앞서 가지고 안듣습니다.

그러니까 산돼지라.

산돼지 잡아다 집에서 길들여 보십시요. 아주 애 먹지요.

모든 중생들이 산돼집니다.

여러분들도 산돼지 고집 가졌다간 큰 일나요.

그래 부처님께서는 너희도 나와같이 이렇게 해봐라. 그럼 나와 똑 같이 되느니라. 온 우주의 주인공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따로 내몸이라고 여겨 집착할 것이 없느니라.

온 우주가 내 것이므로 부처님이 천백억화신을 나타내신 겁니다.

부처님은 임의자재하는 몸을 가지셨는데 거기에 비한다면 여러분들은 갖추지 못한 불구자요, 장애자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한 것 같지만 다 장애자이니, 장애자로 먹고 사시니 장애자분들 깔보지 말고 조금씩 시킬 일 있으면 시켜서 같이 살도록 해야되요.

시주물건(施主物件)의 모든 것, 여러 곡식으로 지은 주식과 부식의 나물, 양념, 차담으로 잡숫는 것, 물 마시는 것, 속가 신자들이 먹는 동식물류의 식품류인 모든 것을 먹는 것은 이 몸 안의 많은 중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먹어야 합니다.

"그걸 관(觀)하고 먹어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몸안의 중생들이 죽으니까, 자비스러운 뜻으로 대(大)를 위해서 소(小)를 베푸는 뜻으로 살기 위함이며, 바른 것을 위해서 살므로서 부처님 법을 위해서 살므로서 옳은 일이 되는데, 부처님 법만을 실천하면 옳은 일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죄(罪)가 되요.

그렇지 않으면 죄(罪) 안짓고는 못산다고 여러 경전에 말씀이 나타나 있어요.

남섬부주 이 지구상의 주위 환경은 니까, 아수라 아닙니까.

그런데 아수라 귀신이 어딨나? 모두들 그럽니다.

그래 부처님 법에 입지(立志)를 세우신 분들도 공기 중에 있는 많은 균들이 침입해 오는 유행병균, 감기로 인해서 유행병이 많이 있지요?

그때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 가시면 뜨거운 물에다 소금을 타 가지고, 양치질을 하셔서, 방어하는 균들을 도와 주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외세에 밀려 가지고 많이 앓게 되므로, 바른 생각내는 공부를 못하시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병원 의사분을 찾아 가셔서, 주사도 맞고 치료를 받으셔서, 외세를 쫓아내어 아픔을 고치셔, 공부해 가시라 이말입니다.

이와같이 부처님은 '장수멸죄경'에서 건강에 주의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분 몸안에서 일어나는 일,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주변에 사는 한량없는 수의 귀신이 있는데, 천상 세계로 올라갈수록 죄를 적게 짓고 사는 환경이 되어 있으며, 극락세계 환경은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되어 있다 그러셨습니다. 또 부처님 가르침은 서방정토 극락세계 구품연대를 졸업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은 부처님 앞에 축원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상품상생 돈오무생(頓悟無生) 법인지발원(法印之發願)- 문득 깨달아서태어남이 없는 법인을 발원하나이다.'

나지 않는다면 어딥니까?

내 마음이 온 법계에 가득 차서 생사가 본래 없는 그 이치를 증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참으로 극락세계입니다.

극락정토 가려면 깨달음 수행통해 구품연대 졸업해야

서방정토 극락세계라는 것도 여러분이 모자라는 것을, 그런 깨닫는 수행의 환경에 가서, 모든 것을 수학(修學)한 연후에 졸업을 하고서야 임의자재하는 이런 분상(分上)이 된다 이말입니다.

이것이 자기 복을 자기가 찾아쓰는 겁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법화경〉에 "이 사실, 곧 이 실상(實相)을 아느냐? 모르면 못 경험했으면 이 깨달음을 경험하여라"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경계의 사실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이 자기 몸안에 있다고 하고, 눈을 통해서 내다보고, 귀를 통해서 들고, 코, 혀, 몸, 생각에 끄달리는 사실을 실상이라고 여기고 산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일러주신 계목(戒目) 곧 법로(法路) 법도(法道) 경(經)에 따라 자꾸 그릇을 크게 해서, 온 법계를 다 집어 삼키셔야 합니다.

뭘 집어 삼키느냐.

본래 갖추어지신 건데.

마음에 대해서 사무치는 말을 해 놓았느냐?

전부 잘못 가르쳤습니다.

전부 들뜬 귀신의 소립니다. 아는체하는 마음이 앞서있는 소리를 했다 그겁니다

그러니 여기 한 물건이라는 것도 한 물건이라 하면 억지로 갖다 지은 말로 이름을 지어 붙인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서 화두로 하셨잖아요.

다겁생 익힌 업장 벗어나야 본심나타나 아는척 하면서 자기 고집만 세우면 외도

숨만 쉬어도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많은 중생이 공기 중에서 코로 해서 빨려 들어가며, 가지가지 일로 죽게 되거나 싸움하게 하니 죄가 됩니다.

싸움판을 벌렸으니, 아수라판을 벌렸으니 죄가 됩니다.

여러분은 싸움시키기를 좋아하는 아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수라도 되고 천사도 되고 별거 다 됩니다.

아수라 마음 내어 실천하면 아수라 되고 별거 다 되는 겁니다.

왜냐? 공기 중에 있는, 많은 가만히 있는 중생들을 몸안으로 들이 몰아 가지고, 안에 있는 방어균하고 싸움을 시키니까 아수라 아닙니까?

이 몸이 나라는 생각을 잠시도 못 버려서, 일체 모든 것에서 내니, 너니 하는 생각을 떠나지 못하여, 이 몸뚱이에 꽉 집착을 해서, 나로 삼아서 내게 해가 되는 것은 남이라고 해서 제 몸 편에만 들어서 응원하니, 응원하는 게 싸움시키는 것입니다.

삿된 입지(立志)로 사니까, 살려 하게 다루는 것은 상처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한 것처럼 육신을 소중하게 다루는 것은 육신을 잘 다스려 도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육신의 병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므로 마음의 상태가 분명하다면 참선병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번 생애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도를 이루겠다는 한 생각 뿐이라면 아무리 혼탁한 분명속에 버려져도 참선병은 걸리지 않는다. 우리의 오관과 의식을 통하여 쌓이는 문제들은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임을 알게 된다.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가다가 선만 그려져 있어도 바둑판으로 보일 것이며, 돌만 보아도 바둑돌로 보일 것이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 눈에는 술집간판만 눈에 띌 것이며,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서점만 눈에 띌 것이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아무리 부와 욕망에 휩쌓여 있어도 진정 도를 생각하는 사람의 눈에는 산만 보일 것이며, 문명의 소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새 소리만 들릴 것이다. 병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 있는 것이다.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만년후라도 세상은 그대로 세상일 뿐이다. 아무리 예토라도 내가 그 곳에 있음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며 나의 깨어있는 생각과 행위로 말미암아 그 곳이 정토가 됨을 명심하자.

〈영남대 의대교수〉

본란의 필자가 바뀝니다.

다음주부터 고려대 물리학과 양형진 교수가 집필합니다.

그 동안 본란을 이끌어주신 김성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과학속의 불교 — 불교속의 과학 ⑰

김 성 규



참선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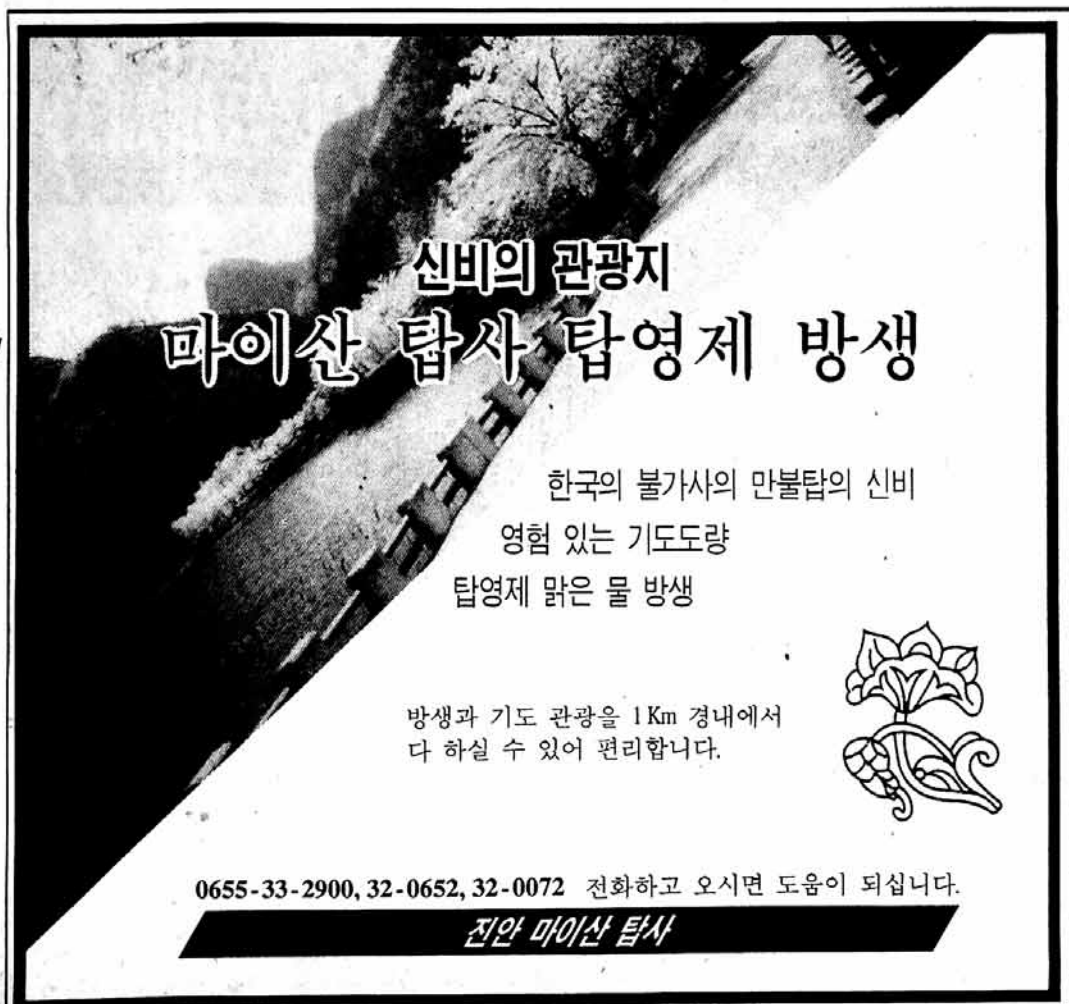
계율이라는 도덕적 기준을 토대로 하여 선정이라고 하는 종교적 체험을 통하여 혜(慧)라고 하는 생명 본래의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불교를 믿고 따르는 수행자나 신도들의 기본 원칙이나 계율에 철저하지 못하면 오히려 몇 생동안을 참선을 한다고 다리를 틀고 앉아 있어도 목적하는 바와는 정반대로 가슴 속에 탐욕만 가득 채우는 꼴이 되는 것이다. 조과선사와 백낙천의 대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고을 현감으로 부임한 백낙천이 평생을 나무 위에서 수행만 하고 있는 유명한 조과선사를 찾아가 불교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러자 조과선사는 나무 위에서 "모든 선을 행하고 모든 악을 없애며,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백낙천은 그것은 세살 먹은 어린아이도 하는 것이다라고 하니 조과선사는 "세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는 것이지만 팔십먹은 노인도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이네" 하였다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행위에 있는 것이지 말에 있는 것이 아님을

'道 이루겠다' 한 생각 뿐이면 병 안생겨 계율 철저하지 못하면 가슴엔 탐욕만

알아야 한다. 우리에게 훌륭한 제도나 말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불교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이 아님을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불교인이라면 당연히 지켜야한다고 여기는 계율을 자신은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지 한 번쯤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나는 얼마나 진리를 추구하는 문제에 철저한가?(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 나는 얼마나 청빈하게 살아가는데 철저한가?(도둑질을 하지 말라) 나는 얼마나 순수하게 살아가는데 철저한가?(음행을 하지 말라) 나는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철저한가?(거짓말을 하지 말라) 나는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가는데 철저한가?(술을 먹지 말라) 이러한 계율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앉으나 서나, 세속에 있으나 세속을 떠나 있으나 그대로 선정에 들어 깨달음의 세계를 열어 갈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치선병비요경(治禪病秘要經)에 보면 참선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선정에 들어 가는데 장애가 되는 여러가지 육체적, 정신적인 모든것을 참선병이라 하였다. 예를 들어 외부의 인연에 의하여 마음이 산란하여 선정에 들 수 없을 때, 계율을 범하거나 음악이나 잡기등 오락에 빠져 선정에 들 수 없을때, 공포스러운 마음이 일어나 선정에 들 수 없을때, 몸에 대한 욕심이나 성욕이 일어나 선정에 들 수 없을 때를 참선병이라 하였다. 또한 〈수습지관선요〉에서는 참선의 방법이나 참선 중의 마음가짐이 옳지 않아서 일어나는 병을 참선병이라 하고 있다.

예를들어 벽이나 기둥에 기대어 자세를 허물던가 또는 옆으로 드러눕던지 하면 마음이 나태해져 병이 마음의 빈틈을 노려 몸속으로 침투하여 등뼈나 여러 곳 뼈에 통증을 일으키게 된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 간, 폐, 심장, 신장, 위장들을 다쳐 병이 생긴다고 하였다. 이 육신이라는 것은 아무 쓸데가 없고 부질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육신이 병이 들거나 허물어져 버리면 아무리 도를 이루고 싶어도 도를 닦아 나타낼 그릇이 없는 것과 같아 도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상처를 신중하



대중불교는 옳지못한 것을 가려내는데 그치지 않고 바른것을 더욱 바로게 펴는 일을 함께 합니다.



월간 대중불교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재)대원정사

〈대중불교〉를 만나고서야 나는 마침내 말씀의 꿈틀이는 맛을 느낄 수 있었다!

곧은소리
불기의 잣대는 언제나 부처님 마음입니다.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대중불교〉는 그 잣대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시사, 쇠북소리, 귀담아듣고 새겨볼 이야기, 연중기획, 특별기획 …

깊은 풀이
해석이 없는 경전은 없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옛것을 옛것으로 놔두지 않고 현실로 끌어와 오늘을 움직이게 합니다.
수행칼럼, 세계의 선지식, 에세이 보살불교, 불교교리 산책, 법당이야기, 불교와 민속, 업과 문화, 페사지를 찾아서 …

넓은 만남
경전이 인도하는 길은 언제나 곧장 부처를 만나는 길입니다.
내가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불교방송교재 경전강의, 교리강좌, 불교 영어 한마디

대중불교
정기구독문의:전화(02)773-5731, 752-7047, 754-1614
팩시밀리(02)771-6796

고은 불교 대하소설

낡은 사후선(伺候船)



〈 18 〉

어찌 바다만이 광란이었겠는가. 그 태풍은 바다보다 차라리 하늘 전체를 광란의 극한으로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같은 자연의 폭력에 대해서 인간이란 한갖 하등동물의 그것과 다를 바 아니었다. 이러는 중에 다행히 태풍은 일정한 장소에의 집착이 없었던지 그럭저럭 지나가는 것이어서 무욕도의 다음날은 숲속의 나무가 부러지는 등 어수선해진 흔적 밖에는 여느 때의 정상으로 돌아가 있었다.

아름다운 합두행자가 아직도 남정네들의 기운에 내외를 하는 처지여서 될수 있는 한 억지로 데려온 다른 나라의 신(神)처럼 합부로 밖에 나오지 않았다가 태풍 뒤에는 선뜻 암자 밖의 흙마당 끝에 이어지는 너럭바위까지 나와 있었다.

그 모습은 이 황량한 진회색과 검은빛의 바위로 이루어진 섬 둘레의 덜 화가 풀린 것 같은 파도에 에워쌓인 하나의 요염하기까지 한 순결의 아름다움이었다. 아니 그것은 실재이기보다 추상인지도 몰랐다.

만화가 구조된 두 사람 중의 하나를 먼저 살려냈다. "푸우!"하고 꽉 막혀있던 곤충의 기공(氣孔)이라도 찢어진 것 같은 큰 숨이 나왔고 이어서 굳게 감겨

"그들의 뜻을 알 때까지는 … 여기서 돌보아야 하겠지"라고 혼잣말처럼 대꾸할 수 밖에 없었다.

그때 합두와 함께 있던 우녀가 두 사람이 제 정신이 들어있으나 아직 일어설 힘은 없는데도 암자 마당의 돌탑에 기대어 앉아있는 곳으로 갔다.

"어느 포구에서 오신 분이오?"라고 힘차게 묻는 것이었다. 태풍으로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은 태풍 속에서도 끄떡 없는 하나의 독립된 힘이었던 것이다.

이에 맞서 바다 수평선의 한 점으로 보이는 배에 대해서도 자세히 아는 만화의 시력(視力)이고 수평선 넘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조기잡이 선단(船團)의 북진(北進)까지 알아맞추는 시력인지라 그 눈빛 앞에서 두 뱃사람은 눈길을 피할 수 밖에 없었다.

"… 사실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탄 배는 관가(官家)의 사후선((伺候船)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바다에는 제대로 그런 배를 띄울 만한 나라형편이 아닌지 … 저 배가 연평도 포구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다섯사람의 동패가 맡아서 청나라와 왜국의 수적(水賊)들이 경기만(京畿灣) 일대에서 노략질을 한 것을 이따금 밤의 항로(航路)를 틈타 다시 찾아오는 일을 해온 것입니다. 덕적도(德積島)를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만화가 퉁명스럽게 한 마디 부조하였다.

"그러니 결국 임자들도 수적이로군. 그것 참 신명나는 일이겠지. 야음(夜陰)의 방심을 틈타 해앗거나 훔쳐내는 것 말이오!"

그러나 인담은 차분하게 물었다.

"저 배가 비록 낡은 것이고 또 이번에 난파된 것이라 한들 관(官)의 물건임에 틀림없으니 돌려주어야 후환(後患)을 면할 수 있을 것이오"

그때 구조된 뱃사람 하나가 고개를 절레절레 사래쳤다. "아닙니다. 사후선의 선적(船籍)에서 떨어져나간 주인 없는 것입니다"

만화가 다짐을 받았다.

"그 말이 틀림없으렸다! 여기는 수적의 포구가 아니라 수행하는 도량인줄 알아야 할 것인즉"

우녀가 나섰다. 그것은 더이상의 누덕누덕한 말을 주고받을 까닭 따위를 생략해버리자는 의도이기도 하였다.

"이제부터 두분은 마음대로 이곳을 떠나지 못합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구제된 것은 당신들의 생(生)이 바뀌어진 것을 뜻합니다. 우리와 함께 새벽에 일어나고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에 일하는 나날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섬의 천룡8부(天龍八部)가 진노하고 바다의 용왕이 진노하여 당신들을 고기밥으로 만들 것이오"

두 사람은 그들 자신이 어떤 일을 선택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아니 그런 선택에 관해서 서로 의견을 내볼 수도 없었다. 지상(至上)의 복종 밖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들의 무의지가 이 무욕도 수행의 의지에 일체의 다른 생각을 거절한치 부합되었다.

우녀가 인담에게 말하였다.

"두 사람의 법명(法名)을 지으시지요."

말의 억양은 공손했으나 명령이나 다름없었다.

"그들이야말로 우리들의 곡식밭이고 복 밭이며 우리의 수행을 위해서 붓과 벼루 대신 지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사람이란 모이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인가. 그래서 옛 천축에서 집없는 수행자들도 그들의 흙벽집으로 된 명상(瞑想)의 장소들을 만들었던 것인가.

인담은 식구가 늘어나는 일을 어느 정도 걱정스러워 하지만 우녀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많은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아이를 더 낳고 싶어하는 것처럼 두 사람이 구조되어 무욕도에 동참한 것을 매우 기뻐하기까지 하였다.

도소리를 억눌러버리고 사람들의 귀를 멍멍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제 섬의 사람들은 인담을 비롯해서 우녀와 만화 남처사 합두 그리고 무전 파현등 7명으로 불어났다. 밤하늘인들 북두칠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이었다.

이렇게 시작한 살림은 첫째 말을 아끼거나 줄이는 일, 밥을 항상 부족하게 먹는 일, 숨을 고르게 하는 일등을 지침으로 삼았다.

오전 공부에 이어 점심 뒤에는 한동안 눈을 붙이고 쉬었다가 밭을 일구는 일이나 부목(負木)의 일과 그밖의 일에 익숙해지는 것은 빨랐다.

무전과 파현이 가만히 한 마디 나누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도인(道人)이 되었지?"

"글쎄 저 바다가 시킨 거여."

이 말을 들은 곰보 남처사가 파현의 어깨를 탁 치며 빙그레 웃었다. 무슨 잡담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들은 섬의 꼭대기 쪽으로 가서 이번 태풍에 망가져버린 움막을 다시 손보아야 하였다. 그 뿐이 아니라 섬 중 허리쯤에 나무를 찍어서 또 한채의 암자를 짓는 일에 땀을 흘려야 하였다.



그림 · 조향숙

"무슨 걱정이시오. 바다에서 산 장부께서 … 그리고 이제 세속을 떠난 출가장부(出家丈夫)께서 … 사람이 태풍 속에서 구조되었을 때는 그들이 먹을 것도 함께 구조된 것입니다. 앞으로 두 사람, 부서진 벼루나 먹는 사람이지만 그들이야말로 우리들의 곡식 밭이고 복 밭이며 그들이야말로 우리의 수행을 위해서 붓과 벼루대신 지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복과 지혜 이것이면 게으름뱅이 잠들어 죽을지언정 굶어죽지 않을 것입니다"

남처사가 "먹을 것을 댈 일이 더 큰 일입니다."라고 말할 때 우녀는 그 곰보의 걱정을 나무줄기에 돋은 버섯을 떼어내는 것처럼 물리치는 것이었다.

이런 우녀의 든든한 신념이 바로 무욕도를 그 이전보다 더 뜻 있는 곳으로 만들기 시작하였다.

인담은 감회가 깊었다. 그가 이 섬으로 어떤 불안을 안은 채 건너올때 까지는 오래동안 내버려진 무인도였다. 이 섬에서 아주 맑은 샘물이 있는 것도 그가 와서 다른 짤짤한 샘물로 실망한 뒤에 발견한 뜻밖의 기쁨이 되었다.

그렇게 이 섬의 수행을 인담 혼자만의 세계로 열었던 것이다. 이 섬에서 그에게는 몇백년전에 이 세상을 살다간 스승 담인을 꿈 속에서 만났고 그 스승의 제자가 되어 그동안의 무사승(無師僧)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옛날 수당(隋唐) 시절에는 사도승(私度僧)이 있었다. 스승없이 된 중이었다. 하지만 그런 중 가운데는 아주 덕과 계행(戒行)이 높은 사람도 있었으나 부역을 면제받기 위한 위도승(僞度僧)도 위람승(僞濫僧)도 없지 않았다.

어쨌거나 인담은 그의 신령스러운 꿈속에서 스승이 나타난 것이다. 이 사실은 어떤 스승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보다 오묘한 자존심을 불러일으킨 것도 사실이다.

비록 난파선일망정 배 한척이 무욕도의 것이 된뒤 두사람의 출가가 단행될 수 있었다

제3회 불교어린이지도자 양성과정

주간 · 야간 통신(비디오, 카셋트)

1. 취지

본 교과과정은 불교 어린이 교사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고취, 그리고 조직적인 교육관리를 목적으로 기존 교사의 재교육과 초임교사의 기본교육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오니 변화하는 교사, 성장하는 어린이 범회를 위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교육에 참여하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제방 스님 및 제가 교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늘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교육불사에 전념하시길 기대합니다.

2. 교육과정

과 정	과 목
불교학과정	불교학개론, 불교교리발달사, 불교의식
교육학과정	교육학개론, 아동심리(학습심리, 발달심리, 상담심리)
불교교육학과 정	사찰 부적응아 지도법, 교사론, 불교의 아동관, 불교 교육방법론, 설법설계의 원리와 실치, 불교학교의 교육행정, 시청각교육원리 및 실제
지도실기	레크리에이션(게임송, 실내 · 외 게임, 포크 댄스, 캠프 진행, 찬불가 율동(제작원리)) 특별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오후행사, 기념행사 등)

3. 교육기간 및 행사개요

가) 교육기간 : 1995년 3월 13일 ~ 6월 12일 (3개월)
나) 교육시간 : 매주 월 · 수 · 금 **주간반** : 오후 2시 ~ 4시 **야간반** : 오후 7시 ~ 9시 **통신반** : 비디오 과정, 카세트 과정
다) 인 원 : 각 반별 30명 (선착순 접수) 라) 수강료 : 월 6만원
마) 교육장소 : 불교교육연구원 (조계사 중문, 시사일본어학원 옆)

4. 입학자격

가) 어린이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 나) 불교유치원 교사, 사찰 법사스님 및 어린이회 교사
다) 자녀를 지혜로운 불자로 키우고 싶은 학부모

5. 특전

가) 불교교육연구원 수료증 및 연구원증 발급 나) 본원 및 외부강사로 활동 보장
다) 수료 후 사찰 어린이 법회 유급교사로 일선

불교교육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5 종로빌딩 3층 전화 725-7527~9

나무대자대비 관세음보살



35 × 70cm 수묵관음도

관세음보살이 이땅에 나투심은
일체중생 번뇌를 멸하여
성불의 연을 지어가게 함입니다.
자비의 화신 관세음보살을 가정마다 모시고
우러러 예경하면 불심 증장과 함께
최상의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 관음도는 금산스님(대구예인협추대직기)이 환점씩 정성들여 그리시고 청소년 포교기금 마련 및 불화모시기 운동전개를 위해 열가 보급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구입문의 : 02) 841-7165
•보급처 : 불교교육연구원 · 대동불교예술대학 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1동 885-5

만 · 화 · 로 · 보 · 는

부처님의 십대제자

사사끼세이 지음 / 이미령 옮김

제 1 권 사리불 · 목련

지혜제일의 사리불과 신통제일의 목련. 진실한 법을 구하여 불제자가 되었지만 스승에 앞서 입적한 두 사람의 극적인 구도 이야기.

제 2 권 아 난

부처님 곁에서 25년을 한결같이 시자로 지낸 아난과 반역자인 형 데바닷타. 불제자로서 대조적으로 생애를 살다간 두 형제의 마음의 갈등을 그려낸 이야기.

제 3 권 가 섭

두타제일의 가섭. 일생토록 순수한 수행의 외길만을 고집하다가 부처님 입멸 후 교단의 중심 인물로서 불교 교단의 부흥을 기도, 후세에 불교경전을 전하기 위한 제1회 불전 결집을 단행한 인물.

제 4 권 라훌라 · 아나율 · 우팔리

부처님 출가 전의 외아들 라훌라. 앞을 못 보지만 천안(天眼)을 얻은 아나율. 인도의 하층계급 출신으로서 서민의 대표인 우팔리. 세 사람의 인연과 수행의 모습을 그린 이야기.

제 5 권 부루나 · 수보리 · 가전연

거듭되는 난관을 헤치고 끝끝내 이루어낸 사위국의 불법 유포. 교단의 중심이 되어 활약한 젊은 청년투사들의 활력 넘치는 이야기.

※ 지금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전 5 권 각 권 4,000원

우리출판사 TEL. 313-5047 FAX. 393-9696

교계 결혼상담실

'불자가정이루기' 한몫

조계사·봉은사·우리는 선우 등 5곳…비용무료

봉은사, 조계사, 구룡사, 능인선원, 우리는 선우등 교계에서 운영되고있는 결혼상담실이 불자들의 만남을 제공, 불자가정이루기에 선봉 역할을 하고 있다.

종교문제로 인한 고부간의 갈등이 심심치않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요즘 결혼상담실은 불자들을 서로 맺어줘 사회의 핵이 되는 건강한 불자가정을 엮어내고 있다.

개별만남으로 신청회원의 신상에 대해 파악 하고 조건이 맞는 원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고 있는 이들 결혼상담실들에는 특히 불자며느리, 사위를 맞고자 원하는 보살들의 문의가 해도한다는 것.

총회원 4백35명을 확보, 2백여차례의 맞선주선으로 5쌍을 결혼시킨 봉은사 결혼상담실 조선희 총무는 "주로 회원들이 20대 후반에서 30대, 40대로 본인 스스로의 신청보다는 혼기를 놓친 자녀를 안타까워한 부모들의 대리신청인 경우가 많으며 재혼신청자도 있다"며 상담비용은 일체 무료라고 했다. 이와함께 봉은사 결혼상담실은 회원들에게 청년회, 일요법회의 참석을 권유, 불자들의 인연의 자리를 유도해내고 있다.

지난해 결혼상담소를 통해 불자며느리를 얻은 정심화보살(서초구 서초동)은 "매주 일요일이면 며느리와 절에 같이 나가게 돼 참 좋습니다. 지난번에는 성지순례도 함께 갔다와 딸보다도 더 친근하고 믿음직스러워요"라며 며느리 자랑에 한창이다.

교계 결혼상담실	
봉 은 사	(02)545-1448
구 룡 사	(02)571-2255
조 계 사	(02)723-3810
능인 선원	(02)561-8315
우리는선우	(02)994-1473



◇ 결혼상담실은 신뢰를 바탕으로한 성실한 상담으로 불자가정 이루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직 우리사회에는 결혼상담실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으며 재혼위주등 선입관이 여전하다. 이러한 상황아래 현재 운영되는 결혼상담실은 개척자적인 견지에서 성실한 운영으로 불자들의 인연곶음에의 기회를 점차 확대시키고 있다.

우리는 선우의 결혼상담실 혼례부장 한영옥씨는 "결혼상담소는 단순히 남녀를 짝지어주는 곳이 아니라 참불자끼리의 인연을 맺어 불자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포교사업입니다."면서 행복의 첫관문인 결혼을 올바르게 이끌어내는 것이 결혼상담실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했다.

결혼상담실 관계자들은 몇쌍의 결혼이 이루어졌나하는 결과보다는 서로 만나는 과정을 통해 인연을 따라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강요나 동정으로 결혼을 유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결혼을 앞두고 직면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상호이해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문상담인력의 양성, 교계 상담기관간의 연대를 통한 효율적 운영등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교계 결혼상담실들은 아직은 열악한 상황이지만 관심들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포교의 차원에서 그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이은자 기자〉

부산여성불교대학 포교사반 개설

'큰 지혜·참마음·바른 실천·나누는 기쁨'을 학훈으로 삼아 부산지역의 여성불자들을 알찬 교육으로 묶어내고 있는 부산여성불교대학(학장 정봉화)이 오는 22일 포교사반을 개설한다.

지난해 10월 기초교리반 강의를 시작으로 문을 연 부산여성불교대학은 불교의식반, 문화교양반에 이어 포교사반을 신설하고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여성포교사들을 길러내게 된다.

부산여성불교대학 학장정봉화씨는 "교육을 통한 여성전문인재 배출로 신행활동을 통한 사회활동을 이끌어 내겠다"면서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는한 체육, 건강, 레크레이션등을 정식과목으로 채택해 실생활에 활용되는 교육의 실시로 여성불자들의 활동의 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51)866-05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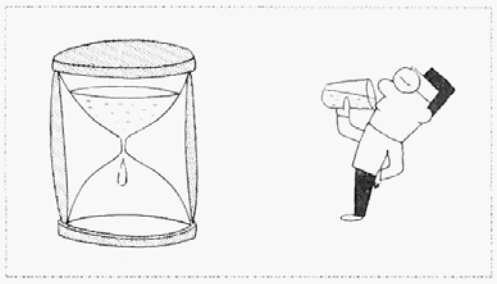
이리후 건강칼럼 <17>

물

생활폐수·농약으로 식수오염…관리 절실

마하승지율 "벌레 있으면 걸러서 마셔라"

요즈음 겨울 가뭄이 심하여 남부지방에는 식수 비상이 걸렸다. 신문에 난 사진을 보아도 저수지의 바닥이 거북이등처럼 갈라져 있는 것을 보면 가뭄이 실감난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가뭄으로 인해 수질이 더욱 악화됨으로써 그 질들을 우리들이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수질의 오염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도물을 믿지 못하고 생수다 약수다 하고 난리를 피우지만 그 물 역시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다른 오염된 물이나 다를 바가 없겠다. 우리 인체는 여러가지 원소들이 모여 이루고 있지만 그 가운데 물이 75~85% 차지함으로서 우리 몸의 중심물질을 이루고 있다.



물에 관한 건강지표를 우리에게 알리는 세계보건기구의 권장 가운데 첫번째가 "물을 올바르게 마셔라"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올바르게"라는 지침이다. 하루에 적어도 2리터 정도의 물을 인체는 공급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해서 1리터짜리 주전자에 물을 두 주전자를 미리맡에 놓고 벌컥벌컥 마시라는 뜻은 아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에는 주되게 물이 함유되어 있고 목이 마를 때 마시는 물 등을 합하면 대개 2리터정도 된다.

우리 인체도 물이 부족하면 자연계의 가뭄현상으로 일어나는 변화의 이치와 같고 물이 너무 많으면 장마때의 자연이치와 같은 변화를 보인다. 올바르게 물을 마시려고 해도 그 물 자체가 오염되어 있다면 아무리 올바르게 마신다고 한들 우리 몸이 성할 이치가 있겠는가.

물은 식수로 이용하기가 부적합하다는 데 있다.

수질의 오염에는 흔히 공장의 폐수를 먼저 생각하지만 공장의 폐수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폐수와 농약의 폐수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오염물질을 함께 포함시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벌레를 걸러서 마시라는 말씀을 단순히 살생하지 말라는 좁은 의미로만 해석하지 말고 올바른 물을 마시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로 이해 해봄직 하다.

"물을 걸렀습니까?"하고 물어보고 아직 안걸렀다고 말하거든 걸러서 먹으라고 가르치라고도 적고 있다. 그런 실행이 올바르다 하겠다.

"벌레가 없으면 물을 음료수로 써도 좋으나 만약에 물에 벌레가 있으면 걸러서 마시도록 하라" 이 말씀은 마하승지율에 나오는 말씀이다. 여기서 벌레는 눈에 보이는 미물을 뜻하겠지만 오늘날 생각하면 미생물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포함되며 나아가서는 여러가지 오염물질

만 화

法구경 (法句經)

* 꽃의 장 *
아무리
사랑스럽고
빛이 고울지라도

이 향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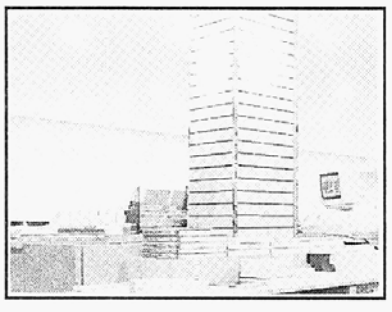


아무리 사랑스럽고 빛이 고울지라도
형편없는 꽃이 있는것 처럼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사람의 말은
번지르르 할지라도
그 알맹이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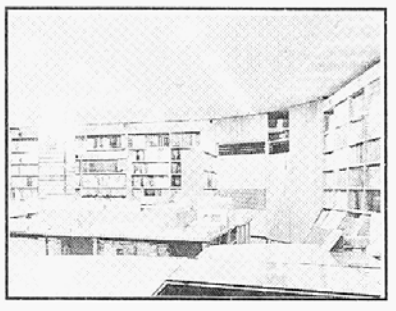
사랑스럽고 빛이 아름다우면서
은은한 향기를 내 뿜는 꽃이 있듯이
실천이 따르는 사람의 말은
그 메아리가 크게 울려 퍼진다

불을가득 · 법향가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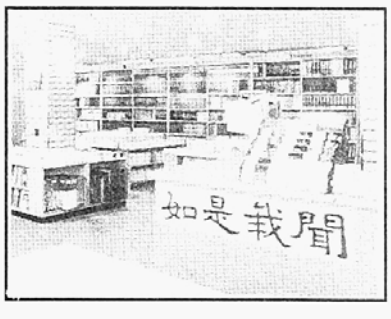
책 방 여 시 아 문 으로 오십시오



· 저자와의 만남(격월)
· 계절별(분기별) 책잔치 개최
· 통신판매—전화, 팩스 주문 가능
· 컴퓨터를 이용한 편리한 도서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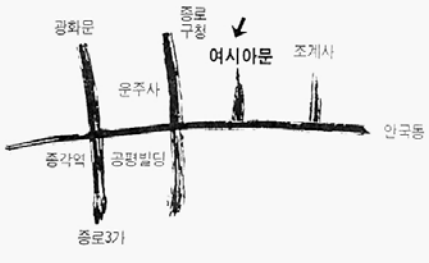


·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5천 여종, 3만 여권)
· 불교관련서적(역사, 철학, 사회과학 등 망라)
· 영인본, 희귀본, 절판본, 열람 가능
· 편리한 도서안내
· 편안한 독서 공간
· 도서상품권 취급



· 도서회원제 운영 (1995.4.1.부터 시행 예정)
회원특전
· 현대불교신문사, 도서출판 여시아문 발행도서에 대한 회원 우대 사은권 제공
· 소식지를 통한 도서 정보 제공
· 통신 주문
· 전화 도서 목록 검색 서비스 (737-0695)
· 책방 여시아문 · 현대불교신문사 주최 행사 우선 초대

오시는 길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전화(대표) 737-8881 (서점직통)737-0695 / 팩스 737-0696 / 교통편 전철 1호선 종각역, 3호선 안국역 / 버스 32, 59,84,159,331,588-2번

저자와의 대화 | '예불하는 마음에 자비를' 펴낸 권 영 한 씨

"부처님 가르침따라 불심씨앗 뿌렸을뿐"

'절하는 법' '향공양' 등 사찰기본예절중심 구성

주련 연구서 시작…3백여 사찰찾아 자료 정리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역자	출 판 사
1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교보문고
2	금강경 강의	무비	불광
3	예불하는 마음에 자비를	권영한	전원문화사
4	영원한 자유의 길	성철	장경각
5	숫타니파타	법정	샘터
6	미라래빠의 십만송	이정섭 역	시공사
7	100문100답 - 입문권	편집부	대원정사
8	어린이 팔만대장경	신현득	현암사
9	부처님이 좋아요	이정문	불광
10	살아있는 국토박물관	안정에	심지

구입문의:(02)737-0695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저를 시켜서 부처님뜻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최근 교보문고와 불서전문 책방 여시아문 집계 베스트불서 상위권을 기록하는 화제의 책 〈예불하는 마음에 자비를〉의 저자 권영한씨(65·안동 경안중교사). 한권의 책을 통해 부처님께 다가가는 기회를 그만큼 넓혔다는 주위의 칭찬을 부처님뜻으로 돌린다. 단지 자신은 심부름꾼이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수년 동안 절에 다닌 사람들중에도 의외로 절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하물며 어쩌다 들르는 불교신자도 아닌 사람들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예불하는 마음에 …〉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찰의 뜻을 제대로 알리고 불심의 씨앗을 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타까움과 불교사랑의 산물이다. 따라서 이 책은 불교인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다.

'왜 산에 절이 있는가'라는 의문으로부터 일주문 대웅전 등 사찰의 전각, 참배를 마치고 나오기까지를 통해 사찰과 불교신앙을 이해할 수 있게끔 '산과 절' '절을 찾는 마음' '절을 찾아서' '도량을 지키는 권속들' '금당' '참배를 마치고' 등 11장으로 구성했다. 여기에다 397컷의 사진과 30항목의 그림, 18개의 도표를 실어 절하는 법, 향공양, 촛불 켜는 법 등 사찰에서의 기본 예절을 설명했다.

권씨는 이 책을 펴내기 위해 3년반의 시간을 쏟아부었다. 산과 그속에 자리잡은 사찰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들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는 "산이 곧 절이요, 절이 산이다. 산은 절의 뜰이요, 절은 산의 마음"이라고 말한다.

처음에는 절기둥에 적혀있는 글귀인 주련을 연구하러 다니다가 시작했다. 전국의 3백여 사찰을 찾아 자료를 정리하고 카메라에 담았다. 조금 유명하다 알려진 사찰치고 안가본 곳이 없을 정도다. 스님들이 부처님존상 촬영을 막는 어려움도 겪었다. 촬영한 사진이 안나온 경우는 그 사찰을 다시 찾아야 했다.

"불교를 모르고 진정한 우리문화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자들은 물론 우리 문화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읽어보길 권합니다."

'사대육신' '이관사관' 등의 말이 불교에서 유래됐듯이 우리문화의 한가운데는 불교가 자리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어려운 불교용어 풀이에도 정성을 기울였다. 가령, '공양'이란 말은 '절에서의 식사를 공양이다 한다'고 풀어써 낯선 불교용어 때문에 주저하는 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다. 권씨는 사찰의 창건설화 및 심우도등 사찰벽화를 소개하는 책도 펴낼 예정이다. 〈정성운 기자〉

명사추천 불서 100선

아 함 경

좋은 책들은 늘 나의 길이 되어준다. 길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기쁨과 감동까지 더해준다. 내가 고통스러운 때일수록 그 기쁨은 배가 되고 그 감동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문학작품이나 철학서적등 다른 책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지만, 경전이 주는 감동은 또 다르다. 그것은 더 환한 세계다. 어떤 작품도 어떤 사상도 뛰어넘는 세계다. 도저히 나로선 설명되어지지 않는 다른 세계가 거기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코끼리등만 만져보고 코끼리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할 수는 없다. 내가 알고 있는 만큼의 경전에 대해 얘기하는 것조차 왠지 쑥스럽고 계면쩍다.

경전 한줄 읽는 것이, 좋은 친구 한번 만나는 것에 비길 수 있다면, 나는 감히 평생 친구들 만난 기쁨을 누구에게라도 전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를 환하게 해준건 〈반야심경〉과 〈아함경〉이다. 두 경전은 다 내 마음을 평정시켜주고, 나를 죽음에서 구해준 잊을 수 없는 경전이다. 그래서 나는 늘 사랑하고 가까이 한다.

그때부터 어지럽던 마음이 차츰 안정이 되었고, 모르던 세계를 만나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잘 견딜 수 있었다.

그동안 무관심했던 것들이 가깝게 느껴졌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아름다움과 연민을 함께 느끼기도 했다.

폐쇄적이고 냉소적이던 세상에 대한 내 눈이, 따뜻하고 긍정적인 쪽으로 향하게 되었다.

불심이 강한 집안에서 자라서 불교에 대해 늘 관심과 애정이 있었지만, 경전을 만난 뒤에야 비로소 불교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경전은 그 크고 작음이 문



천 양 희
〈시인〉

"마음이 세상 이끌고 유지한다"

선악·인연담등 인생지침 가득

나는 한때 생에 대한 절망 때문에 죽음까지도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땐 경전을 볼 생각조차 못했다. 어리석은 생각으로, 온통 마음이 캄캄해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죽을 결심을 하는데 문득 절이 생각났다. 왜 그랬는지 지금도 잘 생각 나지 않는다.

절을 찾아가던 길에 나는, 절보다 먼저 만날 속에서 파란잎을 피우고 있는 풀 한포기를 발견했다. 강추위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티고 있던 풀 한포기.

나는 그 풀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웠다. 그 부끄러움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을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때까지 책꽂이에 꽂혀있기만 하던 경전을 읽기 시작했다. 어린시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불경을 읽으시던 할아버지를 생각했다. 풀 한포기가 나를 바꾸어놓은 것이다.

제가 아니다. 비록 그 양이 적고 짧다 할지라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장엄함과 신비함이 있다.

〈반야심경〉이 불교의 진수라면 「아함경」은 최초로 설해진 부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지침이 되는 교훈을 담고 있어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아함경〉에는 불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불교의 깊은 교리를 담은 짧고 긴 경들이 많이 모여 있다. 선·악의 구별, 인연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교훈적인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어쩌면 〈반야심경〉처럼 불자들에게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경전일지 모른다. "마음이 세상을 유지하고 마음이 세상을 이끌고 있다. 그 마음이 한 법이 되어 세상을 능히 제어하느니라"

잊혀지지 않는 〈잡아함경〉의 한 구절이다.

컴퓨터 통신 월간 '반야'

천리안 동호인에 화제

般若



컴퓨터통신 천리안에 지난 1월부터 게재되고 있는 전자잡지 월간〈반야〉가 천리안 불교동우회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최초의 불교전자잡지인 〈반야〉는 24면 분량에 '칼럼-쇠북소리' '경전강요' '산사기행' '선사열전' '불교시감상' '불교개론' '컴퓨터강좌' 등을 싣는다. 매월 25일 발송된다.

컴퓨터세대들이 불교의 가르침에 목말라하고 있음을 반영하듯 첫호가 나간이후 독자들의 반응이 즉각 나타났다. '삽화가 본문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충고에서 '불교공부의 계기를 주었다'는 격려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발행인 김충호씨(소설가)는 "컴퓨터세대에게 불교를 정확히 알리고자 전자잡지를 기획했다"며 "앞으로 60면으로 증면하고 공보처에 전자잡지를 등록해 본격적인 전자포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나온 책

▲금강경이야기 · 상(법륜 지음)=현대인들에게 열린 사고와 열린 마음으로의 전환을 제시하는 법륜스님의 금강경 설법집. 저자는 새로운 삶을 억압하는 모든 헛된 상(相)으로부터의 벗어남, 베풀되 베푼다는 생각이 없는 무극상보시의 기쁨을 체험하게 될 일체법무아(一切法無我)의 가르침이 금강경의 요지라고 설명한다. 〈정토출판사, 6천8백원〉

▲예념미타도량참법(월운 · 각성 옮김)=동국역경원의 한글대장경 제종부 첫째권으로 정토신앙을 표현한 표제의 참법과 자비도량참법을 우리말로 번역해 실었다. 예참이란 불보살님께 예배 참회함으로써 공덕을 이루어 마침내 가피를 입어 경온함을 얻게 하는 실질적인 신앙방법이다. 〈동국역경원, 1만원〉

▲작은 솔씨가 낙락장송되나니(윤청광 지음)=근대 한국 불교계의 큰 선맥을 이루었던 용성스님의 삶을 엮은 구도소설. 대각교 은동, 불교대중화를 위한 도심지 선포교, 경전의 한글화, 최초의 찬불가 제작 · 보급 등의 이야기를 통해 불교정신을 구현하고 일제의 식민지침략에 맞섰던 용성스님의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 〈언어문화사, 5천원〉



▲부처 예수 공자의 나라(공종원 지음)=우리 사회의 종교간 갈등과 긴장관계의 심각성을 불교적 입장에서 제기한 칼럼집. 아직 우리 사회는 기독교와 이슬람 또는 힌두와 이슬람 사이의 유혈 충돌같은 비극적 사태는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종교간의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은 점점 심각해질 것이며, 이에따른 종교간의 이해가 시급한 과제라고 밝힌다. 〈반야, 5천5백원〉

▲선시 100수(이삼 편저)=육조혜능 왕유 왕안석 등 중국 당송시대의 선사와 시승 문인들의 선시 가운데 예술표현이 뛰어난 선시 100수를 선정, 원문을 싣고 운제스님이 우리말로 풀이했다. 서동교화 백의 삽화 50여장을 곁들였다. 〈불교영상, 4천3백원〉

▲동낭도 못하는 스님(김원환 엮음)=달마대사에서 성철스님까지 선사들의 선문답을 묶은 선이야기. 236편의 선문답을 참회 수행 무심 해탈 생활선문답 등 5장으로 나눴다. 〈우연기획, 6천5백원〉

▲연꽃으로 피어나리(이해숙 지음)=생사의 기로를 헤매는 병고를 오직 관음보살을 염하는 것으로 극복한 불교신행 수기 신앙심은 경전을 공부한 바탕 위에서 더욱 확고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은금나라, 6천원〉

▲종교의 반성(박영규 지음)=우리나라 종교단체와 지도자들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자성을 촉구하고 있는 칼럼집. 피어선신학대학 교수를 역임한 저자는, 종교의 목적은 인간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종교의 거듭남을 강조하고 있다. 서간문 형식의 담담한 문체에 직관과 통찰이 번뜩인다. 〈다나, 8천원〉

佛教聖地巡禮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모든 이는 부처님의 미소를 닮아 있었습니다.❞

태국 5일

₩ 595,000

서울-방콕(2박)-아유타야, 방파인, 수상시장, 새벽사원, 왕궁, 에머랄드 사원, 무암보란, 황금불 사원-파타야(2박)-방콕-서울

· **출발일** : 3月 / 9, 14, 16, 21, 23, 28, 30 4月 / 4, 6, 11, 13, 18, 20, 26, 27

대만 5日 ₩ 595,000	서울-대북-일월담(1박)-고웅 · 불광사(1박)-화련(1박)-대북(1박)-서울 3月 / 15, 22, 29 4月 / 5, 12, 19, 26
스리랑카 6日 ₩ 1,070,000	서울-콜롬보(1박)-아누다라푸라-하바라나(2박)-폴론나루와-덤불라-캔디(1박)-콜롬보(1박)-서울 3月 / 10, 17, 24, 31 4月 / 7, 14, 21, 28
미얀마 · 태국 8日 ₩ 1,400,000	서울-방콕-양곤(1박)-파간(1박)-만달레이(1박)-양곤(1박)-페구-양곤(1박)-방콕(2박)-서울 3月 / 10, 17, 24, 31 4月 / 7, 14, 21, 28

新春海外旅行

-최고의 여정 · 최상의 서비스 · 최대의 기쁨-

방콕 · 파타야 5日 ₩ 635,000	서울-방콕(1박)-파타야(2박)-방콕(1박)-서울 3月 / 8, 11, 12, 15, 18, 19, 22, 25, 26, 29 4月 / 1, 2, 5, 8, 9, 12, 15, 16, 19, 22, 23, 26, 29, 30
방콕 · 푸켓 5日 ₩ 649,000	서울-방콕(1박)-푸켓(3박)-서울 3月 / 11, 18, 25 4月 / 5, 12, 19, 26
동남아 3국 5日 ₩ 590,000	서울-쿠알라룸푸르(1박)-싱가폴(2박)-바탐(관광)-기내(1박) 3月 / 8, 15, 22, 29 4月 / 5, 12, 19, 26
방콕 · 푸켓 · 싱가폴 6日 ₩ 795,000	서울-방콕(1박)-푸켓(2박)-싱가폴(2박)-서울 3月 / 14, 21, 28 4月 / 4, 11, 18, 25
하와이 5日 ₩ 649,000(일급) ₩ 699,000(특급)	서울-호놀룰루(3박)-기내(1박)-서울 3月 / 8, 9, 11, 15, 16, 18, 22, 23, 25, 29, 30 4月 / 1, 2, 5, 6, 8, 9, 12, 13, 15, 16, 19, 20, 22, 23, 26, 27, 29, 30
동경 · 하꼬네 4日 ₩ 945,000	서울-동경(2박)-하꼬네(1박)-서울 3月 / 9, 16, 23, 30 4月 / 6, 13, 20, 27
유럽 5개국 10日 ₩ 1,790,000	서울-영국-독일-스위스-이태리-프랑스-서울 3月 / 9, 16, 23, 30 4月 / 4, 6, 11, 13, 18, 20, 25, 27
사이판 4日 ₩ 549,000	서울-사이판(3박)-서울 3月 / 9, 12, 16, 19, 23, 26, 30 4月 / 2, 6, 9, 13, 16, 20, 23, 27, 30
괌 4日 ₩ 549,000	서울-괌(3박)-서울 3月 / 9, 12, 16, 19, 23, 26, 30 4月 / 2, 5, 9, 12, 16, 19, 23, 26, 30
호주 · 뉴질랜드 8日 ₩ 1,270,000	서울-기내(1박)-골드코스트(1박)-로토루아(2박)-오클랜드(1박)-시드니(2박)-서울 3月 / 9, 14, 16, 21, 23 4月 / 1, 2, 4, 6, 8, 9, 11, 15, 16, 18, 20, 22, 23, 25, 27, 29, 30

新婚旅行

❝새로운 출발, 허니문 전담팀이 권해 드리는 일곱색깔 무지개 여정❞

방콕 · 파타야	5日	— ₩ 635,000
	서울-방콕(1박)-파타야(2박)-방콕(1박)-서울	
푸켓	5日	— ₩ 740,000
	서울-방콕(1박)-푸켓(2박)-방콕(1박)-서울	
	-전 일정 비디오 촬영 무료증정-	
대만(화련)	4日	— ₩ 520,000
	서울-대만(화련) 3박-서울	
괌	4日	— ₩ 670,000
	5日	— ₩ 785,000
	서울-괌(3박, 4박)-서울	
사이판	4日	— ₩ 670,000
	5日	— ₩ 785,000
	서울-사이판(3박, 4박)-서울	
하와이	5日	— ₩ 649,000(일급) — ₩ 699,000(특급)
	서울-하와이(3박)-기내(1박)-서울	
호주	5日	— ₩ 860,000
	6日	— ₩ 899,000
	서울-기내(1박)-골드코스트(1박, 2박)-시드니(2박)-서울	

여행조건 10人 이상 출발(허니문은 1쌍이라도 매일 출발), 전 일정 식사 제공, 특급 및 일급 호텔 사용(허니문은 특급호텔), 해외 여행자 보험 자동 가입, 현지 가이드 동행

특전 2개월 전 예약시 5% 할인, 모자 증정, 축하 와인, 과일바구니 제공, 해산물 부페 제공

21세기를 지향하는

불교 성지 순례 전문 (주) 아 태 관 광 국외 여행업 제 817 호 ☎ 732-3200 (代)

불자 예술인

인도 성지 순례 늘고있다

'부처님 고향'서 창작의욕 고취…비불자들도
소설가·시인·화가·사진작가·조각가 등 다수

인도의 부처님 성지를 순례하는 불자 예술가들이 늘고 있다.

부처님의 체취가 서린 곳, 가난과 문명이 함께 어우러진 나라, 인도에 대한 불자 예술인들의 체험은 창작의욕 고양과 신심 쌓기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인도를 방문한 불자 예술인으로는 작가 정찬주씨와 구효서씨, 시인 윤재림씨, 화가 하수경교수(전북대)등. 정찬주씨는 경전소설 〈열반경〉의 집필과 관련한 성지순례를 이미 지난해부터 계획했었다. 소설의 신선도를 높히고 자신의 작가적 시각교정등을 위해 경전소설 집필에 앞서 꼭 인도를 다녀오고 싶었다는 정씨는 구효서, 윤재림씨와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인도의 성지를 다녀왔다.

"인도는 그 자체가 거대한 경전이다. 소설의 윤곽이 잡혀서 기쁜게 돌아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구효서씨도 기획중인 장편소설의 내용이 인도 마우리 왕조의 아쇼카왕 일대기를 다루고 있어 인도 여행은 매우 많은 것을 안겨다 줬다고. 그는 이번 여행에서 인도의 풍습과 인도인들의 정신까지를 배낭에 담아서 돌아와 곧 바로 장편을 쓸 계획이다. 최근 시집(황천반점)을 낸 윤씨는 이번 여행을 소재로 〈천축알기〉를 쓸 계획도 세우고 돌아왔다.

지난달 12일부터 24일까지의 일정으로 다녀 온 하수경교수의 인도 여행은 이번이 두번째. 하교수는 89년 1월 캘커타 북쪽의 부다가야, 사르나트, 루시나가라등지를 여행하며 인생과 인간에 대한 새로운 사고의 틀을 정립, 자신의 화폭에 큰 변화를 가져 왔었다. 두번째 여행을 마친 하교수는 "현대적 물질문명과 각종 유적들의 공존 속에서 인류 정신 문화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었다"고 소감을 간추렸다.

한·인문화연구원 회장 김양식교수(서울대)의 경우 이미 수차례의 인도 여행을 통해 인도의 풍습과 역사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시에도 다양하게 인도의 정서를 반영시키고 있다. 그래픽 디자이너 안상수씨, 사진작가 안장헌씨, 소설가 강석경씨, 도부조작가 임효씨, 시인 문정희씨 등도 각각 1~2회씩 인도를 여행한 불자 예술가들.

인도를 다녀와 인도 기행잡을 낸 대표적인 인물로는 법정스님과 고은씨가 꼽힌다.

89년 11월부터 석달간 인도 지역을 방문했던 법정스님은 사진과 여행소감을 곁들인 〈인도기행〉을 통해 각도시의 역사와 유물, 부처님 성지에서의 감회등을 현장감있게 보여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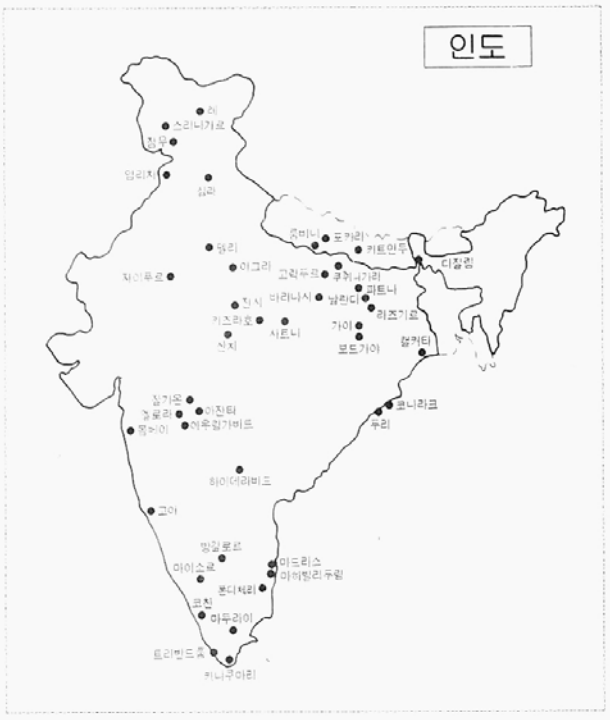
고은씨도 93년 9월에 인도지역을 순례, 〈신왕오천축국전〉을 펴냈다. "화엄경 속 어린 구도자 선재의 편력을 떠올리며 여기저기를 떠돌았다"는 고은씨는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거나 말거나 인도는 옛모습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고 인도에 대한 인상을 밝혔다.

인도라는 나라가 갖는 문명의 정체성이 세계의 예술가들을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것이 인도를 다녀 온 예술인들의 느낌이다. 특히 불자 예술인들은 "인도여행은 창작활동의 필수과목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한결같은 의견을 내놓고 있다.

불자 예술인들이 주로 찾는 코스는 부처님 4대성지 보드가야, 루쉬나가라, 룸비니, 바라나시 지역. 바라나시 인근의 사르나트도 중요한 여행지다. 초전법륜성지 녹야원이 있기때문.

특히 사르나트 박물관의 유물들은 여행자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여행자들의 체험담이다. 이밖에도 중서부 인도가 여행가들이 관심 갖는 지역이며 네팔, 태국, 대만등지와 연결하는 페키지 코스도 각광받고 있다.

〈임연태 기자〉



보림사 발견 물경 국보급 희귀본

지난달 22일 전남 장흥 보림사 사천왕상에서 발견된 약 250책(冊)의 고서들은 대부분 고려 말~조선 초기의 국보급 희귀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발견된 고서 가운데는 〈반야심경〉(1411) 등 15~17세기 조선 초에 간행된 불경과 스님들의 전기 등이 많아 당시 사회상을 파악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불경언해본들이 무더기로 포함돼 있어 국어사 연구에도 획기적인 자료가 될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 13일부터 보림사 발굴 고서들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온 순천대 박물관(관장 조원래)은 지난달 26일 사천왕상의 무릎·발등에서 발견된 고서들 가운데는 〈고봉화상선요(高峰和尙禪要)〉(1358) 등 최고 관본의 경전들을 비롯, 〈몽산화상 육도보설(蒙山和尙六道普說)〉(1575·해남 금강사 刊) 등 간행 여부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미공개본 10여권이 포함돼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처음 발견된 고서들은 〈몽산화상 육도보설〉 외에도 △〈육경합부(六經合部)〉(1456) △〈계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구결), 〈초발심자경문〉(1567·쌍계사) △〈불설대보(佛說大報) 부모은중경〉(언해본·1573·김제 흥복사) 등 10여권에 달하고 있다.

박물관측은 이와함께 〈고봉화상선요〉 외에도 〈불조삼경(佛祖三經)〉, 〈육경합부〉, 〈경덕전등록(經德傳燈錄)〉 등 6~10권의 고서들이 고려 때 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은 현존 최고의 관본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일진왜란 이전의 고서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발견된 것은 매우 드문일로서, 이들은 고려, 조선시대 인쇄문화 및 언어, 사회상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와관련 문화재관리국의 한 전문위원은 "고려 말기의 불경은 희귀해 최소한 보물 지정 대상"이라고 말했다.



◇보림사에서 발견된 〈계초심학인문〉의 첫장.

'고봉화상선요' 등 2백50여권
14C 인쇄문화·언어 연구자료

인터뷰

대행스님 풀이 반야심경
찬불가 작곡 변규백 씨

한마음선원 선원장 대행(大行)스님의 '뜻으로 푼 반야심경'이 찬불가 작곡가 변규백씨에 의해 대형 합창곡으로 작곡됐다.

"한 글자의 첨삭도 없이 완문 그대로를 곡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사가 길어 음절 구분하기가 다소 힘들었다는 변규백씨는 '뜻으로…'를 8분25초 분량의 곡으로 완성, 올 봄 한마음선원 합창단이 초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차례의 작곡을 한 후 다시 전면 수정을 하는등 1년 6개월간에 걸친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진 이 합창곡은 극악관현악을 동원하는 대형 합창곡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독창, 중창으로도 부를 수 있는 것이 특징. 또한 변씨는 선창자가 앞소리를 메기고 대중이 뒷소리를 합송하는 장엄 염불곡 형식으로도 불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회에서 흥겹게 부를 수 있도록 장단을 우리의 전통 가락인 굿거리, 중모리, 자진모리에 맞춰 작곡 했습니다. 반주는 피아노나 오르겐만으로도 가능하며 합창을 위해서는 국악 관현악이 좋을 것입니다"

한자 반야심경이 갖는 의미 전달의 어려움을 한글로 풀어 극복시킨 가사에 경쾌한 전통 가락을 붙인 '뜻으로 푼…'은 반야심경과 찬불가 대중화에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는 변씨는 "이 곡은 불자면 누구나 불러야 할 신행의 필수곡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문 반야심경은 변규백씨가 최초로 작곡했었으며 이어 서창업, 김동환씨등이 작곡 했다.



18개월 작업…8분25초 대작
올봄 한마음선원 합창단 초연

불심시심 〈13〉

뜰 그득한 꽃잎

語柳驚聲滑 (어류앵성활) 버들과 대화하는 꾀꼬리 그 소리 매끄럽고
飄天燕舞斜 (표천연무사) 허공을 가르는 제비 춤 사선으로 비꼈다.
春風惟可惜 (춘풍유가석) 봄 바람만은 애석하구나.
吹落滿園花 (취락만원화) 정원 가득히 불어 날리는 꽃잎.

이 시는 조선조의 큰 스님 청허당(淸虛堂) 서산대사의 시이다. 제목을 상춘(傷春)이라 하였으니 가는 봄이 아쉬워서 읊은 것이다.

가는 봄을 애석해 함이 너무 세속적인 정에 얽매이어 세속을 벗어났어야 할 스님의 시답지 않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점이 스님의 선적 경지라 하겠다. 그야말로 세간을 벗어나서 이 세간을 바라보는 자세 곧 종성입범(從聖入凡)의 경지이어야 가능한 것이다.

열흘 붉은 꽃이 없다고 말했듯이 피었는가 하고 바라보면 벌써 지고 있는 것이 꽃의 세계이다. 아니 이것이 바로 자연의 진실이요 인간세사의 한 단면이다. 그러면서도 애석히 여기는 것이 사람살이의 당연함이다. 그러나 그 애석함을 애석함으로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애석하게 여겨지게 되는것이 그와 맞서서 즐거이 보게 되는 또 다른 자연이 있기에 그러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연록색으로 짙게 어우러지는 버들가지 사이에 꾀꼬리의 노래가 있고, 하늘을 가르는 빗금에는 제비의 날씬한 춤이 있다. 이러한 배경이 있어서 지고 있는 꽃이 애석한 감정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 꾀꼬리 노래 제비 춤의 희열과 지는 꽃의 애처러움의 조화가 바로 자연의 실상이요 그것 자체가 진여의 여여함이다.

스님의 시는 이렇듯 자연의 실상 그대로를 보여주면서 그 안에 있는 법체의 실상을 보여주는 묘미가 있고 아울러 시는 시 자체로서 만족함을 갖도록 함에 있어 누구보다도 한 수 높은 격조를 가지고 있다.

이 시에 있어서도 시는 시로써 만족한다. 버들과 대화하는 꾀꼬리, 배경으로 삼은 하늘을 춤사위로 가르는 제비와 같은 자연 사물의 어우러짐을 짚은 시어에다 담는 수사적 기교는 스님 이전에 바로 시인의 시적 구도인 것이다.

이점 때문에 스님은 선사이자 시인인 것이다.

이종찬 〈동국대학교 교수〉

"만해, 禪 대중예술화 기여"

이경교씨 東大 박사논문



한용운스님과 이육사 그리고 이상(李箱)을 통해 우리 문학의 '전통과 혁신'의 역사적 구체성을 조망한 논문이 나왔다.

동국대대학원(국문학과) 94년도 후기 박사논문으로 시인 이경교씨가 「한국 현대 시정신의 형성과정 연구: 한용운, 이육사 그리고 이상을 중심으로」란 제목으로 제출한 이 논문은 이들 3인의 시인을 "전통의 침전과 혁신이라고 하는 동일한 곤의 양끝을 접유하고 있는 가장 적합한 모델들"로 간주, 이들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시 속의 정신사를 분석했다.

이씨는 논문에서 "현대시의 정신사는 한국인의 종교적 믿음과도 관련을 가지며, 특히 불교와 유교의 종교적 매듭은 한국인의 문화적 성향이나 인생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것 못지 않게 근대화 과정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한용운의 시정신을 떠받치고 있는 정신의 힘은 바로 '자아 탐색'의 수행과정을 서정화한 세계였으며, 그런 점에서 한용운은 불교의 대중화, 선(禪)의 예술화를 대중적으로 이끌어 낸 최초의 시인이었다"는 것이 이씨의 평가다.

이씨는 "우리시의 시정신에서 불교적 인생관이 부각되는 이유는 불교의 잠재력이 지닌 각성(覺醒)의 요소"라고 전제하고, "세계의 자아화라고 하는 시의 속성에서 해석할 때, 불교라고 하는 종교적 신비가 예술의 옷을 입고 서정화한 세계를 선시(禪詩)라고 한다면, 선시야말로 불교의 꽃이며, 정신의 꽃"이라고 말했다.

'굴렁쇠어린이' 제호변경 '동쪽나라'로 발간
모든 어린이에 유익한 잡지…읽을거리 풍성



교계유일의 어린이 전문잡지 「굴렁쇠 어린이」가 「동쪽나라」로 제호를 변경하고 더욱 다양한 내용으로 나왔다.

3월호부터 24면이 증면돼 총132면의 지면에 상원사 월정사 인월사등의 '국토순례' 캄보디아편 '부처님 따라가는 세계여행' '광복 50주년 기념 태백산 호랑이 신돌석장군' 팔만대장경을 통해 배우는 '조상의 지혜' 화제의 인물을 찾아가는 '만나고 싶었어요' '진단, 국민학교 선거문화' 등으로 꾸며진 「동쪽나라」는 기존에 표방했던 불교정신에 문화·전통·역사부문을 대폭 첨가, 전통문화에 얽힌 겨레의 얼과 조상의 슬기를 포괄적으로 담아낸다.

특히 단군건국 신화의 고대사에서 근대사·현대사까지의 역사를 담아 내는 '이야기 역사탐험·밝음의 나라'는 어린이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불교성지순례

파키스탄 간다라 불교유적 순례 9일
※ 대한항공 특별전세기편으로 편안하게 다녀오세요
· 출발 : 5월 13일(단1회) · 동참금 : 140만원
· 일정 : 서울－이슬라마바드－탁실라(자울리안 불교대학 터)－스왓(붓카라, 타킷바이)－탁티바히－페샤와르－라호르－이슬라마바드－서울

티벳·네팔 10일
· 출발 : 4월 8일 · 동참금 : 230만원
· 일정 : 서울－카트만두－라사－체탕－장체－시가체－라사－카트만두－서울

미얀마·태국 7일
· 출발 : 3월 20일 · 동참금 : 135만원
· 일정 : 서울－방콕－양곤－과간－만달레이－페구－양곤－방콕－서울


파키스탄 라호르 박물관 소장(부처님고행상)

인도·스리랑카 15일
· 출발 : 3월 19일 · 동참금 : 215만원
· 일정 : 서울－델리－럭나우－발람푸르－룸비니－쿠시나가르－바이살리－파트나－나란다－라지기르－부다가야－바라나시－아그라－델리－오랑가바드(엘로라·아잔타)－봄베이－콜롬보－아누라다푸라－폴론나루와－덤불라－아루비하르－캔디－콜롬보－싱가폴－서울

인도·네팔·태국 10일
· 출발 : 4월 21일 · 동참금 : 150만원
· 일정 : 서울－방콕－델리－사르나트－부다가야－파트나－나란다－영취산－죽림정사－바이살리－쿠시나가르－룸비니－카트만두(보드넛·스와이앰부넛)－방콕(새벽사원 에메랄드 사원)－서울

스리랑카 6일
· 출발 : 3월 24일, 4월 21일 · 동참금 : 118만원
· 일정 : 서울－콜롬보－아누라다푸라－하바라나－폴론나루와－시기리야－하바라나－덤불라－아루비하르－캔디－콜롬보－서울

인도네시아 5일
· 출발 : 4월 16일 · 동참금 : 95만원
· 일정 : 서울－덴파사－족자카르타－자카르타－서울

대만 5일
· 출발 : 4월 21일 · 동참금 : 65만원
· 일정 : 서울－타이페이－고웅－화련－타이페이－서울

■ 여행조건 ●특급 및 1급(인도성지지역은 현지최고수준) 2인 1실 기준 ●전일정 식사제공(인도성지지역은 한식제공) ●최소 출발인원 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

HYECHO ADVENTURE TOURS, LTD. 혜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 544-1533 (代)

방송 단신

21시간 생활정보·뉴스 전달

불교광주방송 개국

불교광주방송이 1일 개국, FM 89.7MHZ 3W 출력으로 전남·북 일원에 포교전파를 발사했다.

매일 새벽 5시 아침예불로 시작하여 다음날 02시 사홍서원을 끝으로 하루 21시간 방송하는 불교광주방송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포교, 신행프로그램과 매시간 뉴스, 오락, 생활정보등을 방송한다.

불교광주방송은 지난 3일 오후5시 신양파크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국축하법회를 봉행했다.

<광주 자체제작프로>

◇열린아침 열린정보(월~토, 오전 8시 30분~8시 55분): 지역정보 프로그램으로 매일 애향 남도의 주간 문화계 소식과 취업정보, 농사정보, 신간안내로 이루어지며 광주 전남·북 지역의 사찰 명승지를 소개하고 향토사랑 연중 캠페인으로 '자연과 환경을 살립시다'를 펼친다.

◇반야의 샘(월~토, 오후 4시10분~4시40분): 백제불교문화의 이해를 알기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이다. 명소를 찾아 소개한다.

분혀있던 호남지역의 신행단체를 탐방하여 호남불교의 살아있는 맥박을 전하며 '89.7MHZ 게시판'을 통해 호남지역 불교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BBS, 출가·열반절 특집

불교방송은 3월 8일 출가절과 3월 15일 열반절을 맞아 경건주간 특집프로그램을 방송한다.

8일 출가절에는 특별좌담 '출가정신의 구현'(20:05분~20:55분)을 마련하여 진정한 출가정신과 이시대의 구현방향을 스님,재가자가 참여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스님들의 출가당시 초발심과 행자시절의 이야기를 녹음구성으로 제작하는 '나의 출가시절'(19:20분~20:00분)과 특별법문 '출가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가 방송된다.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진정한 출가정신과 출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큰스님의 법문으로 듣는다.

15일 열반절에는 쿠시나가라에서 열반하신 부처님이 후세에 남긴 교훈은 과연 무엇인지를 밝혀보는 특별좌담 '열반의 교훈'(20:05분~20:55분)이 방송되고, 큰스님들의 열반송을 들어보는 '니르바나의 향기'(19:20분~20:00분)와 스님의 특별법문 '절대평화로서의 열반'(10:05분~10:55분)을 통해 열반이란 말의 참된 의미와 그 현대적 의의를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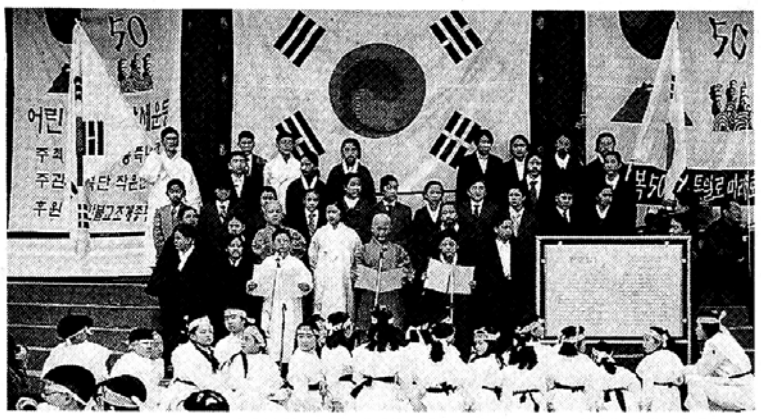
지난해 순이익 총 12억원

불교방송 결산이사회

불교방송 94년도 결산이사회가 지난달 27일 20명의 이사 중 17명의 이사가 참가한 가운데 신라호텔 23층 에뜨와르 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94년도 당기순익 12억 6백만원의 결산안이 통과되고 3·4월로 임기가 마감되는 5명의 이사 재선임건이 심의됐다.

이날 이사회는 서의현이사를 제외한 4명의 이사를 유임시키고 감사에 이재화(공인회계사)씨가 선임됐다.



독립만세의 함성 지난 1일 탑골공원에서 월간 '동쪽나라' 주최로 구룡사·석왕사·조계사 어린이회, 교동·재동국민학생 500여명이 3·1독립 만세운동을 재현했다.

3·1운동 그날의 얼 되새겨…

백일장등 기념행사 다채

3·1절 76주년을 맞아 전국적으로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린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졌다.

대불청(회장 이상번)은 3·1절 기념행사로 중앙지국과 대구지구에서 '제16회 만해백일장'을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중앙지국에 한국예술신학대학의 윤종란씨가, 대구지구에 주부 김 희씨가 각각 만해대상을 차지했다.

실천승가회(공동회장 청화·지선스님)가 참여하고 있는 종교인협의회가 주최한 '기미독립운동 제76주년 종교인 기념식'도 회원과 시민 2백5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난 1일 오후 3시 독립공원에서 거행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락스님(조계종 포교원장),지원스님(실천승가회 상임지도위원),함세웅신부,장성룡목사,원불교 서경전교무 등이 참석했으며, 지선스님의 '종교인 통일선언문'낭독후 만세삼창이 이어졌다.

이들 종교인협의회는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등 통일을 위한 행동강령을 채택했다.

관음종(총무원장 흥파스님)도 이날 오전 10시 탑골공원에서 '광복 50주년 기념 3.1운동 순열 추모 법회'를 열고 독립운동 순국열사 33인 추모 법회를 봉행했다.

또한 총무원장 송월주스님도 3.1절 76주년 기념 담화문을 발표하고 "모든 불자들은 3.1운동 정신을 되살려 후손에게 물려줄 자랑스런 조국 건설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청정스님(원각사 주지)은 오전 8시 탑골공원에서 어려운 한자로 된 독립선언서를 우리말로 쉽게 풀이한 「새」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의 의미를 되새겼다.

"우리들은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사람이 남의 간섭을 받지 않는…"로 된 우리말풀이 독립선언서에 대해 청청스님은 "관심있는 학자와 전문가들이 다듬고 보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든 것 인연이라 믿을 뿐"

팔공산 암자 생활…정신과 혼 조계종 떠날 수 없어

전 조계종 총무원장 의현스님



작년 4월 조계종을 떠났던 전총무원장 의현스님이 지난달 28일 불교방송 재단이사회에 공식적으로는 처음 참석해 눈길을 모았다.

-그동안 어디서 지내셨습니까.

▲대구 팔공산의 작은 암자에서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8년간 재임기간에 대해 평가받지 못한 채 종단을 떠났는데….

▲종단을 위해 하루 3시간씩만 잠을 자면서 분골쇄신 했던 8년이었습니다. 지금와서 평가를 받느니 못받느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종단의 재산만큼은 잘 지켰던것 같습니다. 누구도 땅 한뼘 파는 것을 허용치 않았잖습니까.

-개혁회의로부터 중징계를 받으신 것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징계 이전에 스스로 종단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정신과 혼은 결코 조계종을 떠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종단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옛스님이 말씀하시길 '모든 일을 도에 기준두고 한결같이 전생의 인연이라 믿으라' 했으니 그 뜻을 따를 뿐입니다.

-불교방송의 이사직을 그만두시게 되었는데.

▲그것역시 여러 이사들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제가 불교방송 설립당시 개인 출연금을 출자해서 얻은 지분이지만 인연이 닿는대로 따르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지요.

▲공부해야지요. 그리고 길을 닦아야지요.

-어떤 길을 뜻하는 겁니까.

▲인연이 다하면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저 세상으로 가는 길을 닦겠다는 것입니다. 〈태〉

목탁소리

출가절, 삼밀스님의 교훈

임 연 태 〈취재2부 차장〉

지난달 24일 입적한 삼밀(三密)스님은 출가절을 맞는 불자들에게 몇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남겼다.

무엇보다 우리는 스님의 이력을 통해 변함없는 초발심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다. 스님은 젊은 시절 가볼릭에 귀의 했었다. 전주의 한 성당에서 평신도회 대의원까지 지냈다는 것은 스님의 종교에 대한 의지가 남달랐음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운수업, 산판등을 10여년간 경영하던 생활인 이의복(삼밀스님의 속명)이 43세의 나이로 해인사 백련암을 찾아간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 가야산 호랑이 퇴옹당 성철스님을 찾은 가볼릭 신자의 눈빛도 의구심이 가는 것이지만 그를 흔쾌히 받아 계를 설하고 법명을 지어준 스승의 마음도 미궁속의 불빛 같은 것이 아닐까.

어쨌든 삼밀스님은 일생 일대의 고뇌와 번민을 출가라는 혁명적인 몸짓으로 불태웠고 축발염의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후 스님은 매서운 다짐의 초발심을 한 순간도 놓지 않았다. 서울 절에서 아무리 일이 많아도 결제철이 되면 어김없이 해인사 선방에 가 앉았다. 단 한번도 재가자들에게 공양(식사)하는 모습 잠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출가자로서 수행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는 물론 정신적 신념도 굳건히 지킨 것이 삼밀스님 이력에서 가장 눈부신 부분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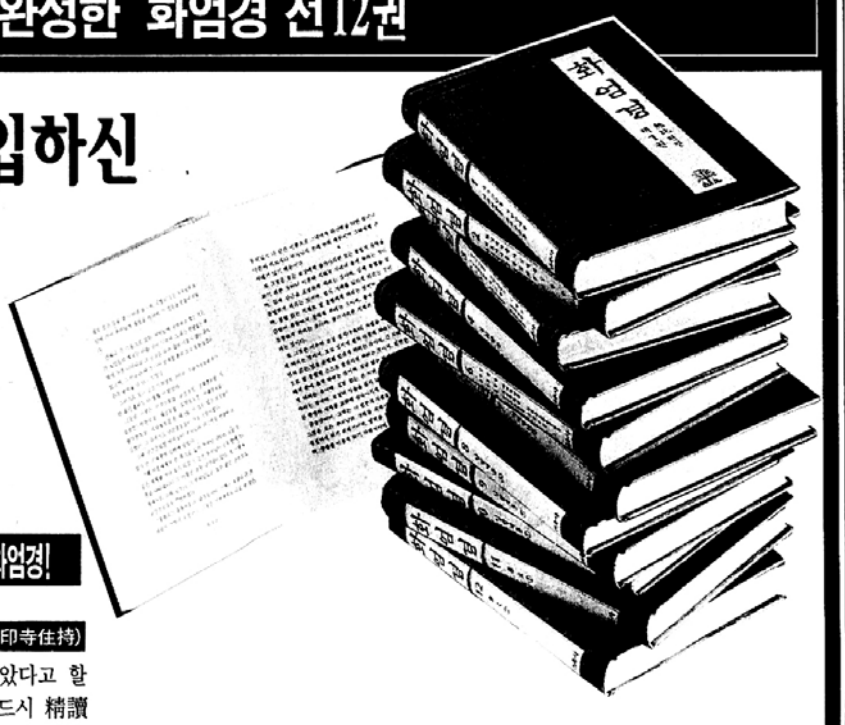
또 스님은 어려운 절 살림을 꾸리면서도 오갈데 없는 아이들을 10여명이나 길렀다. 정릉 삼정사가 늘 꺅스님으로 방이 모자랐던 점도 스님의 인덕을 대변하는 한 단면이다. 그같은 인덕은 태국 대사관들이 늘 삼정사를 찾아 기도를 하게까지 했다. 입적 하던날 낮에 속가 자모(慈母)의 제사를 올렸던 것도 스님의 효성을 말해 주는 것인데 이제 그날이 스님의 기일로 기록되고 만 것은 무슨 숙업의 인연일까.

5천여 불자가 이미 화엄경을 모셨습니다!

화엄경의 大講主 無比스님이 10년의 각고 끝에 완성한 화엄경 전12권

발간 두달만에, 無比스님 완역 한글화엄경을 구입하신 5천여분의 불자가 불교 최고의 경전인 화엄경의 세계를 확인하셨습니다.

80권本 화엄경의 완역판!



이제 화엄경도 쉽게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민족사판 한글화엄경 전12권은, 80권本 화엄경을 모두 한글로 완역하여 읽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엄경의 전 내용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락을 나누고 상세한 소제목을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미려한 편집과 큰 활자, 최상의 고급지 사용, 영구보존판 양장으로 제책되어 있습니다.

또한 中國 天童山판 80화엄경 원문을 두 권에 수록하였고, 화엄경의 주요 어휘를 알기쉽게 풀이한 〈華嚴經小辭典〉을 발간하여 독자들에게 편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無比스님 완역 민족사판 한글화엄경의 특색입니다.

무비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에 대한 언론의 격찬!

— 도서출판 민족사가 펴낸 무비스님 완역 《한글화엄경》 전12권은 入法界品을 비롯해 80권本 華嚴經 전40품을 모두 한글로 옮기고 뒤에 원문을 붙여 참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전의 긴 내용을 단락을 나누고 소제목을 붙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 조선일보 —

— 이 책은 한국불교의 사상적 원천인 화엄사상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한국일보 —

— 무비스님 완역 한글화엄경은 단순한 번역이 아닌 경전의 치밀한 내용 파악으로 연구자와 일반인 모두에게 잘 읽히도록 번역편찬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 불교신문 —

대덕스님과 석학들이 한결같이 권하는 무비스님 완역편찬 한글화엄경!



李 智 冠 스님(哲學博士, 前東國大 總長, 現 海印寺住持)
누구나 화엄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불교를 알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불교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精讀하여야할 책이라 생각되어 藏書로는 물론, 특히 젊은 학인스님과 불자들에게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金 知 見 박사(文學博士, 韓國精神文化硏究院 敎授)
우리 한국인의 정신세계에 가이없는 자양을 이루어 온 경전은 화엄경입니다. 불자 여러분에게 無比스님의 완역편찬 한글화엄경을 삼가 추천하는 바입니다.



權 奇 悳 박사(哲學博士, 東國大學校 佛敎大學 學長)
화엄경을 바르게 읽고 실천하는 길이 바로 우리나라 불교의 얼을 되살리는 일임을 불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무비스님 완역편찬 한글화엄경의 수지독송을 권하는 바입니다.

보다 편리해진 구입방법 및 특전

1. 특가 전 12권 160,000원(2회 분할)(각종 카드로도 구입 가능)
2. 신청 즉시 택배나 소포로 보내드리며, 화엄경소사전과 화엄변상도(1장), 화엄경 강연테이프(무비스님, 고은선생) 2개를 증정합니다.
3. 송금방법: 아래의 은행구좌나 소액환을 이용하십시오.

(조흥은행) 390-01-033705 민족사 (제일은행) 130-10-080370 윤재승
(농 협) 032-01-088461 윤재승 (외환은행) 059-18-17838-6 윤재승
(우 체 국) 010041-0097045 윤재승 (국민은행) 023-01-0225-854 민족사
(신탁은행) 15504-0475103 윤재승 (상업은행) 113-04-101987 민족사

도서출판 민족사 우편번호 110-130 서울 종로구 청진동 208-1
전 화 : (02)732-2403~4, 722-7679
팩 스 : (02)739-7565

지방취급서점 : 부산 : 고려불교예술원(807-6842) 삼장원(464-2696) 불교전시관(647-7393) 영광도서(816-9500) 경공포교사님(부산 334-3035, 휴대폰 011-572-3007) 부산불교문화사(466-3884) 광주 : 불일서점(232-7542) 대전 : 보문서점(257-0161)

비구니 노후복지시설 최초 건립

논산군 양촌면 4천6백여평 대지에 아파트형 사찰…방 108개 입주신청 완료

비구니스님들이 노후에도 편안하게 수행정진할 수 있는 대규모 종합승려노후복지시설이 교계 최초로 건립되고 있다.

충남 논산군 양촌면 오산리. 절글로 불리워지고 있는 한적한 마을 4천6백여평의 대지에 세워지고 있는 봉선사(가칭)는 비구니스님들의 노후 복지시설이다.

8정도 모형으로 3층과 4층 규모의 아파트형 6개동으로 공사중인 봉선사에는 총1백8개의 개인방과 대웅전, 명부전, 선방, 지대방, 식당, 요사채 등이 현대식으로 두루 갖추어 진다.

아늑한 산 기슭에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 봉선사는 이미 입주신청이 완료된 상태라고 주위에서 귀띔한다. 이같은 대형불사는 지견스님(강경 봉선사 주지)을 비롯 10여명의 비구니스님들이 노후복지를 위해 원력을 모아 이뤄졌다.

공사가 시작되면서 입주신청이 완료된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교계에는 스님들이 노후에 편안하게 수행정진할 수 있는 시설이 진각종등 몇몇을 빼고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지난해 (주)현대리서치연구소에서 전국 비구니스님 573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68.6%의 비구니스님들이 노후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님들은 '노스님들을 위한 양노시설이 마련되면 이용의향이 있다'고 답해 노후의 거처, 건강, 경제력 등 스님들의 체계적인 노후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교계에는 진각종이 각 심인당에서 수행과 포교를 하다가 정년퇴임한 65세에서 70세이상의 스승을 위한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다. 태고종은 스님들의 의료혜택을 위한 공제회를 운영중이고 천태종은 종단차원의 연금을 들어 노후복지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한편 내년초 스님들의 요양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조계종은 법령에 「승려노후복지원 설치령」을 마련 승려노후복지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논산=김중근기자〉



◇ 4천6백여평 대지에 팔정도 모형 6개동으로 세워지고 있는 비구니 스님들의 노후복지관. 이미 입주신청이 완료됐다.

남북 불교지도자법회 北에 제의

평불협 예비 실무접촉 이달 중 공식 요청

평불협(회장 송월주)은 지난 2일 오전 10시 평불협 사무실에서 가진 교계내외기자회견에서 '제2차 남북한 해외 불교지도자 합동 통일기원 법회 및 간담회' 개최(미국L·A 관음사)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예비실무접촉을 3월중에 갖자고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에 공식제의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법타스님(평불협 상임부회장)은 "2차대회는 오는 4월개최를 원칙으로 조국통일 기원 합동법회를 비롯해 남북 기본합의서에 따른 불교도의 역할에 대한 간담회와 남북친선도모 행사를 가질 예정에 있으며 북측의 답신이 오는대로 일정을 곧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차 대회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지난달 20일 통일원으로부터 북한접촉승인을 받았다"고 밝히고 '지난해 6월 일본 오사까에서 조불련 대표와 95년 4월경에 2차 대회를 열기로 합의한만큼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가 성사될 경우 남한 불교대표자로는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 법타스님, 운허스님(천태종 총무원장), 도안스님(미국L·A관음사 주지)과 미국, 일본의 불교지도자도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평불협은 지난 91년 10월 미국 L·A에서 제1차 해외 남북 불교지도자 합동법회를 가진바 있으며 종교계에서 북한주민접촉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불교인 교류 합의

제1차 한·태불교대회

한·태불교협회(회장 법장스님·수덕사 주지)와 태·한불교협회(회장 쁘라탑마빤야보디스님)는 지난달 16일 태국 방콕 불다몬톤 국제센타에서 제1차 한태국제불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 양측 회장단은 토론을 거쳐 다섯 항의 합의안을 마련, 협정서에 서명했다. 협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평화를 위해 양국 불교는 공동으로 노력하며 그를 위해 양국 승려 한명씩을 교류한다. △양국 불교 수행방법의 상호교류를 위해 개인적으로나 집단으로도 시행한다. △승려나 재가불자의 교류를 실시하며 양국 사찰에서 항공료를 제외한 일체의 체류비를 제공한다. △양국 교민들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법적보호의 상호주의 원칙을 존중한다. △제2차 대회는 96년 10월에 한국 서울에서 개최하되 구체적인 시행을 양국 사무처에서 기획 조정한다.

〈관련기사 6면〉

교계전화상담 4곳연합

9기 카운슬러대학열어

24시간 전문전화상담기관 자비의 전화(회장 정덕스님)가 오는 4월 제9기 카운슬러 대학을 교계 전화상담관련기관과의 연합으로 개최한다.

이번 연합교육은 자비의 전화와 진리의 전화(구룡사), 법우상담실(능인선원), 봉은상담실(봉은사)등 교계 4개 전화상담기관이 지난 23일 상담기초교육을 연합 실시키로 합의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됐다.

오는 4월 3일 첫강의를 시작으로 총 13회에 걸쳐 진행되는 전화상담 연합교육 은 앞으로 각 상담기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과 연대를 이끌어 나갈 전망이다.

불교 전문책방
여시아문 737-0695

조계종 포교국장단 연수회

9·10일 법주사 사업계획 설명

조계종 전국 포교국장단 연수회가 오는 3월 9·10일 양일간 법주사에서 개최된다.

21세기 종단의 포교방안을 논의하게 될 이번 포교국장단 연수회의 강연 주제는 △한국의 종교현황과 포교의 과제 △21세기 한국사회의 전망과 불교의 역할 △지방화시대 사찰의 위상과 역할 등이고 포교에 대한 분임토의와 사례발표가 있게 된다.

선본사문제 진상조사

조계종 중앙종회

선본사 문제의 진상파악을 위한 조계종 중앙종회 차원의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 선본사 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영담스님)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갖고 오는 13일 정우, 명권, 성광, 혜창, 초우스님과 이세호씨를 재소환하고 탄성스님을 방문 증언을 청취하기로 했다.

위대한 버림 참나를 찾는 길 불교도 경건주간 3월 8일~15일

경건주간 '이웃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 수계식·무료진료 등

3월8일 부처님 출가절과 15일 열반절을 맞아 경건주간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조계종 총무원은 오는 8일 오전 10시 조계사 법당에서 경건주간 입재식으로 경건주간 행사를 시작 오는 11일 오전 11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월주 총무원장 스님을 계사로 총무원, 외국인 노동자, 정신대 할머니, 조계사 신도등을 대상으로 수계식을 갖는다.

또한 14일 오전 11시에는 포교원 주관으로 신행 혁신 대정진 법회가 개최된다.

경건주간 동안에는 전국 각 사찰에서 8일부터 15일까지 철야정진법회가 봉행되며 '깨달음의 사회화' 성금모금도 계속된다. 각 지역별로 양로원 고아원 위문 및 무료진료등 부처님의 출가, 열반정신을 계승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

진각종 심인당 건설 주민 집단민원 '지연'

진각종이 최근 인천 남구 주안1동지역에 추진중인 심인당 건설 공사가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지연되고 있다.

진각종은 인천 남구 주안1동 226-123호 부지에 건축면적 1백88평방미터로 지하1층 지상2층의 심인당을 짓기로 하고 지난해 11월22일 인천시 남구청으로부터 종교시설을 주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일부 주민들이 무조건 절은 들어설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

주민들이 심인당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주변 땅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 심인당이 정신병자를 수용하는 정신병동을 가질 것이라는 것, 90%이상의 주민동의를 받고 짓겠다는 약속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남구청과 심인당측의 입장이다.

진각종의 홍교부장은 "남구청에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가진 뒤 건축허가가 떨어졌고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규사찰 재산처분 반대

태고종 보현도량 정기총회

태고종 보현도량(회장 재홍스님)은 지난 1일 능인사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94년도 사업결산과 95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태고·조계간의 분규해결을 위한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분규사찰 재산처분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입장료수입 1%적립

조계종총무원 문화사회부(부장 시현)는 지난달 20일 직지사에서 관람료사찰 주지회의를 열고 입장료수입의 1%를 적립키로 했다.

관람료사찰 주지스님들은 이날 회의에서 입장료수입의 1%를 자율적으로 분담하고, 관람료 조정등 현안문제는 관람료사찰 현안개선대책위에 위임키로 했다.

적립금은 관람료사찰의 현안개선 및 성보관리에 쓰인다. 관람료 징수사찰은 59곳이며, 이가운데 조계종소속은 57곳이다.

부산불교신협 정기총회

부산불교신용협동조합(이사장 사상호)은 지난달 25일 부산 범일동 소재 신협법회실에서 제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조합원은 사상호 이사장을 재선임하고 금년 자산목표를 1백10억원으로 설정, 목표달성을 결의했다.

한편 부산불교신협은 공로 조합원 10명에게 현대불교신문 1년 구독권을 증정했다.

부산해양병원 개원

지난해 불교재단 통불원에 의해 인수된 부산 해양병원이 기존의 2층병동을 증개축, 지하1층 지상 4층의 30여 병상을 갖춘 종합건강진단센터로 모습을 갖추고 지난달 18일 개원식을 가졌다.

해양병원은 이날 개원식과 함께 제1회 해양병원 장학회를 설립, 장학금 1천5백만원을 불우청소년 및 선원자녀 30명에게 전달했다.

유해환경 감시단 발족

대한불교 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지부장 선일스님)가 불교단체로는 처음으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위탁받아 25일 오후 3시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에서 발대식을 갖는다.

신장기증 재미동포 정근수행 보살

한 생명 살린다는 환희심에 "선뜻"



"한알의 씨앗을 뿌려 불교를 위한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신장을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민생활중 일시 귀국해 자기 육신의 한부분을 타인에게 보시하여 생명을 나누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생명공양운동을 몸소 실천한 정근수행 보살의 말이다.

오래전부터 누군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신장을 기증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정보살은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기 얼마전인 지난해 8월 생명공양과 처음으로 인연을 맺고 상임운영위원장 박광서 교수와 신장기증에 대해 상의하던중 미국이민길에 올랐다.

미국 콜도라도에서 생활하면서 생명공양실천본부에 신장기증을 하지않고 온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는 정보살은 얼마전 다리부상으로 잠시 쉬는 기간을 이용, 자비를 들여 한국에 와 곧바로 생명공양실천본부에 전화를 걸었다.

정보살은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합니다'라고 적힌 남편의 신장기증 자필동의서까지 미국서 받아와 신장기증에 대한 자신의 굳은 의지를 생명공양실천본부에 표명했고 이어 한 젊은이에게 새 삶을 열어주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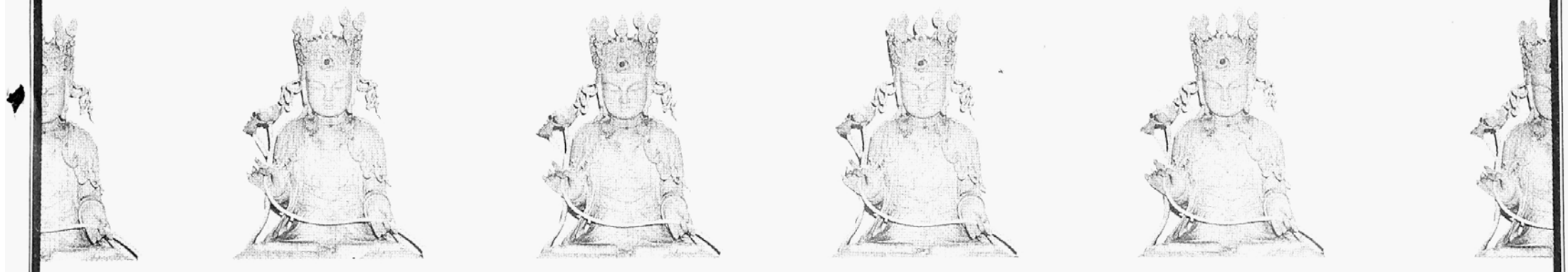
오로지 한 생명을 살려낸다는 환희심으로 모든 힘든 절차들을 기쁨으로 극복, 지난 1월 24일부터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정보살은 기초검사, 혈액반응교차검사, 정밀조직검사등 20여가지가 넘는 각종 검사를 받았다.

지난 3일 신장이식수술을 성공리에 마치고 회복중에 있는 정보살은 "모든 조직이 맞아 신장이식수술을 할 수 있게 된것도 전생의 큰 인연때문이 아닐까요"라면서 자신의 신장기증으로 건강을 되찾은 젊은이가 불교와 인연을 맺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봉사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하기도.

이제 며칠후면 가족들이 기다리는 미국으로 돌아가게될 정보살은 "로로라도 용화사에서 더욱 열심히 정진해 참불자로서의 당당한 삶을 살아가겠다"며 푸른빛 환자복을 입고 환하게 미소지었다.

〈이은자 기자〉

신심 없이 조성된 불구는 한낱 장식물에 불과하다



조용한 법당에 부처님의 고즈넉한 자비, 그 미소를 함뿍 담아가지는 선남자여.
바람벽에 채색된 불화에서 믿음의 새싹이 돋아나는 보살들이여.
일체의 장엄구 불구에서 수천년의 신심을 함초롬히 꽃피우는 불자들이여.
이 모든 존상물, 탱화, 불구, 석물이 어찌 신불의 가피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여기저기 대량으로 제작되는 존상물의 홍수에서 우리의 믿음을 손상하게 된 적이 얼마입니까. 부처님은 거룩하고, 진리는 광명하니 더 없이 높으신 생명의 자랑입니다.

전시관 개원식 : 4월 1일(土) 15:00~18:00



大佛光

신심이 없이 조성된 불구는 한갖 장식물에 불과합니다. 존상은 흙, 나무, 돌, 쇠, 종이로 조성되어야 함은 물론이요, 그 조성에는 장인의 신심과 예술적 가피가 함께 깃들어야 합니다.
이제 여기 여러 장인들이 열어 놓은 "大佛光"에 모든 불자님이 친히 왕림하시어 존상의 신앙성을 우러러보고, 또한 장인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무량한 공덕이 함께할 장엄불구를 조성케 하려 하오니 "大佛光"으로 나오셔서 일가견을 이룬 장인불자들과 상면하시기 바랍니다.
"大佛光"은 부처님을 열망적으로 신앙하는 순수장인들의 공동광장이며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 향사루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관장 허길용 합장



황혼에

그림이 있는 불교에세이

16여년 전이었다.

늦게 대학원을 끝업하고 H대 연구조교로 있을 때였다.

9층 타워 연구실에는 서쪽으로 난 큰창이 있어서 매일 황홀한 저녁노을을 보며 풍아하였고 창에 기대어 꿈꾸며 환상을 즐겼다.

강건너 영등포에 불빛이 하나 둘 켜질때면 하얗게 누워있던 말없는 강물이 백학을 찾으면서 서서히 붉은 도포를 걸치고 몸을 일으켰다.

낮과 밤의 만남 속에 윤회 알게 돼

낮과 밤이 만나 억겁의 인연을 맺는 의식을 주재하기 위해서다.

분홍빛 얇은 천사의 너울을 드리우고 사뿐히 내려오는 낮의 발끝에선, 언제나 구슬소리가 났고 둥구름 휘감은 두 손으로 수줍게 그를 맞는 밤의 모습은 거룩했다.

강은 밤의 머리를 댕기로 치장하고 그를 낮에게 건네주며 또 다른 낮을 잉태케 도운 후 그 붉은 옷자락을 휘날리며 은 하늘에서 격렬한 춤을 추곤 의식을 끝냈다.

불꽃이 다시한번 천지를 밝힌 후 싸늘하게 식으면, 보랏빛 잔조속으로 영면을 향해 돌아서는 낮의 슬픈 모습을 가슴아프게 보았던 것이다. 먼저나온 별들끼리 황혼의 사건을 두고 수근대기 시작할 무렵이 돼어서야 나는 창에서 멀어져서 언제까지나 그대로 명상에 잠기곤 했었다.

왜 낮은 가지 않으면 안되었던가! 그 찬란한 빛은 어디로 갔는가. 왜 시간과 생명의 일에 관한 한, 지상의 모든것들에게는 주어질뿐, 스스로 취할 자유가 없단 말인가라고.

그후 나는 윤회의 이치를 깨우쳤다.

황홀은 나에게 저 강물, 저 미루나무 한 그루가 바로 나의 조상의 몸이었음을 가르쳤고, 분진과 구름 한 조각으로 이루어진 이몸이 내것이 아니어서 돌려주고 가야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맘대로 쓰지도 못하는 시간, 수명, 아, 이생 또한 내것이 아니로구나.

이후 나의 생활은 달라졌고,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하루의 시간속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황혼.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부질없는 것이기에 우리의 삶도 어느때에는 스러지는 풀잎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내 상념의 영토를 가득 채운 것이다.

〈이희자 동양화가〉

믿음으로 찾은 행복 ④

주부신행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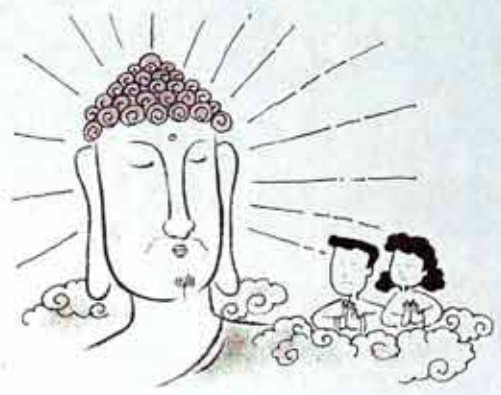
어둠이 길목을 반쯤 차지하고 황혼이 머리를 숙이며 시계바늘을 재촉하고 있던 어느 어스름 저녁, 오랜동안 보지 못했던 동생이 불쑥 찾아 들었다. 한동안 시선을 여기저기 돌리며 무엇인가 곰똘히 생각하는듯해 보이던 모습이 일순간 무너지며 처절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누나 나 입과선 암이래" 고개를 뒤로 돌리고는 더이상 아무 말도 없는 동생의 뒷모습에서 나는 이 엄청난 말이 사실임을 직감했다.

서둘러 여기저기 용하다는 병원은 다 다녔으나 이미 암세포가 퍼져 있어 치료하기 힘들다는 진단뿐이었다. 막막했다. 절망이었다. 이제 겨우 29살밖에 안된 내 동생이 암이라니, 믿기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다. 그렇다고 자포자기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방법을 찾아야 했다. 천길 낭떠러지 같은 절망속에서 찾아낸 방법 그것은 부처님의 힘을 빌리는 것 뿐이었다.

여기저기 이름난 사찰을 찾아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생의 병은 점점 더 악화되어만 갔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전남에 있는 어느 암자의 한 스님을 찾게 되었다. 생사를 넘나드는 우리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듯 "죽고 사는 것이 어찌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겠느냐만은 세상만사 또한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으니 일심으로 정진하며 마음을 한데 모으면 세상에 못할 것도 없다"며 처방아닌 처방을 내려 주셨다.

"나는 불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차피 다른 방법이 없으니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지금의 내 처지로서는 부처님 원력에 기대보는 수밖에 …" 이렇게 말끝을 흐리는 동생을 두고 내려오는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기는 참담함으로 얼룩지고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했다.

"누나, 나 다 나았어. 스님이 시키는 대로 입정하고 발원하고…" 동생은 내품에 안겼다



"이제 우리 미용실도 웬만큼 자리가 잡혔고 봉사활동도 하고는 있지만 우리 직업을 이용해 불우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없이 좋을텐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은 내 심중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두눈만 껌벅이고 있었다. 몇번이고 나를 노려보듯 쳐다본 남편은 "당신 지금 동생이 아파서 다 죽어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랬다. 나는 어쩌면 바로 내 앞에 닥쳐올 동생의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잊기 위해서라도 무엇이든 해야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직업을 이용해 불우이웃을 돕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은 몇년전부터였고 단지 지금 그 생각이 번개처럼 내 머리를 스쳤을 뿐.

"생활이 어려운 불자들에게 무료로 드레스도 빌려주고 신부화장도 해주고 어때요?" "그렇다면 굳이 불자들만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 모두에게 해주는 것이 어떻겠소? 남 돕는데 종교를 가릴 필요는 없지 않겠소?" 어느덧 남편은 이미 종교까지도 초월한 신심깊은 불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자랑스럽고 믿음직스러웠다. 이런 것이 참행복이라는 가슴 저리는 사람으로 다가왔다.

마음먹기에 따라 천국도 지옥도 이생에 있다는 부처님 말씀을 몸으로 느낄수 있었던 한달. 그 한달이 막 자리를 털고 일어날 즈음 불현듯 동생이 마음심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 어둔 하늘 한구석에 동생을 데려다 주었을때 급한 일이 아니고서는 연락하지 않겠다던 동생이었다. 물론 찾아 오지도 말라는 단호한 부탁과 함께.

건강해 보였다. 이상하리만큼 힘이 넘쳐 보였으며 전에 볼 수 없었던 밝은 눈동자는 나를 살레 이개까지 했다. "누나! 나 다 나았어. 스님이 시키는대로 입정하고 발원하고 …" 눈물을 글썽이는 동생은 이미 내 품에 들어와 있었다. 기적이었다. 병원에서도 못고친다던 병이 한달새 나아졌다니 믿을 수 없었다. 현대의학으로,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병원진단결과 역시 거의 치료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이럴수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부처님의 자비였다.

언젠가 들었던 "믿고 있는 것만큼 부처님은 다 들어 주신다"는 말이 이제야 실감났다. '이런거였구나. 믿음이란 이런거구나' "돈 많이 벌게 해달라" "남편 부처님 법 따르게 해달라" 이런 것이 아니었다. '무엇인가 하나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정성으로 관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부처님 법을 이제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병원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쉼새없이 눈물을 닦아내느라 바쁜 손놀림이었지만 참 피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이희자 (서울 종로구 홍지동)

The friend who is constant in happiness and adversity is to be reckoned as good-hearted on four grounds. He tells you his secrets. He does not betray your secrets. In your troubles, he does not forsake you. For your sake he will even lay down his life.

즐거울 때나 고생할 때나 한결같은 친구는 네가지 이유에서 마음좋다고 생각된다. 그는 그대에게 자기 비밀을 말해준다. 그는 그대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그대가 어려울 때 그는 그대를 버리지 않는다. 그대를 위해 그는 생명을 버리기까지 한다.

The friend of good counsel is good hearted on four grounds. He restrains you from doing wrong. He enjoins you to do what is right. From him you learn what you had not learnt before. He shows you the way to heaven.

영어로 배우는 경전 — 선생경 ⑨

좋은 충고자인 친구는 네가지 이유에서 친절하다. 그는 그대가 잘못된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는 그대로 하여금 옳은 일을 하게 한다. 그로부터 그대는 이전에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운다. 그는 그대에게 천상에 이르는 길을 안내한다.

The friend who is sympathetic is to be reckoned as good hearted on four grounds. He does not rejoice over your misfortunes. He rejoices with you in your prosperity. He restrains those who speak ill of you. He commends those who speak well of you.

자비심 있는 친구는 네가지 이유에서 마음좋다고 생각된다. 그는 그대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는 그대의 성공을 기뻐한다. 그는 그대의 험담을 하는 사람을 막는다. 그는 그대를 칭찬하는 사람을 칭찬한다.

'forsake' ~을 저버리다, 버리다.
'lay down one's life' 목숨을 바치다.

〈박미영 기자〉

불교TV특집 현대불교 btn ch 32

온누리 장엄할 큰 연꽃 한송이를…

2600년史를 3분 30초에

○…영상포교, 그 대장정의 길이 열렸다.

고불식에 앞서 3분30초간 펼친 컴퓨터 그래픽 쇼는 그 내용과 영상미에서 시청자를 압도했다. 불교의 탄생과 전파과정을 진리를 상징하는 금시조가 인도, 중국, 한국에 연꽃을 피우는 모습으로 보여줘 2천6백년 불교 역사를 압축해 펼쳐냈기 때문. 고불식이 거행된 가설 법당에 모인 교계의 지도자들은 멀티비전을 통해 컴퓨터그래픽 쇼를 지켜보며 '이 정도의 영상과 기획력이라면 불교TV 의 성공은 이미 기약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국 본사 환호의 박수

○…1일 불교텔레비전의 개국 장면은 전국의 본사에서 일제히 시청됐다. 불교텔레비전은 지난달 이미 각 본사에 수신설치를 마쳐 시청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던 것. 마침 초하루 법회가 봉행된 날이라 사찰을 찾은 신도들은 화면앞에 모여 장엄한 개국의 화면을 함께보며 환호의 박수를 쳤다. 불국사의 경우 대형 TV 앞에 모인 신도들이 '와' 하는 함성으로 개국의 기쁨을 표했으며 불국사의 한 스님은 이같은 상황을 전화로 불교 TV에 전하며 "모든 불자가 축하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수덕사에서도 3대의 TV 를 통해 스님 신도들이 불교TV 를 지켜봤다는 소식이다. 본사 외의 사찰로는 통도사 서운암,밀양 표충사, 강화 전등사,보문사 등 10여 사찰이 불교TV의 개국 장면을 지켜 봤다. 조계종 총무원에서도 5대의 TV가 설치됐다.

○…개국 선언문을 낭독한 김승한 방송위원이 이날 하루 화제의 인물로 떠오르기도 했다. 김위원은 오랫동안 극장에서 상영하는 '대한뉴스'를 진행했던 관록의 아나운서였던 것.

백남준 쇼 '화제'

○…개국 당일에 방송된 특집 프로그램들중 특히 '백남준 비디오 쇼'와 '종정스님 특별대담'이 많은 시청자들을 화면앞에 불러 앉힌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에서 직송된 테잎으로 방송된 '백남준 비디오 쇼'는 백씨의 예술적 기량이 총동원된 대작으로 TV로 나투시는 부처님의 모습으로 시작,불교의 정서와 현대인의 삶이 흥겨운 음악들과 함께 어우러져 영상쇼의 꽃을 피웠다.

또 통도사 정변전에서 텔렌트 고두심씨가 종정 월하스님을 만나 대담을 한 '종정스님 특별대담'은 종정스님의 일상적 수행생활과 그간의 수행이력을 담담히 들을 수 있어 많은 불자들이 귀를 기울이며 화면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고.

특히 스님은 이날 대담에서 금강산에서의 출가직후의 수행 이야기와 이시대 불자들에게 '바른신행'의 길을 열어 줘 대종사의 기풍을 새삼 느꼈다는 것이 시청자들의 소감이었다. 이밖에도 3.1절 특집 '3.1운동과 불교' 영화 '만행승 케인' 항공촬영으로 엮어진 '높은산 깊은 절'등에 시청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개국임박 가입신청 쇄도

○…아직 대다수의 가정이 유선방송 시설을 못한 점이 안타까움으로 남기도 했다. 지역 유선방송국에는 개국을 앞둔 지난달 20일부터 3월1일 사이에 가입신청 전화가 폭주해 접수 창구마다 비지땀.



◇ 개국 특집 '종정스님 특별대담'의 한 장면.

영상포교 서곡 전국 뒤덮어…각 본사 일제시청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개국 고불식에서 그간의 경과보고를 하고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온 불교텔레비전의 이태행 방송본부장.

며칠째 집에도 못 들어가며 밤낮을 일했다는 이태행 본부장은 지난 1일의 불교텔레비전 개국은 전국 불자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55일간의 시험방송을 지휘하며, 개국하는 날을 기다렸던 이 본부장은 "오늘 불교텔레비전의 개국은 불교계가 라디오 방송에 이어 또 하나의 청단 영상 포교매체를 갖게 됐다고 것 보다는 또 하나의 불자 공동체의 보양이 다져 졌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로부터 사업허가를 받는 일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각종 장비와 인력을 갖추는 일 모두가 부처님의 크나큰 가피력으로 성사된 것이라 믿습니다. 특히 지난 해의 1차 주주공모에서 보여 준 불자님들의 호응은 전국 방방곡곡에 불교텔레비전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실감케 했습니다. 기대에 한치도 어긋나지 않는 훌륭한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메시지 세계화 선도 역할 당부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28일 종합유선방송 개국과 관련 메시지를 발표했다.

김대통령은 메시지를 통해 "정보화 사회를 촉진시키고 국민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마침내 그 결실을 보게 됐다"며 "케이블텔레비전이 우리 방송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화의 선도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인터뷰 이태행 방송본부장

영상 포교의 첫 문을 열고 보니 그간의 준비과정 보다는 앞으로의 일들이 더 많고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는 이 본부장은 "다른 방송에 비해 훨씬 우수한 조건을 가진 불교텔레비전은 올 한해만 고생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달에 20일 이상을 퇴근도 못하고 고생한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또 "불교텔레비전은 철저히 불교적일때 그 진가가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며 "불교 문화의 우수성과 부처님 가르침의 위대한 목소리들을 화면 가득 담아 전국에 배달해 불교포교의 새 지평을 열어 가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태〉

'불자가 주인'…머슴의 자세로 최선다할 터

고불문

님의 대원 원음으로 전파하는데 몸과 목숨을 다 바칠 것입니다

부처님.
우러러 아뢰옵니다.
무량겁을 두고 찬탄할지라도 다 찬탄할 수 없는 부처님.
무량겁을 두고 찬탄할지라도 다 찬탄할 수 없는
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려는 이 순간.
저희들 가슴은
무량겁을 두고 말할지라도 다 말할 수 없는 감격에 벅차 올라
가느다랗게 떨리고 있습니다.

부처님.
지금 동해에는 님의 동근 광명인양 먼동이 트고
하늘과 땅은 모두 법열에 젖어 있습니다.
풀꽃은 풀꽃대로, 풀벌레는 풀벌레대로
크고 작은 푸나무들, 크고 작은 산 들짐승들
유주무주 고혼들도
텔레비전 화면에 나타날 님의 거룩한 모습과
온누리에 울려퍼질 원음을 듣기 위해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부처님.
이 모두가 진리에 목말랐던 중생중생들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그간 하고 싶었던 말 다하지도 못하고
듣고 싶었던 말 다 듣지 못해
오늘 이 순간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려 왔습니까.
이 애타는 마음마음 염원염원이 한데 모여
이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지금 이 순간의 감격감격과 염원염원이
허공계와 중생계가 다하고
모든 중생의 번뇌가 다할 때까지
영원으로 이어져 영원토록 하옵소서.

부처님.
일찌기 우리의 선각자들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불가설 불가설의 몸과 목숨을 보시하되
가죽을 벗겨 종이를 만들고,
뼈를 깎아 붓을 만들고,
피를 내어 먹물을 삼아 원음을 써서 유포 하였다 합니다.
이제 저희들도 선각자들의 전법하는 마음을 이어
님의 대원(大願), 대비(大悲), 대사(大捨)를 원음으로 전파하는데
때를 따르고 근기에 맞추어 몸과 목숨을 다 바칠 것입니다.

저 문수의 대지혜와 보현의 광대행.
지장의 대원력, 관음의 무변신을 빌어 천촌만락을 누비며
빈천한 사람은 그 빈천에서, 병자는 그 병고에서,
억울한 사람은 그 억울함에서 벗어나게,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허물들을 참회하게.
그리하여 진여의 자성을 찾게,
그들의 눈, 귀, 손, 발, 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재동자가 되어 수많은 선지식을 만나
참으로 올바른 삶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보지 못하는 세계가 얼마나 많은가를 낱낱이 찾아내어
사막하게 메마른 가슴에 푸르름이 샘이는 감로가 되게 할 것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이러한 저희들의 서원이 성취되게
항상 지혜와 방편을 주시고
크신 원력으로 남북통일의 해가 떠올라
7천만 동포들이 이 원음을 듣고
자비와 지혜광명을 얻도록 하옵시기를
엎드려 아뢰고 또 아뢰옵니다.

관음손으로 오세요

시내에 볼일이 있으시면
관음손에서 만나세요

지하철 1호선 종각역이나
3호선 안국역에서 하차,
조계사 쪽 입구에 있습니다.

관음손

720-1147~8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일도량에서 그 마음씀을
게을리하지 않는
관음손 가족—
오시는 분들께
불자로서 따뜻한 친절을
아끼지 않는답니다.

정겨운 우리가락과
4,000여권의 부처님의
법향이 가득한 관음손—
넉넉한 분위기에
따끈한 차공양도
그냥 냅니다.
잠깐의 쉼으로도 좋구요,
어긋난 기다림으로도
보내기 좋은
장소입니다.

관음손에서 하는 일

어린이 포교를 위한 불교용품 · 불교서적 판매
스님을 위한 신변잡화 · 염주 염가 주문제작
비디오 · 카셋트 · 설법집 · 단체용품 기획제작

법공양 페이지

불교TV특집 btn

* …· 현대불교신문은 교계의 각 종단 또는 사찰과 공동으로
* …· 제작하는 법공양면을 신설했습니다. 신설 법공양면은
* …· 본지의 편집의도에 따라 제작되는 기존의 지면(주16
* …· 면)과는 별도로,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이 스스로
* …· 제작의 주체가 되어 자기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법어

달하나 떠오르니 천강에 달빛 가득하고
만리에 구름 없으니 만리가 하늘이로다.

어느 세상에서도 부처님 말씀은 눈감은 적이 없습니다.
일목일초(一木一草)가 다 부처님의 어머니요,
천지미생전(天地未生前)부터 만덕은
온누리에 가득차 있습니다.
진리는 비어 있으되 또한 충만한 것이니
본래부터 넘치고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어찌해서 이 도리를 모르는 것입니까

날로 혼미해져 가는 세상,
인성(人性)이 불꺼지니 백일(白日)도 어둡고
백일(白日)이 어두우니 인륜도 캄캄합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의 가슴 속에 더 많은
법등을 지어야 합니다.
불교텔레비전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佛眼光明無餘地 何方世界有暗耶
광명이 두루 비쳐 남김없으니
어느 곳에 어둠이 남아 있으리오.
대한 불교 조계종 종정 月下

개국 선언

오늘 우리는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과 모든 중생들이
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가운데
온누리를 청정하고 향기롭게 장엄할
커다란 연꽃 한송이를 피우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지혜와 자비로 피워주신 이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성품 그대로
어둠을 밝히고 갈등을 씻어냄으로써
이 땅에 중생구제의 대자대비심을 가득하게 하려는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연꽃으로써
진리의 참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며
생명의 선한 모습을 증명할 것이며
사랑의 고귀한 모습을 그려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BTN 불교텔레비전은
정법을 온누리에 펼치는 방송
인간을 따뜻하게 만드는 방송
사회를 건강하게 가꾸는 방송
문화를 아름답게 일구는 방송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BTN 불교텔레비전은
깨달음의 길잡이로써
무명과 편견과 갈등을 극복하고
모든 고뇌와 번민의 근원에서 벗어나
밝은 내일을 창조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며,
온누리가 부처님의 땅이 되도록
나와 이웃, 나와 사회,
그리고 나와 부처님이 하나라는 사실을 깨우치는
일치융화의 꽃을 피워나갈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BTN 불교텔레비전을 통해
부처님과 만나고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가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사바세계에 영원한 자유와 평화, 균형과 조화가
충만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경건하게 다짐합니다.

BTN 불교텔레비전은
불기 2539년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이 될 것을 선언합니다.

1천6백년 영글어 세계최초라니…

불교TV개국 축하리셉션—지난28일 신라호텔서

1천불자 동참… 대작불사에 '감격눈물'

영상포교시대의 개막을 축하하는 불교텔레비전 개국 축하리셉션이 지난달 28일 오후 6시 종단협의회 의장 월주스님 오인환 공보처장관등 각계 인사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라호텔 다이너스티룸에서 개최됐다.

타종, 삼귀의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날 개국 리셉션은 대형스크린에 불교TV 홍보영화가 방영되며 절정을 이루었다.

월하 종정스님의 메시지와 고은시인의 축시, 불교텔레비전에 바라는 불자들의 마음이 화면에 어우러지고 개국을 준비하며 힘차게 뛰고있는 불교TV 직원들의 모습이 다채롭게 소개됐다.


◇ 불교TV 개국 축하 리셉션에는 1천여 인사들이 참석했다.

1부 기념법회에서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은 "불교TV가 개국하기까지 성원을 함께한 2천만 불자와 기쁨을 나누고 싶다"며 "불자의 눈과 귀를 눈뜨게하고 인륜과 도덕을 싹틔우는 방송이 되라"고 당부했다.

이에앞서 불교TV 사장 태응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텔레비전 개국으로 한국불교가 신행과 포교의 신기원을 이루게 됐다"고 전제하고 "부처님의 바른법을 온누리에 펼치고 문화를 가꾸는 방송으로 맡은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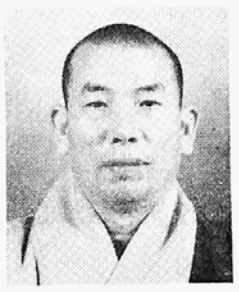
또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축사를 통해 "호국불교의 진통을 이어받아 사회 곳곳을 밝혀주는 방송이 돼달라"고 말했다.

미하연 국악실내악단의 반주로 불교성악합창단의 축가가 은은하게 울려퍼지는 가운데 권익현 국회정각회장의 축배제의로 시작된 2부 기념공연은 불자국악인 안숙선 안비취씨 등이 '관소리' '수궁가'를 공연 참석한 불자들을 불교TV객국의 기쁨과 환희를 함께 했다.

개국을 축하합니다

"주식동참 · 열심히 시청 해야"

송 산 스 님


불자들과 더불어 불교TV 개국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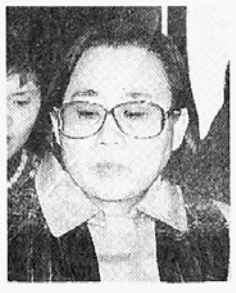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불교텔레비전이 제 몫을 다하도록 힘을 보태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청각 포교의 효과는 생각이상으로 큰 것이며 그 결과는 바로 우리들의 자양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식공모에 동참하고 프로그램마다 열심히 시청하고 이웃에게 전하는 사이에 우리의 포교방송은 불자들이 돌아가 진리를 배우는 장엄한 법당이 될 것입니다.

(중앙승가대학장)

이시대 최고 포교사…기대 커

남 지 심씨


이 환희로운 불사가 바로 불자들의 긍지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다매체 시대를 이끌어 갈 방송 포교의 원력이 이제 그 첫 결실을 맺었으니 앞으로의 활약에 기대가 큽니다.

한국 불교가 온 세계의 정신을 이끌 수 있도록 이 방송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개인개인의 신행 생활을 이끌고 이웃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이시대 최고의 포교사가 될 것을 믿으며 불자들의 끝없는 성원이 함께하길 빕니다.

(소설가)

발원문

시방삼세 제망찰해에 항상 계시옵는 무진삼보님께 귀의하오니
오늘 저희들이
세계 최초로 불교텔레비전을 개국하며 다짐하는 발원을 들어주옵소서.

부처님께서 불멸의 진리광명을 밝히신지 2539년,
우리나라가 희천대업을 이룩한지 50년,
그리고 독립만세의 횃불로 온강토를 밝혔던 오늘 3월 초하루를 맞아,
드디어 불교텔레비전이
거룩한 지혜와 자비의 모습을 나투옵니다.

진실로 오랜 세월동안
우리사부대중의 숙원사업이던 불교텔레비전의 개국은
하나로 모아진 불자들의 원력과 부처님의
가피지묘력이옵기에
오늘따라 불일(佛日)은 더욱 빛나옵니다.
삼가 봉축 드리옵니다.

이제 채널 32로 띄어드리는 우리 불교텔레비전은
지혜의 빛을 날로 더하고 자비의 샘물을 더욱 더 맑히어
인간세상에서 무명을 걷어내고
자비를 나누는 이웃을 넓혀나갈 것이며,
사람마다의 가슴에는 사람의 온정을 돌려
온누리에 기쁨의 물꼬를 트고,
푸른 날의 불성(佛性)을 가꾸는 전법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비록 이 창백한 날,
빈혈(貧血)의 땅에 어린 사랑의 묘목을 심어
나갈지라도
이 법음이 장차할 날에는 말씀의 거목이 되어
우리들의 숲으로 거기 서있을 것입니다.

이제 불교텔레비전의 전파를 띄웁니다.
이 방송은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에게 영상만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다 밝은 지혜의 법등을 달아드릴 것입니다.
흔들면 깃발이 되고,
두드리면 북이 되고,
자비와 경세의 종을 한누리에 울릴 것입니다.

시방삼세 제망찰해에 항상 계시옵는 무진삼보님
불기 2539년 3월 1일,
오늘 불교텔레비전이 일파에 만파를 실어
일승(一乘)의 원음을 여기 띄우오니,
일체중생은 무생법인을 이루고,
허리잘린 조국은 통일을 이루고,
온 세상은 연꽃이 피어나는 정토를 이루도록
가피하소서.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불교텔레비전 임직원 일동 합장

케이블 TV 시대의 역사적인 개막을 축하합니다!!

서울지역(21개사)

(주)강남종합유선방송
한상호
강남구 논현동 239-1 유경빌딩
☎ 518-3000

(주)강동종합유선방송국
황성하
강동구 천호2동 338-23
☎ 4747-115

강서종합유선방송(주)
김영수
강서구 등촌동 652-12 승원빌딩
☎ 690-1414

구로종합유선방송(주)
박기병
구로구 가리봉동 219-6
☎ 830-8300

(주)관악종합유선방송
권태혁
관악구 봉천10동 861-6
☎ 876-0844

(주)노원종합유선방송
최서영
노원구 상계2동 714 미도파 환승센터
☎ 934-3366

(주)동대문연합방송
김무중
동대문구 장안3동 465-8 세우빌딩
☎ 215-0114

동부종합유선방송(주)
권오용
중랑구 상봉동 118-19
☎ 433-0011

동서울케이블TV(주)
이주혁
성동구 성수2가 276-9
☎ 498-6000

(주)동작종합유선방송
박미정
동작구 신대방2동 358 대종빌딩
☎ 824-8080

마포케이블TV(주)
이범경
마포구 대흥동 433-2
☎ 717-1125

(주)미래케이블TV
원재연
도봉구 번동 463-57
☎ 999-8855

(주)북부종합유선방송
최영수
성북구 하월곡1동 90-1558 대진빌딩
☎ 942-0001

(주)서서울케이블TV
심상기
서대문구 충정로3가 63-1 삼칭빌딩
☎ 365-0101-2

(주)서초케이블TV
박근숙(SO협의회 회장)
서초구 서초동 1462-7 대호빌딩 구관
☎ 525-5000

(주)용산케이블TV
배승남
용산구 후암동 244-9 추빌딩
☎ 318-2700

우리종합유선방송(주)
김태문
송파구 송파동 20-9 천마빌딩
☎ 418-3000

(주)은평케이블TV방송
정하룡
은평구 대조동 불광전화국 신관2층
☎ 385-5701~4

중앙케이블비전(주)
김언호 · 김영선
중구 소공동 112-44
☎ 753-6781~3

(주)한강케이블TV
황영선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41-10
☎ 678-4051

한국통신종합유선방송
김진수(본부장)
양천구 목1동 918-1 목동전화국내
☎ 653-0183-5

부산지역(8개사)

금정종합유선방송(주)
이완희
금정구 장전동 230-5
☎ (051)515-6140~1

(주)낙동케이블TV방송국
백봉도
북구 감전동 152-2 범한빌딩 8층
☎ (051)326-9112~6

(주)동남아 블비전
정철진
남구 대연동 73-11 텔콤빌딩 9층
☎ (051)620-5050

(주)범진케이블네트워크
변현규
부산진구 범천1동 842-8 범일강남빌딩
☎ (051)644-2555

(주)부산케이블TV방송국
김대상
동래구 온천1동 177-8
☎ (051)555-3399

(주)서부산케이블네트워크
이종원
사하구 신평동 84-109
☎ (051)293-0300

(주)중부산종합유선방송
홍외연
영도구 대교동1가 71 한성빌딩 3층
☎ (051)412-0666

해운대케이블TV방송(주)
김진희
해운대구 우1동 548
☎ (051)746-1122

대구지역(6개사)

(주)금호방송
이재인
북구 대현1동 229-1
☎ (053)953-4000

(주)동구케이블방송
배정윤
동구 불로동 392-4
☎ (053)985-7777

(주)대구케이블텔레비젼
남종길 · 이증명
남구 대명2동 1875-2
☎ (053)656-5555

(주)서대구케이블TV
김정수
서구 평리3동 1065 서대구전화국 4층
☎ (053)567-6000

(주)수성케이블방송
최원식
수성구 황금동 569
☎ (053)768-8888

푸른방송(주)
서상규
달서구 감삼동 68-4
☎ (053)551-2000

인천지역(5개사)

남동케이블TV(주)
이판철 · 홍성필
남동구 간석동 282-1
☎ (032)422-4757~9

남부종합유선방송(주)
김인태
남구 주안동 203-3
☎ (032)875-0307

북인천케이블TV(주)
호병호 · 최만림
북구 작전동 416-6
☎ (032)551-9300

서인천종합유선방송(주)
이교은
서구 석남동 518-16 삼승빌딩
☎ (032)582-3211~4

(주)인천중동종합유선방송국
정순현
동구 송림동 60-1
☎ (032)761-8888

광주지역(2개사)

(주)광주종합유선방송국
김기천
북구 누문동 134-1
☎ (062)512-4433

(주)광주케이블TV네트워크
김우진
서구 월산동 900-3
☎ (062)366-5555

대전지역(2개사)

대전종합유선방송(주)
조부성
동구 용전동 24-9
☎ (042)673-3322

(주)한밭케이블TV
이기현
중구 중촌동 220-2
☎ (042)222-8350~1

경기지역(1개사)

(주)수원방송국
이건영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06-1
☎ (0331)257-4011~9

기타지역(8개사)

(주)강원케이블TV
김정용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701
☎ (0361)242-2131~2

(주)청주종합유선방송
박상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124 석원빌딩
☎ (0431)271-3000

(주)천안종합유선방송
강이호
충남 천안시 문화동 2-108
☎ (0417)551-9991~8

전주종합유선방송(주)
김용균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68-10
☎ (0652)250-6500

(주)서남종합유선방송
오완교
전남 목포시 산정동 198
☎ (0631)42-3612

포항CATV방송(주)
김규만
경북 포항시 남빈동 415-15
☎ (0562)49-7777

창원케이블TV(주)
윤희윤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1-1
☎ (0551)67-6900~4

제주종합유선방송(주)
송봉규 · 오길웅
제주시 연동 304-22
☎ (064)41-7777

지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면은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

불교TV특집 btn

법공양 페이지

화보 "흔들면 깃발, 두드리면 북이 되고"





헌화 TV부처님의 생일날, 환호속에 시현한 TV부처님의 존엄한 단상에 주주대표가 싱그러운 꽃 바구니를 바치며 불교TV의 발전을 기원했다.



일심으로 지난달 28일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개국축하 리셉션에 참여한 교계 지도자들과 귀빈들이 합장을하고 불교TV의 개국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 동참한 1천여 불자들은 불교TV의 탄생은 한국불교의 도약임을 재확인 했다.

새 얼굴 개국고불식에 앞서 거행된 불교TV상징물 제막식은 안방 부처님의 새 얼굴을 선보이는 감격스런 자리였다. 제막식 광경은 고불식과 함께 방영돼 전국 불자들이 TV를 통해 볼 수 있었다.

告佛 불교텔레비전 사장 태응스님이 불교 TV의 역사적 개국을 부처님께 고했다. 이날 이계진 · 김성녀씨가 진행을 맡았다.





발원 사원들의 마음을 한데 모은 발원문을 고은희 아나운서가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읽고 있다.

축 시

고 은 (시인)

여기 부다가야 보리수의 진리 있어
진리 있어
저 히말라야 다울라가리
멀리 우러르는 새벽에 깨쳐
온통 꽃무리 피어나고
노래와 춤 덩실덩실
하늘을 가득 채운 진리 있어
산 넘고 물 건너
1천6백년의 세월 이어 왔나니
여기 동쪽나라 진리 있어
온갖 산 깊은 곳마다 저자마다
오랜 진리있어
진리는 반드시 진리의 소리 펼치나니

들어라
이 소리로 하여금
마음을 닦아 본마음이요
이 소리로 하여금
이웃을 맞아 화합이요
이 소리로 하여금
온 세상 중생 가운데 청정 아니리오
보아라 보아라
이 얼굴로 하여금
온 세상 법계 가운데 자비 아니리오

가장 오래동안
우리가 귀의해 온 진리 있어
그러므로 가장 새로운 진리로 피어나
이제 방금 아기울음소리 아니리오
그 진리의 을음소리 아니리오
이로부터 우리 진리의 소리로 하여금
그동안 낡은 신 벗고
그동안 뒤쳐진 걸음 앞당겨
새로운 문명 가운데
바람처럼 내달려
부처님 정법
이 진리로써 메아리쳐
이 진리로써 넘쳐나
이 진리로써 비로소 원만한 지혜 아니리오

이로부터 우리는 가리라
남섬부주 한반도 여기 끝 아니라
끝내 삼천대천세계
그 겨자씨앗만한 어느 곳에도
우리는 가리라
가서 소리가 되고
가서 빛이 되고
가서 부처님 46년의 길이 되리라
갔다 와
여기 우리들 회상 무궁하리라

오늘 불교텔레비전 개국을 맞아
여기 우리들 회상 무궁하리라
저 수미산으로 솟아올라 무궁하고 무궁하리라
오늘 불교텔레비전 개국의 날 맞아

불 교 서 적 및 일 반 서 적

佛音 전파의 사명과
함께 한 오랜 세월,
그 세월이 100년이 되어도
우리의 불심과 정성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 고을고을마다
고통과 어둠이 사라지고
자비의 빛이 맞물려 질 때까지
우리출판사는
圓音의 法을 실어
피안으로 인도하는
반야용선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밝·히·는·책

- 이와같이 나는 들었다 / 암도지음 / 346쪽 / 6,000원
- 사람들아 길가기 어렵다 마오 / 연화지음 / 306쪽 / 5,000원
- 빈 산에 사람없어도 꽃은 피고 물 흐르더라 / 법광지음 / 268쪽 / 5,000원

신간 안내
※ 일곱가지의 아내 / 김달진지음 / 306쪽 / 5,600원
※ 지묵스님이 들려주는 불교이야기 / 지묵지음 / 300쪽 / 5,600원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8 우 리 출 판 사 전화 : 313-5047 · 5056 FAX : 393-9696

새로운 전문방송시대가 열립니다

지금, 54개 지역 방송국으로 신청하십시오

외환은행 및 주택은행의 전국 본·지점에서도 신청을 받습니다.

가입신청을 하는 순간 — 30개 전문 채널의 주인이 됩니다.

뉴스와 영화, 스포츠, 오락에서 교양, 교육, 음악, 문화, 정보에 이르기까지 —
시청자의 입맛대로 골라볼 수 있는 30개 채널들이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는 첨단 정보미디어, 케이블 TV!
아래의 가까운 지역방송국이나 주택은행 및 외환은행의 전국 본·지점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 케이블 TV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시설 설치에 따른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입 순서에 따라 실제 시청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케이블 TV 수신요금

구 분	내 용	요 금	부 가 세
수 신 료	• 기본채널(30개) • 유료채널(17개) -세대당 추가 1~9대 -세대당 추가 10대 이상	월 15,000원 월 7,800원 대당 7,500원 (50% 할인) 대당 4,500원 (70% 할인)	1,500원 780원
컨버터사용료	방송국으로부터 대여받은 컨버터의 철사용료 및 유지보수비	월 2,000원 (수신료와 함께 매월 납입)	200원
컨버터보증금	대여 컨버터에 대한 보증금 (보험료 포함)	대당 30,000원 (해약시 환불)	없 음
시 설 설 치 비	종합유선방송 수신설비 설치작업에 소요된 실경비	-단독주택 40,000원 -공동주택 60,000원	설치장소 등 여건에 따라 요금 차등

■서울특별시
- 종로·중구/중앙케이블비전 : 753-6781~3
- 서대문구/ 서서울케이블 TV : 365-0101~2
- 용산구/ 용산케이블 TV : 318-1800
- 성동구/동서울케이블 TV : 498-6000
- 동대문구/ 동대문연합방송 : 215-0114
- 중랑구/동부종합유선방송 : 433-2121
- 성북구/ 북부종합유선방송 : 942-0111~2
- 도봉구/ 미래케이블 TV : 999-5555
- 노원구/ 노원케이블 TV : 934-3366
- 은평구 : 은평케이블 TV방송 : 388-8000
- 마포구/마포종합유선방송 : 717-1125
- 양천구/한국통신종합유선방송 : 653-0183~5
- 강서구/강서종합유선방송 : 690-1414
- 구로구/구로종합유선방송 : 830-8300
- 영등포구/ 한강케이블 TV : 634-3200
- 동작구/ 동작종합유선방송 : 824-8080
- 관악구/ 관악종합유선방송 : 877-5000
- 서초구/ 서초종합유선방송 : 525-5000
- 강남구/ 강남종합유선방송 : 518-3000
- 송파구/우리종합유선방송 : 418-3000
- 강동구/강동종합유선방송국 : 4747-115

■인천직할시
- 중·동구/ 인천중동종합유선방송국 : 761-8888
- 남구/남부종합유선방송 : 875-0307~9
- 남동구/남동케이블 TV : 422-4757
- 북구/북인천종합유선방송 : 551-9300
- 서구/서인천종합유선방송 : 582-3211~4

■경기도
- 장안·팔달구/ 수원방송국 : 257-4011~9
- 수원시·권선구/ 수원종합유선방송국 : 39-3339

■강원도
춘천·홍천·철원·화천·양구군/ 강원케이블 TV : 242-2131~2

■충청북도
- 청주·청원군/ 청주종합유선방송 : 271-3000

■충청남도
- 천안시·군/ 천안종합유선방송 : 551-9991~8

■대전직할시
- 중서·유성구/ 한밭종합유선방송 : 222-8350~3
- 동구·대덕/ 대전종합유선방송 : 673-3322

■경상북도
- 포항·영일·울릉/ 포항 CATV방송 : 49-7777

■대구직할시
- 중·남구/ 대구케이블텔레비전 : 656-5555
- 북구/ 금호방송 : 953-4000
- 수성구/ 수성케이블방송 : 768-8888
- 달서구/푸른방송 : 551-2000
- 서구/ 서대구케이블 TV : 567-6000
- 동구/ 동구케이블방송 : 985-7777

■전라북도
- 전주시·완주군/ 전주종합유선방송 : 71-5115~6

■부산직할시
- 중동·영도구/ 중부산종합유선방송 : 412-0666
- 서·사하구/서부산케이블네트워크 : 293-0300
- 부산진구/ 범진케이블네트워크 : 640-8585
- 동래구/ 부산케이블 TV방송국 : 555-0300
- 남구/ 동남케이블비전 : 620-5000
- 강서·북구/낙동케이블 TV방송국 : 326-9112~6
- 해운대구/해운대케이블 TV방송 : 746-8801
- 금정구/금정종합유선방송 : 515-6140~1

■광주직할시
- 동·북구/ 광주종합유선방송국 : 512-4433
- 서·광산구/ 광주케이블 TV네트워크 : 366-5555

■전라남도
- 목포·신안·무안/ 서남종합유선방송 : 42-3612

■경상남도
- 창원·진해/ 창원종합유선방송 : 67-6900~4

■제주도
- 제주시·북제주군/ 제주종합유선방송 : 41-7777



KCTV KOREAN CABLE TELEVISION ASSOCIATION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

30개 채널 케이블 TV